

연구총서2000-06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김 학 성

통 일 연 구 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를 보다 심층적이고 의미있게 수행하기 위해 어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에 앞서 평화개념을 정립하고, 평화에 관한 이론 연구의 흐름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정책연구에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론들을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국제정치이론들의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이론적 논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서 구성주의의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구성주의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각 이론들을 비교·검토했으며, 이를 한반도 현실에 적용시켰다.

1. 서론

이론은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며, 또 반드시 그러한 필요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론은 현실세계를 바라보는 렌즈 역할을 한다. 즉 분석자들이 복잡한 현실세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식을 체계화한 것으로써 도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적 접근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계도적 연구를 위해 유용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정치이론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문제에 이론적·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국제정치이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보다 평화문제가 국제정치학의 핵심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제정치이론들은 시선을 국제적 차원에만 집중하지 않고 국내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분석수준간 연계적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수준을 포괄하는 평화체제의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이론으로는 국제정치학의 주류를 이루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1980년대 말 국제정치이론의 제3차 대논쟁을 겪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구성주의 패러다임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연역적 접근이 미진했던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가 시도하는 바는 향후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론적 접근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제 정책들의 구상,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돌출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식론적 기반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평화에 관한 이론연구의 흐름

가. 평화 개념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개념이 확대 해석되어왔다. 그 배경에는 소위 평화연구자들의 기여가 매우 컸다. 대표적인 평화연구자인 갈통은 1960년대 말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해서 설

명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의 부재를, 적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과 다른 어떤 것, 예컨대 사회경제적 측면의 ‘구조적 폭력’ 부재를 의미한다. 구조적 폭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기존의 평화 개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평화의 인식론적·존재론적 문제 탓에 현실적으로 평화를 명확하게 개념화 하기는 매우 힘들다. 우리는 평화를 상상할 수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실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국제사회든 국내사회든 간에 어떤 사회체제의 현 상황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접근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그 목표의 구체적 내용은 역사와 함께 항상 발전해나가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의 평화지향적 변화를 위한 비판적 논쟁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다.

나. 이론연구의 흐름

2차세계대전 이후 평화문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어왔다. 미국식 사회과학인 국제정치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안보연구와 전쟁으로 얼룩진 근대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태동한 평화연구이다. 안보연구와 평화연구는 두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안보연구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이론의 개발에 중점을 둔 데 반해, 평화연구는 가치와 현실비판에 더욱 큰 비중을 둔다. 둘째, 안보연구는 정책개발 및 적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반면, 평화연구는 일반인들에 대한 평화교육적 목적을 강하게 내포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문화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목표의

식을 가지고 있다.

넓게는 국제정치학, 좁게는 안보연구의 지적 전통을 찾아본다면, 홉스, 칸트, 그로티우스의 전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 전통 위에서 다양한 국제정치이론들이 경쟁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특성에 따라 특정 지적 전통이 상대적으로 큰 설득력 또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보연구도 그러한 추세에 발맞춰 처음에는 ‘국가안보’, 1970년대부터는 ‘국제안보’,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안보’의 방향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왔다. 물론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홉스적 전통을 이어받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언제나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칸트와 그로티우스의 전통에서 있는 자유주의, 제도주의, 구성주의의 일부가 안보연구의 변천과정에 미친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다.

평화연구의 경우, 현대적 의미에서 그 역사는 비교적 짧다. 2차대전 이후 제기된 평화에 관한 정치학 내지 사회과학적 문제의식들은 애초 미국의 핵물리학자 등 자연과학자들에 의해 자극을 받아 전략연구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중심적 평화연구를 회의적·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서유럽국가들의 평화연구자들은 1950년대 말부터 지역적으로 소규모 단체를 결성하여 평화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70/80년대 평화연구는 국제평화운동의 확산과 함께 더 이상 지역 내지 연구소 중심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었으며, 탈냉전시기에 들어와서는 학제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즉 학문분야간 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소위 ‘초학문적 응집’을 통한 ‘평화학’의 정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평화연구는 그 성격과 발전과정의 측면에서 평화운동 내지 평화교

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어렵다.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또 평화문제에 대한 접근방법들도 매우 다양하다. 더욱이 평화운동적 성격, 즉 가치 내지 윤리의 문제가 항상 수반하기 때문에 평화이론과 평화윤리의 분리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이론의 정립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갈통과 쟁하스는 대표적 평화이론가로 손꼽을 수 있다.

3. 주요 국제정치이론의 핵심가정과 평화의 조건

가. 현실주의

현실주의는 국제정치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그 위세는 지속되고 있다. 현실주의 패러다임 내에도 여러 가지 분과가 있지만, 대체로 전통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양자간의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관 및 기본가정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핵심가정으로는 크게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국가는 국제정치 행위의 핵심 단위이다. ② 국제체계는 조직원리로서 무정부상태이다. ③ 국가는 권력을 추구하며, 그 자체로 목표이거나 아니면 다른 목표의 수단이다. ④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현실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평화의 조건은 세력균형이다. 전통적 현실주의자인 모겐소는 미·소의 양극체제 하에서 국제평화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용을 통한 평화”라고 이름지은 그의 제안은 외교를 핵심적 도구로 간주한다. 국가수준

에서 평화의 조건을 찾는 전통적 현실주의자들과 달리 신현실주의자들은 평화를 기본적으로 특정 국제체계의 안정적 구조의 산물로 파악한다.

현실주의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갈등에 맞춰져 있다. 비록 전통적 현실주의나 수정 신현실주의는 협력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있긴 하지만, 이는 갈등의 잠정적 완화 내지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이나 국제체계의 변화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외교, 세력균형, 국제체계의 안정 및 동맹 등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실주의자들의 평화조건들은 소극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으며, 외교정책적 맥락에서는 강대국의 행위지침으로써 더욱 큰 유용성을 가진다.

나.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에서 흔히 자유주의는 이상주의로 매도되는 경향이 있다. 현실주의나 제도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통일되고 일관성을 갖는 국제정치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이상주의적 이념으로서가 아닌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으로 간주할 경우, 비록 원대하고 간결한 구조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유주의적 전통에 입각하여 사회적 선호와 국가행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은 지속되어왔다. 더구나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점증하면서 자유주의적 시각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주의는 이론적 정향에 따라 구조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구조적 자유주의의 핵심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정치의 기본행위자는 개인 및 사적 단체이다. ② 국가는 국내사회의 하부구조적 상태를 반영한다. ③ 국가행위는 상호의존적인 국가선호들의 배열에 의해 결정된다. ④ 역사의 발전에 따라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국제협력이 증대할 것이다. 이에 비해 수정 신현실주의와 친화성을 갖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핵심가정으로는 ① 국가는 국제행위의 중심 단위이다. ②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협력의 제도화가 가능하다. ③ 국가는 합리적·이기적 행위자이다.

평화의 조건과 관련하여, 구조적 자유주의의 대표적 이론들로서 ‘통합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민주평화론’을 손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민주평화론은 지난 10년간 이론적 논의들을 야기해왔다. 민주평화론은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평화의 주 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역사적·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전쟁을 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부분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만 국한되는 ‘분리된 평화’가 가능한 이유는 국제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체제의 성격에 달려있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간의 제도적 협력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평화의 조건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애초 관심은 국제적 경제협력이 있었으나, 이론적 개념의 세련화와 확장을 통해 안보문제까지 관심을 확대해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가 중점을 두는 제도(레짐)의 주요 기능은 충분조건은 아니라도 국제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의 길을 모색해 가는 필요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유주의 이론들은 서구국가들 또는 이들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들 이론에서 개발된 개념들과 설명틀을 어느 정도 가공

할 경우, 비서구국가들에게도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자유주의 계열에 속하는 이론들의 전반적인 논리구조에 따르면, 비서구국가들 또는 이들의 국제관계에는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이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이 암시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다양한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묶기가 매우 힘들지만, 물질에 초점을 두는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후기실증주의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구성주의는 이론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주로 메타이론 차원에서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의 논쟁에 주력했기 때문에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비교하여 아직 풍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구성주의의 개념들 자체가 조작되거나 경험적으로 검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증주의적 이론화가 쉽지 않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구성주의는 원칙적으로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특정 세계관을 표방하지 않는다. 구성주의의 규범적 측면을 굳이 따진다면, 사회적 변화의 증진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구성주의는 존재론 및 인식론적 차원에서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도전할 뿐이며, 이데올로기적 확산에 의한 반현실주의 내지 반자유주의는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구성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전통에 접맥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진화론적 발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성격 탓에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달리 이론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핵심가정을 정리하기 쉽지 않으며, 가정들도 대체

로 메타이론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핵심가정을 정리해보면, ① 국제관계의 현실은 지식과 사회적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 ② 국제사회의 질서는 행위주체와 구조의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③ 국가이익은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에 의해 결정되며, 양자는 끊임없는 정치적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

구성주의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평화의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체와 구조의 관계, 정체성과 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통해 제도의 구성과 발전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제시된 평화의 조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규명해준다. 평화에 관한 구성주의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가지로 종합해볼 수 있다. 첫째, 한 국가의 안보정책이 단순히 국제체계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적 사회문화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결과들이다. 둘째, 정치엘리트를 포함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집단정체성이 국가이익과 외교정책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이다. 셋째, 자유주의에 의해 제시된 평화의 조건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평가 또는 재확인하는 연구들이다.

구성주의의 연구결과들은, 비록 인과적 설명과 미래예측에는 취약성을 드러내지만, 현실세계의 평화적 변화가 발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사회현상에는 우연적 요소가 곳곳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미래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미래예측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는 합리주의의 탈역사적 관점을 보완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즉 구성주의는 국제관계의 현안에 대한 대안모색과정에서 물질적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합리주의의 판단오류를 교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점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경험적·귀납적 내지는 규범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론적 접근은 단지 간헐적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연구의 상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 접근을 위해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한다. 개념규정은 개념적 틀 또는 이론적 논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제레짐의 한 형태로 규정될 수 있다. 그 근거로 ① 한반도 평화는 지역적 범위를 가진 하나의 국제적 이슈로 간주될 수 있고, ②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위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결정절차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합의서’ 등은 비록 실천력을 갖지 못하지만, 원칙과 규범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는 이미 ‘선언적 레짐’이 존재한다는 세가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규정이 현재 진행중인 경험적 사실들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존재론 및 인식론적 논의와 문제해결이론적 논의는 앞에서 제시한 세가지 이론적 패러다임을 토대로 연역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존재론 및 인식론적 논의는 웬트의 ‘주체와 구조 관계에 따른 국제정치이론들의 분류’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떠한 질서 및 작동원리에 따라 형성·발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의 질서모형을 모색하는 이론적 작업이다. 모형의 모색과정에서 현실주의, 자유

주의, 구성주의의 이론적 틀을 모두 활용해본 결과, 구성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분석수준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론으로서 주목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문제해결이론적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행위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게임이론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전략적) 행위, 규범적 행위, 그리고 담론적 행위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각각의 한반도 평화문제의 해결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여태껏 주로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정에 집착하여 전략적으로만 인식된 경향이 매우 강하며, 그 결과 오히려 전략적 딜레마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의 적극적 모색이 요구되며, 규범적 및 담론적 행위이론은 전략적 행위를 보완해주는 접근방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서 구성주의의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주의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각 이론들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도 일반이론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현실주의의 신중함과 자유주의의 발전주의 내지 진화론적 이념은 결코 경시될 수 없다. 또한 현실세계에서는 전략적 행위가 판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목적합리성에 치중한 합리주의자들의 지식이 이데올로기화됨으로써 그러한 현상을 실제보다 더욱 과장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모든 행위에는 사회학적 측면, 즉 규범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성격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과주의의 논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역

압되어온 ‘적합성의 논리’와 ‘논증의 논리’가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둔다. 아직은 계도적이며 시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한 논의가 활성화된다면 현실을 더욱 ‘있는 그대로’ 설명 내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II. 평화에 관한 이론연구의 흐름	8
1. 평화 개념	8
2. 이론연구의 흐름	11
가. 안보연구	12
나. 평화연구	28
III. 주요 국제정치이론의 핵심가정과 평화의 조건	42
1. 현실주의	43
가. 핵심가정	44
나. 평화의 조건	49
2. 자유주의	59
가. 핵심가정	64
나. 평화의 조건	74
3. 구성주의	86
가. 핵심가정	93
나. 평화의 조건	102
IV.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이론적 논점	110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111
2. 존재론 및 인식론적 접근	118

가. 이론간 존재론 및 인식론 비교	119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질서모델 모색	125
3. 문제해결이론적 접근	141
가. 안보와 협력의 조화	143
나. 양자적 내지 다자적 해결	158
V. 결 론	176
참고문헌	182

- 표목차 -

<표 III-1> 전통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비교 44
<표 III-2> 자유주의 전통을 계승한 국제정치이론들 62
<표 III-3>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신현실주의의 주요 논쟁점 73
<표 III-4> 합리적 접근과 재귀적 접근의 비교 87
<표 III-5> 채래적 구성주의와 비판적 구성주의의 비교 89
<표 III-6> ‘신고전적 구성주의’와 ‘자연주의적 구성주의’의 비교 ... 92

- 그림목차 -

<그림 II-1> 자료-이론-가치의 삼각관계 34
<그림 II-2> 문화화 육각모델 37
<그림 III-1> 신현실주의와 수정 신현실주의 비교 57
<그림 IV-1> 주체-구조 관계에 따른 국제정치이론들의 분류 121
<그림 IV-2>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주체와 구조의 배열 126
<그림 IV-3>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체와 구조의 규정방식 129
<그림 IV-4> 행위주체와 구조의 상호작용 과정 138
<그림 IV-5> 사회행위의 세가지 논리 166

I. 서론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비단 남한과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도 끊임 없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탈냉전 시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지만, 남북한이 평화체제의 구축문제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어려움은 단순히 방안이나 합의부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역대 한국정부나 북한정권은 각각 나름대로의 통일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틀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평화통일을 대내외에 홍보해왔다. 더욱이 1991년 말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상호 화해·협력·불가침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정착의 노력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한 사회에 구축된 냉전문화, 남북한간 정치적·군사적 상호신뢰의 부재, 탈냉전시기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남북관계는 세계정치적 조류와 관계없이 냉전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물론 동북아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의 대외정책이 달라진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평화정착에 관한 기본논의는 냉전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냉전시기 남북한 정부는 상황에 따라 각각 자기식 논리로 화해·협력·평화를 추구하는 통일정책을 공언했지만, 이는 실제로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

2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된 적대적 경쟁구도 속에서 서로의 체제우월성과 민족정통성을 내세운 명분논리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는 바로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중·장기적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 하에 전향적인 남북관계 인식과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북포용정책은 무엇보다 당위론적인 통일논의를 일단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평화정착 및 공존공생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갖는다. 이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기존의 정책적 구상 틀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된 이래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합의서’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6·15 공동합의서’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합의서의 전반적 내용은 암묵적이거나 평화지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합의도출은 물론이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실천과정이 결코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북한의 체제유지 문제와 주변 4강국의 대한반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 중점분야, 기본 방향 등 구체적 과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태도가 향후 어떻게 나타날지를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향후 태도는 주변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요 변수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전개에 대해 남한정부는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향후 북한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자체 역동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변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공산권, 특히 동독의 예를 보듯이 외부의 영향력도 중·장기적으로 공산권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변강대국에 대한 외교정책은 바로 그러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입안·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존의 구상들을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남한정부, 학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연구결과를 제시해왔다. 논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접근방법은 대체로 네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군을 주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안보적 현실 하에서 우리의 이익 내지 목표관철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 평화를 논해왔다. 이는 일부 진보적 재야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접근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 둘째, 평화문제를 군사적 안보 차원에 국한시키는 관점에 익숙해 있다. 이런 경향의 당연한 귀결로서 한반도 평화문제는 주로 국가관계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셋째, 앞의 두가지 공통점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북한과 주변강대국들의 국가 이익 또는 정책목표가 고정불변한 것으로 전제하고 각국간의 관계를 전술 내지 전략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 있다.

넷째, 대체로 기존 연구들은 경험적·귀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론적·연역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물론 한반도 문제 전반과 관련하여 (신)기능주의와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이 흔히 활

4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용되고 있긴 하다. 특히 (신)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 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이들은 대개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평화문제의 주요 연구대상인 폭력적 갈등의 원인과 해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신)기능주의의 이론적 출발배경에는 평화정착과 유지라는 문제의식이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실제 연구내용에서 평화는 중심주제라기보다 기능적 통합과정에 수반하는 효과로 간주된다. 이와 달리, 군사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다수 연구들은 현실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 속하는 특정 이론 틀을 적용하기보다 의식적 내지 무의식적으로 현실주의의 일반적 가정들을 전제로 하여 현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론적·연역적이라기보다 경험적·귀납적 연구로 평가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특징들로 말미암아 기존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관련 군사적 안보가 가장 급박한 문제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개념에 함축되어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차원의 평화조건들이 기존연구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평화의 조건들은 국가관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국내 정치·사회·경제 구조들에서도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분석수준들'을 연계시키는 접근방법이 필요하지만, 기존연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

둘째, 전술 및 전략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은 단기적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지, 나아가 통일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정된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변화의

방향조절에 중점을 두는 접근태도가 요구된다.

셋째, 경험적·귀납적 접근방법은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변수의 활용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구자 개개인의 경험과 시각 차이로 인해 변수의 선정과정은 물론이고 적용과정에서 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험적·귀납적 연구의 경우에서도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의 가정들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관점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더라도 개인별로 너무나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이론적·연역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연구는 큰 도움을 준다. 이론은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며, 또 반드시 그러한 필요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론은 현실세계를 바라보는 렌즈 역할을 한다. 즉 분석자들이 복잡한 현실세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식을 체계화한 것으로서 도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적 접근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계도적(heuristic) 연구를 위해 유용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문제에 이론적·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평화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2차세계대전 이후 평화에 관한 이론들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주요 국제정치이론들이 내세우는 핵심가정들과 평화의 조건을 비교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이론적 논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인식모델의 모색을 위한 존재론 및 인식론적 접근, 당면 현안과 직결되는 문제해결이론적 접근에 관해 이론별 검토와 논증이 시도될 것이다.

6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국제정치이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보다 평화문제가 국제정치학의 핵심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제정치이론들은 시선을 국제적 차원에만 집중하지 않고 국내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분석수준간 연계적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수준을 포괄하는 평화체제의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이론으로는 국제정치학의 주류를 이루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1980년대 말 국제정치이론의 제3차 대논쟁을 겪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구성주의(constructivism) 패러다임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연역적 접근이 미진했던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가 시도하는 바는 향후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론적 접근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제 정책들의 구상,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돌출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식론적 기반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 이론이 실제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얼마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론이 정책결정과 미래진단에 있어 직접적이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론이 정책결정자들에게 분석적 도구를 제공해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어떠한 정책이 결정될 때, 정책의 방향과 수단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만, 그러한 정책의 이면에 숨어있는 기본가정은 현실정치적 장에서 밝혀지지 않는다. 이론가 내지 학자들의 과제는 바로 그러한 기본가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며, 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는 것이다.

만약 현실주의적 기본가정에 입각해서 바라본다면, 대북포용정책은 매우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것인 반면에 자유주의 내지 구성주의의

기본가정을 적용한다면, 전도가 밝은 정책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이론적 패러다임이 모든 사회현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각 이론들은 특정 문제영역에서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정책이 적절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이면에 숨어있는 기본가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릇 경험적 사실에 충실하지 못한 이론은 단지 '나쁜 이론'으로만 평가되지만, 이론적 기반을 갖지 못한 정책은 '환상'을 낳을 뿐이다.¹⁾

1) Thomas Risse-Kappen, "Konfliktprävention durch Theorie?" *Internationale Politik*, Bd.51, Nr.8 (1996), p.8.

II. 평화에 관한 이론연구의 흐름

1. 평화 개념

평화 개념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거의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주로 국가간의 관계에서 조명되는 경향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특히 근대 민족국가가 17세기 전반기 ‘30년 전쟁’을 결산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한 베스트팔렌 체제에서 탄생했으며, 당시 현대 국제정치학의 원조인 국제법 체계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근대적 의미의 평화 개념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더욱 부각된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탈제국주의 및 탈식민화, 산업화, 유럽적 현대성 — 예컨대 인권, 평등, 민주적 시민사회 등 — 의 세계적 확산 등과 더불어 평화의 개념도 확대되었다. 즉 국가간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내의 사회관계와 국경을 넘나드는(transnational)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모든 사회경제적 폭력도 평화의 반대 개념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르면, 평화는 개인, 사회, 국가, 세계를 막론하고 어떠한 종류의 갈등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평화 개념이 확대 해석되는 배경에는 소위 평화연구자들의 기여가 매우 컸다. 대표적인 평화연구자인 갈통(Johan Galtung)은 1960년대 말 평화를 ‘소극적(negative) 평화’와 ‘적극적(positive) 평화’로 구분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²⁾ 그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는 물리

2)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적 폭력의 부재를, 적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과 다른 어떤 것, 예컨대 사회경제적 측면의 ‘구조적 폭력’ 부재를 의미한다. 구조적 폭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기존의 평화 개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경제이론의 대가인 볼딩(Kenneth E. Boulding)은 갈통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³⁾ 우선 물리적 폭력 또는 전쟁의 부재를 소극적 평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자가어법(oxymoron)이라고 비판했다. 즉 어떠한 것을 적극적으로 개념 규정하면서 그것의 반대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개념규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평화를 단지 전쟁이 아닌 것이라는 표현은 마치 물은 얼음이 아닌 것이라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다”⁴⁾고 비유했다. 또한 적극적 평화에 대해서도 존재론적 의문을 제기했다. 즉 갈통의 적극적 평화는 인류의 발전과 학습을 통해 꾸준히 진보할 때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시대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고 주장하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적극적 평화를 “훌륭한 관리, 갈등의 질서있는 해결, 그리고 성숙한 관계, 신사다움, 사랑으로 연계된 조화의 조건”이라고 달리 규정했다.⁵⁾

갈통과 볼딩의 개념규정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평화를 명확하게 개념화하기는 매우 힘들다. 예를 들면, 갈통의 소극적 평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전쟁이 없으면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 평화는 단지 한 전쟁과 다음 전쟁의

Peace Research, No.6 (1969), pp.167-91 참조.

3) Kenneth E. Boulding, "Twelve Friendly Quarrels with Johan Galtung," *Journal of Peace Research*, No.14(1977), pp.75-86 참조.

4) *ibid.*, p.78.

5) Kenneth E. Boulding, *Stable Peace*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78), p.3.

사이기간을 의미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평화는 휴전상태와 다르지 않다. 또한 구조적 폭력과 연관시켜 본다면, 평화는 사회정의가 실현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나아가 세계화를 통해 상호의존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지역평화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예컨대 서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⁶⁾의 주장이 옳다면, 주변 지역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유럽국가들은 과연 그 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자유롭지 못하다면, 평화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며 세계평화가 이룩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의문과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의 인식론적·존재론적 문제에 기인한다. 즉 우리는 평화를 상상할 수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실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의 국제정치학자 첼필(Ernst-Otto Czempiel)은 평화를 개념화하는 것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며, 다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⁷⁾ 결국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국제사회든 국내사회든 간에 어떤 사회체제의 현 상황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접근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⁸⁾ 비록 그 목표의 구

6) ‘민주평화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처음 논문으로는 Michael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eds. by M. E. Brown, S. M. Lynn-Jones, & S. E. Miller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6), pp.3-57 참조; 이 논문은 원래 1983년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12, Nos.3 & 4 (1983)에 기고되었던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7) Ernst-Otto Czempiel, "Der Friede - sein Begriff, seine Strategien," *Beiträge zur Konfliktforschung*, Nr. 4 (1988), p.5.

8) Karlheinz Koppe, "Der unerreichbare Friede: Überlegungen zur Begrifflichkeit

체적 내용은 역사와 함께 항상 발전해나가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의 평화지향적 변화를 위한 비판적 논쟁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다.

2. 이론연구의 흐름

2차세계대전 이후 평화문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어왔다. 첫째, 미국식 사회과학인 국제정치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안보연구이다. 국제정치학은 다양한 지적 전통을 수용했기 때문에 안보연구에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이 존재한다. 둘째, 전쟁으로 얼룩진 근대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태동한 평화연구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국제정치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과학의 일반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유럽의 학문토양 위에서 성장한 평화연구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 학제적 (interdisciplinary) 연구성격을 띤다.

안보연구와 평화연구의 이론적 방향과 접근법은 국제체제의 현실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두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안보연구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이론의 개발에 중점을 둔 데 반해, 평화연구는 가치와 현실비판에 더욱 큰 비중을 둔다. 둘째, 안보연구는 정책개발 및 적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반면, 평화연구는 일반인들에 대한 평화교육적 목적을 강하게 내포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문화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

des Friedens und ihre forschungspolitischen Konsequenzen," *PeaCon - Peace and Conflict Studies* (Jan. 1995), <http://www.uni-muenster.de/PeaCon/arcdoce/texts/koppe3.html>, p.1 참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다. 다만 경험적·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미국식의 안보연구는 가치 중심의 유럽적 평화연구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으며, 후자는 전자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탈냉전시기가 도래하면서 미국적인 국제정치학에 대한 유럽 사회과학자들의 과거와 다른 강력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탄생한 구성주의는 양자간 새로운 접점의 모색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2차대전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평화에 대한 두 방향의 이론적 연구가 각각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에 관해 흐름의 큰 줄기를 요약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 안보연구

1·2차 세계대전의 경험과 더불어 정립된 국제정치학의 대주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였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이 20세기 새로운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17~18세기 유럽의 주요 사상들을 지적 전통으로 수용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현대 국가 및 국제사회의 주요 특징 — 국제적 무정부상태와 주권개념 — 이 17세기 유럽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국제정치학의 성격상 안보연구가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당연했다. 넓게는 국제정치학, 좁게는 안보연구의 지적 전통을 찾아본다면,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⁹⁾

9) Herbert Butterfield & Martin Wight, eds. *Diplomatic Investig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6);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Y.: Columbia Univ. Press, 1977), pp.24-27; Helga Haftendorn, "The Security Puzzle: Theory-Building and Discipline-Building in

첫째, 홉스(Thomas Hobbes)적 전통이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생존을 위해 ‘주권적 권력’을 강화하거나, 또는 전쟁을 통해 적을 자신의 의사에 복종케 함으로써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에서 연원하는 전통이다. 공화국의 헌법, 연방주의적 국가체제, 세계시민으로 특징지어지는 계몽주의적 정치질서를 바탕으로 세계가 하나의 인류공동체를 형성할 때 전쟁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전통이다. 그는 홉스의 주권개념을 인정했지만, 칸트와 같이 국제체제를 국가들간의 사회로 간주하고, 국가들간의 갈등을 공동의 법률과 제도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칸트와의 차이점은 국가들이 서로 공존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 전통 위에서 다양한 국제정치이론들이 경쟁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특성에 따라 특정 지적 전통이 상대적으로 큰 설득력 또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보연구도 그러한 추세에 발맞춰 처음에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1970년대부터는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안보(global security)’의 방향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왔다.¹⁰⁾ 물론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홉스적 전통을 이어받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언제나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칸트와 그로티우스의 전통에서 있는 자유주의, 제도주의, 구성주의의 일부가 안보연구의 변천과정에 미친 영향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5 (1991), p.6 참조.

10) Helga Haftendorn, "The Security Puzzle," p.5 참조.

력은 결코 적지 않다.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현실주의자들이 주도했다. 따라서 전후 국제정치학은 평화에 대한 적극적 추구보다 국가의 생존, 즉 국가안보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전쟁위협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직후 이상주의적 발상에 의해 성립된 국제연맹의 실패,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냉전 등으로 인한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의 득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진다.

1930년대 이상주의자들과의 대논쟁에서 승리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인간의 사악성과 전쟁으로 점철된 유럽근대사의 어두운 면을 상기시키면서 국가간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전쟁의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체제의 구상에 주력했다.¹¹⁾ 이 맥락에서 세력균형과 동맹관계는 현실주의 학자들의 중심 연구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국제적 긴장완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 이전까지 국제정치학에서 군사적 안보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60년을 전후한 시기 안보연구는 미국대학의 국제정치학 교과과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¹²⁾

11) 이와 관련된 현실주의의 주요저술로는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 Company Ltd., 1939); H.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Y.: Alfred A. Knopf, 1948);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Y.: Columbia Univ. Press, 1959); Arnold Wolfers,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2); Raymond Aron,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rans. by R. Howard & A. B. Fox (Garden City, N.Y.: Doubleday, 1966) 등을 참조.

12) Richard Shultz,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Security," *Security Studies for the 1990s*, eds. by R. Shultz, R. Godson & T. Greenwood

1950년대 미·소간 핵균형이 이루어지자 안보연구는 전쟁의 원인과 방지라는 주제를 넘어 전략연구를 새로운 영역으로 받아들였다. 1950년 허츠(John Herz)가 ‘안보딜레마’라는 개념을 제시¹³⁾한 이래 핵억제와 관련한 전략이론이 안보연구의 한 축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전략이론이 득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게임이론의 도입과 행태주의 방법론의 확산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¹⁴⁾ 1957년 케플란(Merton Kaplan)이 게임이론을 국제정치학에 도입한 이래 셸링(Thomas Schelling)은 본격적으로 게임이론을 국제정치학에 접목시킨 전략이론을 발전시켰다.¹⁵⁾ 한편 1960년대 중반 실증주의 내지 과학주의를 표방한 행태주의 연구방법론이 국제정치학의 제2차 대논쟁¹⁶⁾을 통해 전통주의 방법론을 제압하면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전략이론의 전성기가 도래했다. 이후 게임이론과 행태주의는 국제정치학의 주류이론을 지탱하는 중심축으로 발전해왔다.

물론 이 시기에도 칸트나 그로티우스의 지적 전통과 접맥하고 있

(Washington: Brassey's, 1993), p.45.

- 13) ‘안보딜레마’란 부정부적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안보 강화는 다른 국가의 안보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항상 군비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John H. Herz,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No.2 (1950), pp.157-80 참조.
- 14) 호워드(M. Howard)는 2차대전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전략연구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요소로서 군사기술, 방법론 및 접근법, 국제체제의 상태 등을 열거하고 있다. Richard Shultz,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Security," p.52에서 재인용.
- 15) 이와 관련한 대표적 저술로는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Y.: Wiley, 1957);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0) &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6).
- 16) 제2차 대논쟁에 관한 주요 논문들은 Klaus Knorr & J. N. Rosenau, eds. *Contending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69) 참조.

는 이상주의 내지 자유주의 학파가, 비록 소수였지만,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도이취(Karl Deutsch)는 ‘안보공동체’와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론’을 내세워 세력균형을 통한 단순한 전쟁부재보다 국제적 공동체 건설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다.¹⁷⁾ 또한 유럽통합에 주목한 하스(Ernest B. Haas)의 통합이론 역시 국제관계에서 평화적 변화의 조건과 변동에 초점을 맞춘 국가간 협력연구를 통해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도전했다. 하스의 가장 큰 관심은 국제적 공동체의 발전보다는 민족국가의 합리화와 진보에 있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민족국가의 진보는 초민족적(transnational) 공동체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이는 곧 평화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¹⁸⁾

미국의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현실주의 안보연구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전반기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¹⁹⁾와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도전에 직면하여 쇠퇴하고, 그 대신

17) 이와 관련한 주요 저술로는 Karl Deutsch, *Political Community at the International Level* (Garden City, N.Y.: Doubleday and Company, Inc, 1954); Karl Deutsch et als.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ceton Univ. Press, 1957); Karl Deutsch, *The Nerves of Government: Models of Poltical Communication and Control* (N.Y.: Free Press, 1963) 참조.

18) 이와 관련한 대표적 저술로는 Erne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1959) & *Beyond the Natio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1964) & *Nationalism, Liberalism, and Progress: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Press, 1997) 참조

19) 이와 관련한 국제정치 현실변화로는, 첫째,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안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고, 둘째, 미·소 긴장완화로 인해 핵전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감소했으며, 셋째, 독일과 일본의 경제대국화,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 국제석유과동 등으로 전후 국제경제체제에 대한 미국주도권이 상실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다국적 기업과 같은 초민족

국제안보에 대한 관심²⁰⁾이 고조되었다. 당시 현실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자유주의에서 나왔다. 자유주의적 기반에 입각했던 통합이론가들이 1970년대 중반 스스로 연구종료를 선언했지만,²¹⁾ 자유주의자들은 통합이론에서 축적된 연구결과와 국제레짐 개념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협력가능성을 설파하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전개했다.²²⁾ 이론적 관심의 출발(initial conditions)을 국가간 갈등에 두는 현실주의와 달리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들어와 게임이론을 재발견하고 합리적 선택이론 등 미시경제학으로부터 빌어온 개념을 바탕으로 제도주의적 접근법을 개발했다.²³⁾ 신자

적(transnational) 행위자들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손꼽을 수 있다. Joshep S. Nye, Jr & Sean M. Lynn-Jones,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 Report of a Conference on the State of the Field," *International Security*, Vol.12, No.4 (1988), p.10; Peter J. Katzenstein, R. O. Keohane & S. D. Krasn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2, No.4 (1998), pp.655 참조.

- 20) 독일의 여류 국제정치학자 하프텐도른(H. Haftendorn)은 쿠바미사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미·소간 안보협력의 가능성이 국제안보 개념이 탄생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Helga Haftendorn, "The Security Puzzle," p.8 참조.
- 21) 1960년대 중반 드골의 '의식 비우기'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유럽경제공동체의 발전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을 계기로 통합이론의 가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이론자체에 대한 관심도 점차 감소되기 시작한 이래, 1975년 하스(E. Haas)는 통합이론의 쇠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Ernst B. Haas, *The Obsolescence of Regional Integration Theory* (Berkeley: Univ. of Berkeley, 1975) 참조.
- 22)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표적 초기저술로는 R. O. Keohane & J. S. Nye, "Transnational Relations and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5 (1971), pp.329-52 &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 Brown, 1977); 신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무정부적 국제사회의 성격에 대한 대표적 저술로는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Y.: Columbia Univ. Press, 1977) 참조.
- 23) 신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태동배경에 대해서는 Peter J.

유주의의 중심논지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제도의 정착을 통해 국제협력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의 주 관심은 국제정치경제 분야지만, 국제협력의 이론화를 통해 국가(특히 미국) 중심의 안보연구 대신에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국제안보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이론적 경쟁을 벌였던 현실주의와 함께 반복게임이론을 바탕으로 ‘안보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안보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어놓기 시작했다.²⁵⁾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로만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국제관계의 현상을 국내구조와 연계시켜 설명하고자 했다. 1960년을 전후한 시기 왈츠(K. N. Waltz)와 싱어(D. J. Singer)의 분석수준에 대한 논의는 당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범위를 국제체제 수준에 제한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²⁶⁾ 그러나 외교

Katzenstein, R. O. Keohane & S. D. Krasn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pp.655-63 참조.

- 24)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한 주요저술로는 R.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Boulder: Westview Press, 1989);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Y.: Basic, 1984); R. Axelrod & R.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World Politics*, Vol.38 (Oct. 1985), pp.226-54; Arthur Stein,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Regimes in an Anarchic World," *International Regimes*, ed. by Stephen D. Krasner (Ithaca: Cornell Univ. Univ. Press, 1983), pp.115-40; Charles Lips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ed. by D. A. Baldwin (N.Y.: Columbia Univ. Press, 1993), pp.60-84 등 참고.
- 25) 대표적 저술로서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6) 참조.
- 26) 왈츠는 1959년 『인간, 국가, 그리고 전쟁』이라는 저술에서 개인, 국내정

정책의 예에서 보듯이 국제체제에 미치는 국내구조의 영향과 그 반대방향의 영향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양 수준의 연계없이 국제정치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국가론자(statist)²⁷⁾나 구조주의적 맑시스트²⁸⁾ 등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보다 결정적으로는 ‘심리 내지 인지론적 접근’, ‘관료정치 모델’, 그리고 ‘연계이론’이 대두²⁹⁾하면서 현실주의의 가정들 — 특히 국가중심주의와 국가의 생존목표 — 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주의자인 도일(M. W. Doyle)은 1980년대 초반 칸트의 지적 전통에 근거하여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국가들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을 제기했다.³⁰⁾ ‘민주

치, 그리고 국제체제라는 세가지 분석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싱어는 단위(unit)와 체제(system) 수준으로 이원화했다. 양자는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국제체제수준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K.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J. David Singer, "The Level-of-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nternational System: Theoretical Essays*, eds. by K. Knorr & S. Verba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1) 참조.

27) 양 분석수준간의 연계문제는 1960년대 중반 국가론자로 통칭되는 비교정치학자들, 즉 무어(Barrington Moore), 벤딕스(Reinhard Bendix), 톨리(Charles Tilly), 그리고 1970년대 후반 스카치폴(Theoda Skocpol)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다. Peter J. Katzenstein, R. O. Keohane & S. D. Krasn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p.653 & 667.

28) 구조주의적 맑시스트 이론으로는 1970년대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ibid*, pp.664-66.

29) Alexander L. George, "The 'Operational Code': A Neglected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Leaders and Decision-Mak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13, No.2 (1969), pp.190-222; Graham T. Allison,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 Brown, 1971); James N. Rosenau, ed. *Linkage Politics* (N.Y.: Free Press, 1969) 참조.

30) M.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PSR*, Vol.80, No.4 (1986),

평화론'은 특히 탈냉전시기에 접어들어 안보 및 평화연구의 주요 논의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소위 '개입주의 대외정책(engagement policy)'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끼쳤다.

초민족적 국제관계의 대두와 신자유주의의 도전에 대해 현실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패권안정이론'을 내세워 국가행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레짐의 현실주의적 해석을 내어놓았으며,³¹⁾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방법의 기반 위에 전통적 현실주의의 가정을 접목시킨 신현실주의를 탄생시켰다.³²⁾ 신현실주의의 안보연구는 국가들의 실제 안보행위를 규범적으로 설명하는 전통적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을 벗어버렸다. 그 대신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엄격성과 간결성을 내세운 연역적 방법론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어떠한 국가의 안보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체계이론을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현실주의는 이론적 변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말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다시 이론적 주도권을 확보했으며, 1980년대 국제안보 연구의 주류로서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신현실주의는 1980년대에 들어와 크게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세계체제론과의 제3차 대논쟁,³³⁾ 작게는 신자유주의적 제도

pp.1151-69.

31)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Y.: Basic, 1975) &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1) 참조.

32) 신현실주의는 K.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에서 출발한다.

33) 제3차 대논쟁에 대해서는 Michael Banks, "The Inter-Paradigm Debate," *International Relations: A Handbook of Current Theory*, eds. by Margot Light & A.J.R Groom(London: Printer, 1985), pp.12-13 참조; 1980년대 말에 들어와 제3의 대논쟁에는 세계체제론의 자리를 구성주의가 대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Yosef Lapid, "The Third Debate: On the

주의와의 소논쟁³⁴⁾을 거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소논쟁을 통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차이점이 부각되기도 했으나, 국제사회의 기본성격과 국제안보협력문제는 물론이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양 이론은 서로 일치점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신현실주의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은 사회과학적 기초이론으로 무장한 일군의 유럽계 국제정치학자들, 그리고 비판사회이론과 포스트모던 이론 등 사회학 이론에서 영감을 얻은 제도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³⁵⁾ 이들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가 미시경제학적 목적합리성만을 추구하며, 또한 이론적 가정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현실세계를 제대로 그려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³⁶⁾

Prospects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3 (Sept.1989), pp.235-54; K.J. Holsti, "Mirror, Mirror on the Wall, Which Are the Fairest Theories of Al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3 (Sept.1989), pp.255-62; Thomas J. Biersteker, "Critical Reflections on Post-Posi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3 (Sept.1989), pp.263-68; Jim Georg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Search for Thinking Space: Another View of the Third Debat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3 (Sept.1989), pp.269-80 참조.

34) 이와 관련한 대표적 저술로는 R.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N.Y.: Columbia Univ. Press, 1983); J.S. Nye,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World Politics*, Vol.40 (1988), pp.235-51; Robert Powell, "An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neorealist-neoliberal deb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8, no.2 (Spring 1994), pp.313-44; David A.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Y.: Columbia Univ. Press, 1993) 참조.

35) 자세한 배경은 Steve Smith, "New Approaches to International Theory,"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eds. by John Baylis & S. Smith (Oxford: Oxford Univ. Press, 1997), pp.165-90 참조.

36) 이와 관련한 에쉬리의 이론적 비판은 압권이다. 그는 신현실주의와 신

1992년 웬트(Alexander Wendt)의 논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성주의자(constructivist)³⁷⁾라고 명명되기 시작한 이들 비판자들은 현실세계가 행위자들의 상호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정체성, 문화, 규범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미국식 사회과학인 국제정치학의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적 기반부터 비판하면서 성장한 구성주의는 탈냉전적 국제질서의 형성과 더불어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³⁸⁾ 그러나 구성주의는 너무나 다양한 지적 전통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기 힘들다.³⁹⁾ 크게 보

자유주의를 통털어 신희용주의(Neo-Utilitarianism)라고 비판한다. Richard K. Ashley, "The Poverty of Neorealism," *Neorealism and Its Critics*, pp.255-300; 제도주의자들 중에서 문제의식을 처음으로 제기한 논문으로는 Friedrich Kratochwil & John G. Ruggi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state of the art on art of the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0, No.4 (1986), pp.753-75.

- 37) 웬트는 오너프(Nicholas Onuf)로부터 '구성주의'라는 개념을 차용했다.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2 (Spring 1992), p.393.
- 38)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국제정치이론을 새롭게 체계화한 저술로는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그리고 구성주의에 대한 연구자들의 손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저술로는 Vedulka Kubalkova, Nicholas Onuf & Paul Kowert,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Armonk, N.Y.: M.E.Sharpe, 1998) 참조.
- 39) 구성주의에 대한 분류는 매우 다양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teve Smith, "New Approaches to International Theory," pp.172-87 & "The Self-Images of a Discipline: A Genea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eds. by Ken Booth and Steve Smith (Osford: Polity Press, 1995), pp.24-30;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3, No.3 (1997), pp.335-36; P.J Katzenstein, R.O. Keohane, & S.D. Krasn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면, 실증주의를 확대·수용하는 학파와 반실증주의적 학파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학자들은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의 절충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재래적(또는 현대적) 구성주의자’라고 불린다. 구성주의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재까지의 안보연구는 주로 재래적 구성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⁴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이론도 예상하지 못했던 공산권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시대의 개막과 세계화의 급격한 확산은 국제안보 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안보개념의 변화를 강요했다. 즉, 군사안보이외에 경제, 사회, 문화의 범위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모든 수준 — 국제적, 국내적, 또는 초민족적 수준 — 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내지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지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를 목표로 국제안보 연구는 바야흐로 세계안보 연구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⁴¹⁾ 그러나 탈냉전시기에 접어들어 지역분쟁과 비국가행위자들의 폭력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안보 연구는 지역

pp.675-78; J. Gerald Ruggie, "What Makes the World Hang Together? Neo-Utilitarianism and the Social Constructivist Challe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2, No.4 (1998), pp.880-82; Ted Hopf,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23, no.1 (1998), pp.182-85 참조.

40) 최근에는 재래적 구성주의를 일반적으로 구성주의라고 부르며, 반실증주의적 성향의 급진적 구성주의에 속하는 이론들에 대해서는 원래의 이론전통에 따라 비판국제정치이론, 포스트모던 국제정치이론, 페미니즘 국제정치이론 등으로 부르는 경향을 보인다.

41) Gareth Evans, *Cooperating for Peace: The Global Agenda for the 1990s and Beyond* (Maryborough, Australia: Allen & Unwin Pty Ltd, 1993), pp.15-16; Helga Haftendorn, "The Security Puzzle," p.5.

적 차이, 지배적 사고의 변화, 체제변화 등의 다양성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어떠한 단일이슈나 분석수준에만 머물지 않는 다차원성을 띠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⁴²⁾

각 학파의 이론가들은 탈냉전시대의 현실에 대해 나름대로 지적 대응을 하고 있다. 신현실주의자들은 예측은 커녕 징후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대해 가장 당혹했지만, 탈냉전 초기에는 자신들의 이론적 가정에 입각하여 지역분쟁의 발생과 국제적 양극군형체제의 붕괴라는 현실이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예언했다.⁴³⁾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으로는 신현실주의가 국제안보문제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가장 적절한 이론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⁴⁴⁾ 다른 한편으로는 탈냉전적 상황에 대해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가정을 재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42) Helga Haftendorn, *ibid*, p.12.

43) 이에 관해서는 Stephen M. Walt, "Alliances in Theory and Practise: What Lies Ahead?"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43, No.1 (1989), pp.1-17; John J.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15, No.1 (1990), pp.5-56;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The Atlantic*, Vol.266, No.2 (1990), pp.35-50; Kenneth N.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18, No.2 (1993), pp.44-79 참조.

44) 머시하이머는 경쟁하는 이론들, 즉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구성주의 등 국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신현실주의의 가정이 옳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이론들간에 한차례 논쟁이 전개되었다. John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3 (1994/5), pp.5-49

45) Michael E. Brown, S.M. Lynn-Jones, & S. E. Miller, *The Perils of Anarchy: Contemporary Realism and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5); John A. Vasquez, "The Realist Paradigm and Degenerative versus Progressive Research Programs: An Appraisal of Neotraditional Research on Waltz's

이미 1980년대에 보이기 시작했던 분과활동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심지어 일부 신현실주의자들은 새로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수준의 준수라는 금기를 깨고 국내수준에서 변수를 찾는 등 이론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⁴⁶⁾

신현실주의에 비해 자유주의자들의 충격은 훨씬 적었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경우, 이론적 관심이 국제협력의 제도화에 있기 때문에 협력이 강조되는 탈냉전시기에 더욱 이론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제도에 초점을 두지만 국내정치적 변수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⁴⁷⁾ 또 문화가 강조되는 새로운 시대적 추세에 맞춰 합리적 선택과정에서 배제되었던 가치와 신념의 문제도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등 이론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통적 자유주의의 맥락에 서 있는 일군의 학자들은 비이데올로기적·비공상적인 과학적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을 표방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국제관계와의 상관성을 갖는 국내구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큰 비중을 두는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⁴⁸⁾ 이

Balancing Proposition," *APSR*, Vol.91, No.4 (1997), pp.899-912; 이 논문 이외에도 *APSR*의 동 호에는 신현실주의자들내 자신들의 이론적 가정들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하는 논의가 실려있다.

4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effrey W. Legro and Andrew Moravcsik, "Is Anybody Still a Realist?"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2 (1999), pp.5-55; Stephen G. Brooks, "Dueling 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1, No.3 (1997), pp.445-77 참조.

47) 이와 관련한 최근 저술로는 Helen V. Milner, ed., *Interests, Institutions and Information: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7) 참조.

48) 이와 관련, 대표적 학자는 모라브치(A. Moravcsik)이며, 제도주의자와 구별하여 자신들을 구조적 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Andrew Moravcsik, *Liber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Harvard Univ.) Working Paper Series No.92-6 (1992); Andrew Moravcsik, "Federalism and Peace: A Structural

가운데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민주평화론’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한편, 최근에는 일부 신자유주의자들과 신현실주의자들은 서로 공유했던 합리적 선택이론을 발전시킨 ‘전략적 선택 접근법’을 제시하고, 구성주의와 인식론자들에 대항하여 국제관계의 다차원 및 다수준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⁴⁹⁾

구성주의의 경우, 이론(또는 접근법)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주로 메타이론(이론에 관한 이론) 차원에서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의 논쟁에 주력했기 때문에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비교하여 아직 풍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구성주의의 개념들 자체가 조작되거나 경험적으로 검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증주의적 이론화가 쉽지 않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적 구성주의자들은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안보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첫째, 주권과 무정부상태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가운데 지식과 문화의 진보를 바탕으로 행위자들의 정체성 변화와 국제사회의 제도적 재구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평화적인 국제(내지 세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⁵⁰⁾

Liberal Perspective,"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Beziehungen*, 3.Jg. Nr.1 (1996), pp.123-32; Andrew Moravcsik,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1, No.4 (1997), pp.515-53 참조.

49) 이에 대해서는 David A. Lake & R. Powell, eds.,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9); Robert Axelrod, *The Complexity of Cooperation: Agent-Based Models of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50) 이와 관련, Thomas Risse-Kappen, *Cooperation among Democracies: The European Influence on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5); 그리고 *Security Studies*, Vol.8, Nos.2/3 (1998/1999)에 수록된 다음 논문들 참조. Rodney Bruce Hall, "Territorial and National Sovereigns: Sovereign Identity and

이와 관련, 구성주의자들은 안보개념의 확대는 물론, 과거 도이취나 하스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평화의 조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평화론'에서 제기되는 핵심논점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자유주의자들의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⁵¹⁾ 둘째,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같은 합리주의 이론의 논의를 보완하는 것이다. 사실 합리주의자들은 합리적 선택의 기준이 되는 행위자들의 선호(preferences)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단지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전략선택만을 이론화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성주의자들은 국가안보환경의 핵심이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 문화적·제도적인 것이란 점, 그리고 문화적 환경은 다양한 국가행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⁵²⁾

이상에서 보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보연구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론의 발전에 따라 국가안보, 국제안보, 세계안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쳐왔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서

Consequences for Security Policy," pp.145-97; Frank Schimmelfennig, "NATO Enlargement: A Constructivist Explanation," pp.198-234; Mary N. Hampton, "NATO,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reating Positive Identity in Trans-Atlantia," pp.235-69.

51) Ken Booth, "Security and Emancip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7, No.4 (1991), pp.313-26; Emanuel Adler, "Condition(s) of Pea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4, Special Issue (Dec. 1998), pp.165-91; Colin H. Kahl, "Constructing a Separate Peace: Constructivism, Collective Liberal Identity, and Democratic Peace," *Security Studies*, Vol.8, Nos.2/3 (1998/1999), pp.94-144.

52) 이에 대해서는 Jeffrey W. Legro, "Culture and Preferences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wo-Step," *APSR*, Vol.90, No.1 (1996), pp.118-37;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Y.: Columbia Univ. Press, 1996) 참조.

로 경쟁하는 이론들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평화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현실세계에서는 전쟁의 방지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세력균형적 국제체제, 민주적 국내구조, 그리고 국제적 협력의 발전 등이 모두 필요한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각 이론들의 가정과 분석들을 바탕으로 평화문제에 대한 각각의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평화연구

현대적 의미에서 ‘평화연구’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물론 넓은 의미의 평화연구는 근대의 개막이래 나온 여러가지 평화사상을 비롯하여 앞에서 살펴본 안보연구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말하는 평화연구는 국가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회적 갈등을 그 뿌리부터 비판적 시각으로 탐구하며,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실천을 중요시하는 학술작업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평화연구는 1960년대부터 중반 유럽을 중심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⁵³⁾

2차대전 이후 제기된 평화에 관한 정치학 내지 사회과학적 문제의식들은 애초 자연과학자들에 의해 선도되었다.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위력이 초래할 평화위협에 직면하여,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일부 과학자들을 포함한 의식있는 자연과학자들의 문제제기는 정치학 및 사회과학자의 관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현실

53) 쟁하스(Dieter Senghaas)는 이를 ‘비판적 평화연구’라고 지칭한다. Dieter Senghaas, hrsg. *Kritische Friedensforschung* (Frankfurt a.M.: Suhrkamp, 1981); 이삼열, “비판적 평화연구란 무엇인가,” 이호재 편, 『한반도평화론』 (서울: 법문사, 1989), p.140; Verein für Friedenspädagogik, “20 Jahre Friedensforschung - 20 Jahre Friedenserziehung,” http://www.friedenspaedagogik.de/frieden/f_erzieh/gesp1.htm 참조.

주의를 신봉하는 당시 미국의 주류 사회과학자 및 국제정치학자들은 미·소의 핵대결 상황에서 평화문제를 ‘힘에 의한 평화’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핵물리학자, 핵전략가, 그리고 모의전쟁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략이론의 개발에 주력했다. 평화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화 작업을 처음으로 시도한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1957년 미시간 대학의 「갈등문제연구소」에 의해 창간)도 결국은 전략연구가들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했다.⁵⁴⁾

이러한 미국의 전략중심적 평화연구를 회의적·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서유럽국가들의 평화연구자들은 1950년대 말부터 지역적으로 소규모 단체를 결성하여 평화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 중반의 시기동안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 네델란드 그로닝겐 대학의 「전쟁학 연구소」, 「캐나다 평화 연구소」, 스톡홀름 「국제 평화 및 갈등연구소(SIPRI)」 등이 설립되면서 대안적 평화연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⁵⁵⁾ 나아가 곳곳에서 개별적 내지 소규모 단체로 활동하던 평화연구자들은 1965년 네델란드에서 「국제평화연구협회(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를 출범시킴으로써 평화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시작된 미·소 긴장완화와 서구사회의 베트남 전쟁반대 여론은 비판적 평화연구의 급속한 성장에 밑거름 역할을 했다. 평화문제에 대한 서구시민사회의 관심이 서서히 고조되고 평화를 내세운 사회운동, 즉 평화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평화연구자들은 평화에 대

54) H.J. Krysmanski, *Soziologie und Frieden: Grundsätzliche Einführung in ein aktuelles Thema*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3), <http://www.uni-muenster.de/PeaCon/arcdoce/texts/ww052.html> 참조.

55) *ibid*, <http://www.uni-muenster.de/PeaCon/arcdoce/texts/ww054.html>

한 과학적 이론 정립에 힘썼다. 이러한 맥락에서 갈통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 그리고 ‘구조적 폭력’ 개념이 등장했다.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은 평화문제에 접근하는 첫 출발점을 모든 종류의 갈등과 폭력에서 찾기 시작했다. 즉, 국가간의 갈등 및 전쟁뿐만 아니라 한 국가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하고 있는 또는 구조화된 갈등과 폭력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평화연구는 매우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학제적 연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평화연구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평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당시 핵무기 감축협상, 유럽안보 및 협력회의(CSCE) 형성 등으로 동·서 긴장완화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또 서구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탈물질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구의 평화운동은 사회적 기반을 확충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초민족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1980년을 전후한 신냉전 시기동안 안보전략연구의 재발흥으로 평화연구가 잠시 위축되기도 했지만, 1980년대 중반이후 소련의 개혁정치로부터 탈냉전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평화연구는 사회과학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 관심의 초점을 모으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동안 비판적 평화연구를 이단시하던 각 학문분야의 주류 학자들도 평화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유럽의 대학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대학들에서 ‘평화와 갈등’에 관한 연구소 설립과 강의가 앞다투어 개설되는 데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⁵⁶⁾

56)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영국 Bradford 대학의 평화연구와 교육은 선두적·모범적 사례로 손꼽힌다. *ibid.*; Paul Rogers, "The Evolution of An Interdisciplinary Peace Studies Centre: The Bradford Experience," *Peace and Conflict Studies*, Vol.2, No.1 (1995), pp.43-46.

1970~80년대 평화연구는 국제평화운동의 확산과 함께 더 이상 지역 내지 연구소 중심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었으며, 탈냉전시기에 들어와서는 학제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즉 학문분야간 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소위 '초학문적 응집(transdisziplinäre Verdichtung)'을 통한 '평화학(peace science; Friedenswissenschaft)'의 정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⁵⁷⁾

이상에서 보듯이 비판적 평화연구는 그 성격과 발전과정의 측면에서 평화운동 내지 평화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어렵다.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또 평화문제에 대한 접근방법들도 매우 다양하다. 더욱이 평화운동적 성격, 즉 가치 내지 윤리의 문제가 항상 수반하기 때문에 평화이론과 평화윤리의 분리가 쉽지 않다.⁵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이론 — 즉 갈등분석과 갈등에 대한 개인 및 집단들의 행위 결정요소 및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 — 의 정립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학자인 갈통과 쟁하스(D. Senghaas)의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해볼 것이다.

57) Karlheinz Koppe, "Der unerreichbare Friede: Überlegungen zur Begrifflichkeit des Friedens und ihre forschungspolitischen Konsequenzen," *PeaCon - Peace and Conflict Studies*, (Jan. 1995), <http://www.ubi-muenster.de/PeaCon/arcdoce/texts/koppe3.html>

58) Lothar Brock, "'Frieden'. Überlegungen zur Theoriebildung," *Theorien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hrsg. von Volker Rittberger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0), p.79 참조.

(1) 갈통의 평화이론

갈통은 1960년대 말 폭력과 평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⁵⁹⁾한 이래 일반적 평화이론의 정립을 목표로 그 개념들의 확충과 방법론의 세련화를 거듭해왔다. 그에 따르면, 평화연구란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폭력을 감소시키는 작업, 즉 평화작업의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다.⁶⁰⁾ 이를 위해 평화연구자는 마치 의사와 같이 진단, 예측, 치료법이라는 세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⁶¹⁾ 이러한 접근태도 하에 그는 항상 갈등 및 폭력과 평화를 대립쌍 — “직접적 폭력 : 직접적 평화”, “구조적 폭력 : 구조적 평화” 등 — 으로 놓고 있으며, 그의 평화이론 역시 “일반갈등이론 : 일반평화이론”, “갈등 형성(formation) : 갈등 전환(transformation)”, “인식론 : 방법론”의 관계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⁶²⁾

최근에 나온 그의 저술에 의하면, 평화연구의 대상영역은 크게 자연, 인간, 사회, 세계, 문화, 시간의 여섯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⁶³⁾ 그리고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내지 폭력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① ‘자연적 폭력’으로서 인간육체를 포함하여 자연에서 발생하며 고의성이 없는 것, ② ‘직접적 폭력’으로서 인간, 사회, 세계의 공간에

59)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pp.16-91.

60)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p.9.

61) *ibid*, p.1.

62) *ibid*, p.35 참조.

63) *ibid*, p.30; Johan Galtung, "Peace Theory: An Introduction," *World Encyclopedia of Peace*, Vol. IV, 2nd Edition, eds. by Young Seek Choue (Seoul: Seoul Press, 1999), p.278; 문화적 폭력에 대해서는 Johan Galtung,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27, No.3(1990), pp.291-305 참조.

서 발생하며 개별 행위 또는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구조적 내지 간접적 폭력’으로서 역시 인간, 사회, 세계의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각 공간에 구조화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직접적 의도가 개입되지는 않는 것, ④ ‘문화적 폭력’으로서 직접적 및 구조적 폭력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⑤ ‘시간적 폭력’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약화 내지 봉쇄하여 미래 세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⁶⁴⁾

이들 가운데 갈통의 집중적 연구대상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이다. 그는 폭력이 권력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내세워 권력의 형태를 문화, 경제, 군사, 정치 분야로 나누고 각 권력분야별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 내지 정책목표들을 제시한다.⁶⁵⁾ 이 맥락에서 그는 군사권력에만 의존하는 현실주의 가정, 정치구조에 대한 자유주의 신념, 그리고 정의로운 경제구조에 대한 맑스주의 신념, 문화를 강조하는 문화주의자의 주장이 각각 평화작업의 조건들을 탐구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를 포괄하는 절충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그의 절충적 접근방법은 병렬적이지 않으며, 문화에서 출발하여 정치와 경제를 거쳐 군사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인과적 흐름을 가진다.⁶⁶⁾

이를 토대로 갈통은 기존의 평화관련 연구들을 포괄하는 이론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기존의 연구들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⁶⁷⁾ ① ‘경험적 평화연구’: 안보전략연구에서 보듯이 주로 과거의

64) *ibid*,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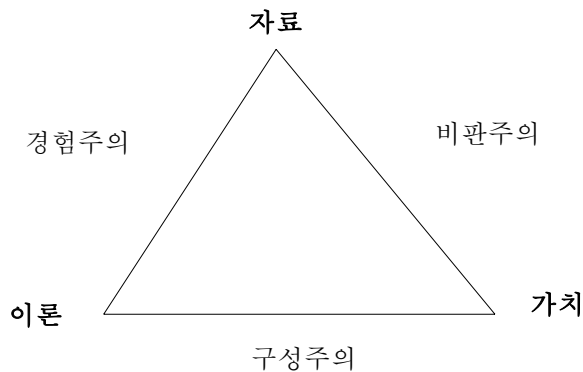
65) *ibid*, pp.3-8 참조.

66) *ibid*, p.2.

67) *ibid*, pp.10-11.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는 자료 중심적인 경향이며, 여기서는 자료가 이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② ‘비판적 평화연구’: 통상적 평화연구에서 보듯이 자료보다 가치에 비중을 두며, 가치를 기준으로 현실문제를 따진다. ③ ‘구성주의적 평화연구’: 경험주의와 비판주의의 절충적 입장에서 가치를 함유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서 이론을 가치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현실의 비전(vision)을 창출하려는 차원에서 이론보다 가치의 비중을 높게 본다. 갈통은 이상의 세가지 접근방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접근방법의 핵심요소, 즉 ‘자료’, ‘이론’, ‘가치’를 서로 연관시킴으로써 이론적 기반을 확립한다. 여기서 ‘자료’는 세계를 관찰된 것과 관찰되지 않은 것, ‘이론’은 예측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 ‘가치’는 바람직한 것과 거부될 것을 각각 나누는 기준이 된다.⁶⁸⁾

<그림 II-1> 자료-이론-가치의 삼각관계



출처: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11.

68) *ibid*, p.11.

갈통은 서로 갈등을 빚어온 경험주의와 비판주의 논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구성주의를 첨가하여 <그림 II-1>의 도식과 같은 평화이론 개발의 기본틀을 제시한다. 경험주의는 이론의 적용을 통해 관찰된 것은 예측될 수 있고 관찰되지 않은 것은 예측될 수 없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궁극적 대답을 생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갈통은 현실이란 것이 반드시 '경험적 현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잠재적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⁶⁹⁾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현실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는 최종의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비판주의는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 경험적 자료만을 인정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그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론적 예측을 시도하는 구성주의의 논리를 도입한다. 구성주의의 최대 강점은 진단과 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험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치료법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사에서 관찰된 것이 예측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것이고 관찰되지 않은 것은 예측되지도 않고 거부되어야 할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것이 현재 관찰되지는 못했지만, 진화의 과정을 통해 예측될 수 있다는 점 — 언젠가는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 — 이 차선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⁷⁰⁾ 이 맥락에서 갈통은 경험주의와 비판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구성주의 논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69) *ibid.*, p.12.

70) *ibid.*, p.12.

(2) 쟁하스의 평화이론

쟁하스는 1960년대부터 평화연구에 매진해온 독일의 대표적 학자이다. 그는 냉전시기 안보적 위기관리의 수단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평화연구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국제정치 및 안보전략적 갈등분석과 연구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의심하며, 나아가 이러한 연구가 지향하는 단순한 갈등의 완화 내지 순화는 현상유지에 기여할 뿐이며 실질적 평화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평화연구는 분쟁과 갈등을 낳는 위협체계 자체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하며, 위협체계를 불가항력적이라고 전제하고 갈등과 분쟁이 폭력으로 비화하지 않게 방지하는 연구는 소극적이며 부족하다는 것이다.⁷¹⁾ 이 점에서 그는 갈통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평화연구의 과제 내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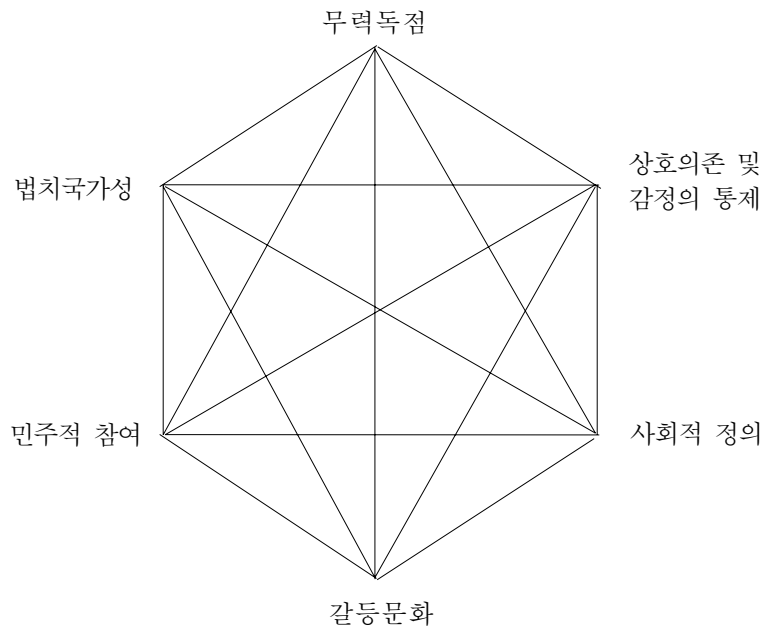
탈냉전시기에 접어들어 쟁하스는 자신의 평화연구를 집대성하는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평화를 ‘문명화 기획(Zivilisierungsprojekt)’으로 간주한다.⁷²⁾ 즉 현대국제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다양화에 주목하면, 성공적인 문명화와 평화는 상황여건상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문명화란 “정치화될 수 있고 정치화된 사회 내에서 공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그의 일차적 관심은 현대적 의미에서 정치화된 사회의 ‘내적 평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들에서 문명화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국제정치 차원의 문명

71) 이삼열, “비판적 평화연구란 무엇인가,” p.147에서 재인용.

72) Dieter Senghaas, "Frieden als Zivilisierungsprojekt," *Den Frieden denken*, hrsg. von D. Senghaas (Frankfurt a.M.: Suhrkamp, 1995), p.197.

화는 몇몇의 단면에서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는 방법론적으로 국가차원과 국제차원을 분리하고, 우선 국가차원에서 사회의 '내적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조건을 '문명화 육각모델(Hexangon)'을 통해 제시한다.

<그림 II-2> 문명화 육각모델



출처: Dieter Senghaas, "Frieden als Zivilisierungsprojekt," p.203.

<그림 II-2>에서 보듯이 쟁하스는 문명화를 위한 기본요소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⁷³⁾ ① 무력독점: 무력을 탈사유화하여 정당성을 가진 국가가 무력을 독점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레바논

73) *ibid.*, pp.198-202 참조.

이나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정치적 갈등이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② 법치국가성: 국가의 무력독점은 법치국가적 원칙과 공공의 민주적 통제라는 제도화의 기반 위에 이루어짐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갈등은 그러한 제도적 틀 속에서 공정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③ 상호의존 및 감정의 통제: 국가의 무력독점과 제도화된 갈등 해소의 사회화 과정은 감정의 자기통제를 통해서 가능하며, 자기통제는 사회적 복합상호의존 속에서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기통제는 단지 폭력이나 공격성을 무력화시키는 기반일 뿐만 아니라 양보와 타협의 능력을 제고한다.

④ 민주적 참여: 사회적으로 매우 유동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성, 인종, 계급을 비롯한 다양한 특징들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계층구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잠재력을 가진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이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⑤ 사회적 정의: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부각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기회와 배분의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는 물질적인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⑥ 갈등문화: 발언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한 이익의 조화 문제는 정치 및 사회문화적으로 내면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심정적 문제가 제도적 구조와 결속될 수 있기 위해서 물질적 측면의 사회정의는 필수적이다. 그러할 때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이 가능하다.

쟁하스는 이들 여섯 기본요소들의 개별적 의미보다 서로간의 긴밀한 구성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무력독점 없이 법치국가성이나 비폭력적인 민주적 참여는 생각할 수 없고, 분배의 정의 없이 법치국가에 대한 보장이나 무력독점, 그리고 갈등문화의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것 등등이다. 문제는 육각모델이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이상형

(Idealtypus)으로서 그 구성관계가 현실적으로 형성 내지 유지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쟁하스는 문명화 기획이 아무리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퇴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섯 분야 각각에서 지속적인 발전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⁷⁴⁾ 나아가 그는 육각모델이 유럽적 토양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역사적·문화적 차이를 감안할 때, 유럽역사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개발도상국에 대해 창조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⁷⁵⁾

이러한 국가차원의 내적 평화가 국제적 차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쟁하스는 먼저 ‘세계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만약 세계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면, 육각모델은 국제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만간 세계시민사회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OECD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국가들은 비교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전 인류의 80%를 차지하는 나머지 국가들을 감안하면, 세계시민사회의 형성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하에서 그는 안보딜레마와 상호의존의 증대라는 국제사회의 두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육각모델의 최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국제적 과제를 네가지로 요약한다.⁷⁶⁾

① 폭력으로부터 보호: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에 기인하는 안보딜레마를 극복 내지 완화하기 위해 양자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협

74) *ibid.*, p.205.

75) *ibid.*, p.208.

76) *ibid.*, pp.214-20.

력 및 집단안보'가 실현되어야 한다. '다원적 안보공동체'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그러한 안보협력을 통해 일종의 무력독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심적 가치들에 대한 동의, 경제·사회·제도적으로 긴밀한 상호의존, 공동의 문제해결 능력, 행위동기의 투명성, 그리고 투명성에서 도출되는 신뢰와 예측가능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② 자유의 보호: 안보공동체가 형성·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국가사회가 법치 내지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각 국가가 인권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노력을 촉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③ 결핍으로부터 보호: 인권 문제는 자유나 기본권의 차원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권리, 즉 생존권도 포함한다. 이는 국가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도 중요한 평화조건이다. 문제는 국제경제체제가 불균형한 상호의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의 결핍극복을 방해하는 소위 '발전딜레마'가 발생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법은 국제시장에서 '대체 분업'이 필요하다. 즉 국제교역에서 농산물은 농산물끼리, 소비재는 소비재끼리, 기술은 기술끼리 교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간 경제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배의 정의 실현문제를 넘어 세계환경의 위기에 봉착하게됨으로써 결국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이다.

④ 소비니즘으로부터의 보호: 개발도상국의 발전노력은 비단 경제적으로 응집력있는 구조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도 정치적 자결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만약 불균형한 상호의존 내지 종속이 심화되면, 외세에 대한 반감 내지 내적 동화작용의 압력이 고조됨으로써 적대적 감정 및 소비니즘의 온상이 된다. 이는 비단 개발도

상국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기보다 현재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권, 정의, 안보공동체 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 및 확대가 절실하다.

쟁하스는 이러한 네가지 과제가 점진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면, 세계시민사회의 형성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국제정치의 문명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평화가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결코 완결될 수 없는 문명화 기획이라는 과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 내지 적응능력의 배양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이 맥락에서 육각모델이나 국제적 과제의 실천을 통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적 변화는 세계시민사회의 실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⁷⁷⁾

이상에서 보듯이 비판적 평화연구는 매우 원대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문제는 평화실현을 위해 현재의 국내 및 국제적 정치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는 곧 ‘평화적 혁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화연구들이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평화연구가 사회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평화연구의 업적들, 예컨대 갈등의 근본적 원인 규명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더구나 현실정치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고 보면, 평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구가 확산되는 현실과 더불어 평화연구의 성과들은 점차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갈 것이며, 현실적용 가능성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77) *ibid.*, pp.222-23.

III. 주요 국제정치이론의 핵심가정과 평화의 조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탈냉전시기 서로 경쟁하는 국제정치이론들의 중심적 패러다임 내지 이론군(群)이다. 이들을 패러다임 내지 이론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이론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이론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세계관 내지 기본가정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패러다임 또는 이론군 속에 포함될 수 있다. 동일한 연구프로그램 내에서 반증과 검증을 통한 논의의 풍요로움이 이론적 성장을 촉진한다고 생각하는 실증주의자들⁷⁸⁾에게 이론적 다양성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각 패러다임의 세계관과 기본가정들을 요약하고, 각 패러다임의 대표적 이론들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에 대한 각각의 접근방법과 논의를 분석·정리할 것이다.

78)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연구방법론을 ‘세련된 방법론적 반증주의(sophisticated methodological falsificationism)’와 연구프로그램(research programm)을 내세우는 라카토스(Imre Lakatos)의 과학이론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이론적 이변(anomaly)이 발생했을 경우, 그는 핵심가정을 침해하지 않고 또 새로운 사실을 생산하는 범위 내에서 이론의 보조적(auxiliary) 가정이 첨가 및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장을 위한 이론적 다양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Imre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eds. by I. Lakatos & Alan Musgrave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70), pp.116f & 133-37; 신중섭,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1992), pp.107-112 참조.

1. 현실주의

현실주의는 국제정치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그 위세는 지속되고 있다.⁷⁹⁾ 물론 현실주의 패러다임 내에도 여러 가지 분과가 있지만,⁸⁰⁾ 일반적으로 카(E. H. Carr)와 모겐소(Hans J. Morgenthau)로 대표되는 전통적(또는 고전적) 현실주의와 왈츠이후의 신현실주의(또는 구조적 현실주의)로 크게 구분된다. 전통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는 이론구성이나 방법론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분석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인간의 권력추구라는 본성에서 출발하여 국가수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현실주의와 달리 신현실주의는 과학적인 체계이론(systemic theory)을 표방하고 국제체계의 구조 속에서 국가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표 III-1>에서 보듯이 양자간에 몇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난다.⁸¹⁾

79) 이는 1990년대 중반 주요 국제관계 학술논문집과 『국제학 협회(ISA)』 발표 논문들의 80%가 신현실주의 계열에 속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Ole Waever, "Figures of international thought: introducing persons instead of paradigm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s in the Making*, eds. by Iver B. Neumann and Ole Waever (London: Routledge, 1997), p.26.

80) 예를 들면, 린-존스(S. M. Lynn-Jones)와 밀러(S. E. Miller)는 고전적 현실주의(H. J. Morgenthau), 구조적 현실주의(Kenneth N. Waltz), 신 고전적 현실주의(Randall Schweller), 패권경쟁 및 힘의 전이에 관한 현실주의 이론들(R. Gilpin, A.F.K. Organski)로 구분한다. Sean M. Lynn-Jones & Steven E. Miller, "Preface," *The Perils of Anarchy*, pp.xi-xiii; 둔(T. Dunne)은 현실주의를 '구조적 현실주의 I'(H. J. Morgenthau), '구조적 현실주의 II'(Kenneth N. Waltz), '역사적·실천적 현실주의'(E. H. Carr), '자유주의적 현실주의'(H. Bull)로 분류한다. Timothy Dunne, "Realism,"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eds. by John Baylis & S. Smith (Oxford: Oxford Univ. Press, 1997), p.113 참조.

<표 III-1> 전통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비교

	전통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법칙을 반영한 합리적 이론 정립 지향/귀납적 이론 · 역사, 사회학, 정치철학 의존적/ 설명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결성과 엄격성을 지닌 합리적, 연역적 이론 정립 시도/ 설명과 예측 · 신고전학파의 미시경제적 개념 원용
이론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정책이론 지향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치이론 지향적/체계이론
분석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준: 인간 및 국가수준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준: 국제체계의 구조 중심
권력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적 권력개념: 인간과 국가의 원초적 목표로서 권력 · 정치의 기본단위로서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력
국가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의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확립
국가행위의 동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과 국가이익 · 공세적 국가행위(권력의지 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정부상태와 능력의 배분 · 방어적 국가행위(타국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가. 핵심가정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세계관 및 기본가정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모겐소가 제시한 현실주의의 여섯가지

81) K.N. Waltz,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p.126;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p.10; R. Gilpin, "No One Loves a Political Realist," *Security Studies*, Vol. 5 (1996), pp.3-26; Randall L. Schweller & David Priess, "A Tale of Two Realisms: Expanding the Institutions Debate,"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1 (1997), pp.7-8 참조.

원칙들은 전통적 현실주의의 세계관 내지 가정을 분명히 보여준다.⁸²⁾ 이 원칙들은 크게 세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인간본성에 관한 비판적 견해이다.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권력을 갈망(lust for power) 하며, 이는 갈등을 야기하는 원천으로서 불변의 객관적 법칙이라는 점이다. 둘째,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이 국제정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의 도덕적 특수성에 대한 강조이다. 모겐소는 베버(Max Weber)의 정치윤리를 빌려왔다. 즉 정치적 행위는 보편적 도덕원리 — ‘심정윤리(Gesinnungsethik)’ — 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치적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신현실주의는 국제체계에 분석수준을 맞추고 가치를 배제한 과학적 이론을 내세우는 탓에 ‘인간본성’과 ‘정치적 도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현실주의의 기본구상이 숨겨져 있는 『인간, 국가, 그리고 전쟁』(1959)이란 저서에서 왈츠는 이미 비판적 인간본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인간본성이 불변적이라면, 인간행위는 사회적·정치적 제도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⁸³⁾ 이는 신현실주의의 탄생에 중요한 지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무정부적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자구(self-help)와 자국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신현실주의의 논리 속에도 현실주의적 정치윤리가 내재되어 있다.

실제로 신현실주의는 그 출발부터 새로운 철학적 질문이나 지적 전통을 창조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왈츠의 이론적 출발점은 “국제관계의 역사에서 행위자의 의도와 결과가 좀처럼 일치하지 않는 이유”

82) H.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3rd Edition (1973), pp.3-15 참조.

83) K.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pp.40-41 참조.

와 “역사적으로 행위자들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재현되는 이유”를 규명하려는 데 있었다.⁸⁴⁾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그는 국제체계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현실주의를 엄격하고 연역적인 체계이론으로 정립하려 했다.⁸⁵⁾ 따라서 신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현실주의의 세계관 및 핵심가정을 현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신현실주의 이론은 엄격성과 간결성에 입각한 과학화를 강조하며, 연역적 방법론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현실주의에 비해 보다 명확한 기본가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를 막론하고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가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⁸⁶⁾

가정 1: 국가는 국제정치 행위의 핵심 단위이다.

84) K.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65.

85) 왈츠는 신현실주의 이론의 목적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과거의 현실주의자들보다 더욱 엄격한 국제정치이론을 개발하는 것, ② 단위수준과 구조적 요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그들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③ 국제정치학연구에서 지배적이었던 (국가) ‘안에서 밖으로(inside-out)’ 사고방식의 부적합성을 드러내는 것, ④ 체계의 변화에 따라 국가행위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며, 기대했던 결과가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것, 그리고 ⑤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과 주로 경제적 군사적 문제에 그 이론의 실제적용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K. N. Waltz, "Reflections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orealism and Its Critics*, p.323.

86) Robert O. Keohane, "Realism, Neorealism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 by R.O.Keohane. p.7; Jeffrey W. Legro & Andrew Moravcsik, "Is Anybody Still a Realist?" pp.12-13; John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p.10; R. L. Schweller, "A Tale of Two Realisms," p.6; Benjamin Frankel, "Restating the Realist Case: An Introduction," *Security Studies*, Vol.5, No.3 (1996), pp.xiv-xviii 등 참조.

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정치적 동물'인 인간은 그들이 충성을 바치는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정치적 문제의 기본적 단위는 집단이다.⁸⁷⁾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근대 세계의 기본집단은 영토적 경계를 가지는 민족국가이다. 비록 다국적 기업, 국제비정부기구 등 초민족적 행위자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국가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는 국제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이다.

가정 2: 국제체계는 조직원리로서 무정부상태이다.⁸⁸⁾

국가체계와 달리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체계는 위계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국제체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갈등적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성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지는 않는다. 전쟁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정부상태에서의 문제는 오히려 결과의 예측불가능성이다. 국가들간에는 수많은 협정, 조약, 관습, 규범 등이 존재하며, 이는 상호 협력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각 국가들의 이익을 반영한 것일 뿐,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제도나 관습들은 타국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증대시키거나 협상과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 즉 제도나 관습은 제아무리 확대·발전하더라도 국제관계의 무정부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어떠한 국가도 세계공동체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무정부상태에서 국제체계의 구성단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자구의 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87) Robert Gilpin, "No One Loves a Political Realist," p.7.

88) K.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88f.

가정 3: 국가는 권력을 추구하며, 그 자체로 목표이거나 아니면 다른 목표의 수단이다.

권력은 현실주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특히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에서 권력은 생존을 위한 자구능력이라는 맥락에서 가장 기본적 개념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의 권력 추구를 자국의 독립과 안전유지, 그리고 번영 등과 같은 국가이익을 위해 타국이 취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국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⁸⁹⁾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의 권력에 대한 관점은 국가의 자율성 확대와 타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라는 두가지 차원으로 대별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상대성에 있다. 즉 어떠한 국가권력 측정에서도 타국과의 비교를 통한 능력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권력개념에 대한 통일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전통적 현실주의의 경우, 권력은 그 자체로서 목표인 반면, 신현실주의자들은 권력을 수단으로 파악한다. 또한 신현실주의 내에서도 국가의 권력추구에 대한 가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소위 ‘공세적 신현실주의자’들은, 마치 시장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길 원하는 것처럼 무정부적 경쟁 상황 속에서 국가들은 가능한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방어적 신현실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들의 일차적 관심은 보편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으며, 단지 몇몇의 국가들만이 예외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길 원한다. 이들은 권력유지를 넘어 권력증진을 추구하는 국가행위가 국제체제의 속성 탓이 아닌 국가차원의 하부체계적 변수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⁹⁰⁾

89) 모겐소의 국가권력에 대한 설명은 H.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Part III, pp.103-64 참조.

가정 4: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현실주의자들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합리성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행위를 이해한다. 즉 국가행위에는 일관되고 질서있는 선호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의 비용과 효용을 계산하는 전략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⁹¹⁾ 그러나 목적합리성에 근거하는 권력 내지 안보추구 정책이 항상 성공적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가는 완벽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획득한 정보 역시 부정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잘못된 계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국제체계에서 생존의 문제와 관련한 국가의 전략적 행위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

나. 평화의 조건

모겐소를 비롯한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권력갈망에서 연유하는 전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세계정부가 필요하지만, 세계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⁹²⁾ 다만 일반 사회원칙으로서 모든 행위자의 권력추구는 세력균형을 가능케 하고, 이는 현상유지, 즉 전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모겐소는 권력투쟁의 결과로써 이루어지는 세력균형은 항상 불안정하며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⁹³⁾ 무엇보다 국가권력의 양적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90) 이와 관련, 다음 책 참조. Jack Snyder, *Myth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Ithaca: Cornell Univ. Press, 1991), pp.10-13.

91) Robert O. Keohane, "Realism, Neorealism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p.11-12.

92) H.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p.519; K.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p.34 참조.

93) *ibid*, pp.202-21.

상호불신으로 인하여 어떤 국가가 자국의 국력을 과대평가할 경우 전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체제는 과거 유럽에서 세력균형을 유지시키는 기반이었던 지적 동질성과 도덕적 합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제평화를 위한 세력균형의 적합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겐소는 미·소의 양극체제 하에서 국제평화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용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accommodation)’라고 이름지은 그의 제안은 외교를 핵심적 도구로 간주한다. 국제평화의 정립을 위해 그는 일반적인 외교의 네가지 과제와 네가지 근본법칙을 내세운다. 네가지 과제⁹⁴⁾로서 ① 외교적 목표는 실질적·잠재적으로 사용가능한 권력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타국가의 목표와 이를 추구할 수 있는 그들의 실질적·잠재적 권력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외교를 수행되어야 한다. ③ 외교는 서로 다른 목표들이 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외교는 그 목표추구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의 네가지 근본법칙⁹⁵⁾으로 ① 외교는 평화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정치문제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보편주의와 같이 정치적 종교를 강조하는 ‘십자군 정신’은 금물이다. ②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적절한 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③ 외교는 타국의 관점에서 정치적 현장을 관찰해야 한다. ④ 국가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사안들에 대해 타협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⁹⁶⁾

94) *ibid.*, p.519.

95) *ibid.*, pp.540-44.

96) 특히 네번째 타협의 문제와 관련하여 모겐소는 5가지 필요조건을 제시

모겐소가 이처럼 외교적 수단을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력균형을 국제평화의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국제적 세력균형의 불안정이 그 원칙의 오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작용토록 만드는 특별한 조건들에 기인한다고 말한다.⁹⁷⁾ 따라서 그는 세력균형 자체보다는 세력균형에 대한 국가들 간의 합의와 이를 가능케 하는 외교적 수단에 주목하여 평화를 위한 조건들을 찾고자 한다. 즉 평화정착을 위한 국가수준의 노력을 중시한다.

국가수준에서 평화의 조건을 찾는 전통적 현실주의자들과 달리 신현실주의자들은 평화를 기본적으로 특정 국제체계의 안정적 구조의 산물로 파악한다. 왈츠는 자신의 이론이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는 외교정책이론이 아니라, 국가의 대응방법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대응해야할 국제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⁹⁸⁾ 즉 그의 이론은 국제체계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체계는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조는 ① 체계의 조직원리, ② 구성단위들간의 기능분화, ③ 구성단위들 간의 능력 배분이라는 세가지 특징으로 규정된다.⁹⁹⁾ 왈츠는 국제체계에서 무정부적 조직원리는 거의 변화하기 힘들

했다. ① 실질적 이익의 요체를 위해 가치 없는 권리를 포기해라. ② 체면을 잃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심대한 위협을 안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몰고 가지 말라. ③ 자국의 정책이 약한 동맹국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말라. ④ 군사력은 외교의 수단이지 주인이 아니다. ⑤ 정부는 여론의 지도자이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ibid.*, pp.545-48.

97) *ibid.*, p.167.

98) 왈츠와 같은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행위를 국가수준에서 설명하는 시도를 환원주의라고 비판한다.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60-78 참조.

99) *ibid.*, pp.88-101.

며, 또 주권국가의 공통성 탓에 구성단위의 기능적 분화도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체계의 변화는 국가라는 구성단위들 간의 능력 배분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국가간의 능력배분이 국제체계의 안정, 즉 국제적 평화상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의 문제는 강대국의 숫자, 즉 극성(polarity)문제 — 양극 또는 다극체제 — 와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체계의 안정을 양극 또는 다극 세력균형에서 찾는다. 대체로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다극 세력균형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반면, 구조를 중시하는 신현실주의자들은 양극 세력균형체제가 더욱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견도 적지 않다. 길핀의 ‘패권안정이론’¹⁰⁰, 오간스키(A.F.K. Organski)의 ‘힘의 전이이론’¹⁰¹, 모델스키(G. Modelski)의 ‘장주기이론’¹⁰² 등은 세력불균형의 한 상태인 패권체제가 세력균형보다 더욱 안정적이라고 본다. 단극 체제안정을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은 패권의 주기적 변화 과정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극성의 구조적 특징만으로 국제체계의 안정 여부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신현실주의자들은 특정 극성의 구조하에서 국가들이 어떠한 행위양태를 보일 것인가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국제체계의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하고 있다. 비록 왈츠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기서 신현실주의의 외교정책이론적 성격이

100) R.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1).

101) A.F.K. Organski, *World Politics* (N.Y.: Knopf, 1968); A.F.K. Organski & J.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81)

102) George Modelski,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87)

드러난다.¹⁰³⁾ 국가들의 전략적 행위양태에 대한 신현실주의자들의 논의는 국가의 권력추구에 관한 대립적 두 가정, 즉 ‘공세적’ 또는 ‘방어적’인가에 따라 상당한 견해차를 보인다. 특히 동맹과 협력의 문제에 있어서 ‘방어적 신현실주의자’들은 보다 낙관적이며, 전쟁의 회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한다.

방어적 신현실주의자인 왈츠는 양극체제 하에서 행위자들이 신중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의 힘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며, 협조를 촉진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확립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판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동맹의 이탈이 세력균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¹⁰⁴⁾ 이에 비해 다극체제는 역사적으로 증명되듯이 ‘연쇄적 패거리 짓기(chain-ganging)’로 동맹국의 갈등에 끌려들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하여금 패권국으로 등장하려는 국가를 견제토록 하는 ‘책임전가(buck-passing)’의 현상을 유발시킴으로써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⁰⁵⁾ 공세적 신현실주의자인 머시하이머 역시 양극체제 안정론을 내세운다. 그는 냉전시기 동안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미·소 군사력의 양극균형과 핵무기의 억제력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머시하이머가 공세적인 이유는, 모든 국가가 잠재적 경쟁국에 비해 군사적 권력을 더욱 획득하려는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의 생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

103) 신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이론의 성립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Colin Elman, "Horses for Courses: Why Not Neorealist Theories of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Vol.6, No.1 (1996), pp.7-53.

104) K.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161-65.

105) *ibid*, pp.167-70; Thomas J. Christensen &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4, No.2(1990), pp.137-68 참조.

이다.¹⁰⁶⁾

이외에도 신현실주의 내에는 반드시 다극체제 안정론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동맹이론을 바탕으로 다극 세력균형이 어떻게 형성·유지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방어적 신현실주의자와 공세적 신현실주의자들 간의 논쟁은 균형과 편승(bandwagon)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방어적 신현실주의자이며, '위협균형론(balance of threat)'을 내세우는 월트(S. M. Walt)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가는 균형을 위협하는 국가에 편승하기보다 약한 국가와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세력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패권잠재력을 가진 위협국가의 배려를 보장받는 대가로 자율성을 침해당하기보다 약한 국가와 동맹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¹⁰⁷⁾ 이에 대해 공세적 신현실주의자인 슈웰러(R. L. Schweller)는 균형과 편승을 동일한 목표아래 달리 채택된 국가의 상이한 행태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국가들이 균형 또는 편승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균형의 목표는 이미 획득한 가치의 보호나 자기보존에, 편승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자기확대에 각각 있다는 것이다.¹⁰⁸⁾

극성의 형태와 동맹이론을 둘러싸고 전개된 세력균형 내지 체제의 안정에 대한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동안, 냉전종식으로 인해 이론적 이변(anomaly)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신현실주의 내부에서는 체제의 안정과 변화문제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106) John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p.12.

107) Stephe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The Perils of Anarchy*, pp.208-48.

108)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1994), pp.72-107 참조.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분석수준의 확대라는 특징을 띠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국제제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소위 ‘수정 신현실주의(modified neorealism)’로 불리는 새로운 조류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 문제가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뒤따르는 정치적 제도발전의 지체에 있다고 보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며 국제안보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국제레짐과 제도에 대한 설명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¹⁰⁹⁾ 이들은 제도를 권력정치의 부수효과로만 치부하는 머시하이머의 주장¹¹⁰⁾과 달리 제도의 핵심적 기능들을 제시하고 있다.¹¹¹⁾ 이 중에서 특히 ‘목소리-기회(voice-opportunities)’ 명

109) 이미 1980년대 키오헨(R.O. Keohane)은 신현실주의자들 가운데 크래스너(S. D. Krasner)와 같이 제도와 규칙의 역할에 큰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된 구조적 현실주의’라고 명명했다. R. O. Keohane, "Theory of World Politics: Structural Realism and Beyond," *Neorealism and Its Critics*, p.194 참조; 여기서 말하는 ‘수정 신현실주의’도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 다만 탈냉전을 계기로 과거보다 더욱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바꾸었다. 브룩스(S. G. Brooks)는 이들을 ‘후기고전적 현실주의(post-classical realist)’라고도 말한다. 여기엔 스나이더(J.Snyder), 판 에브라(S. Van Evra), 호프(T. Hopf), 그리에코(J. Grieco) 등이 손꼽을 수 있다. Randall L. Schweller & David Priess, "A Tale of Two Realisms: Expanding the Institutions Debate," p.9; Stephen G. Brooks, "Dueling Realis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1, No.3(1997), pp.445-77; Rainer Baumann, Volker Rittberger & Wolfgang Wagner, "Power and Power Politics: Neorealist Foreign Policy Theory and Expectations about German Foreign Policy since Unification," *Tübinger Arbeitspapiere zur Internationalen Politik und Friedensforschung*, Nr.30a (1998), p.19 참조.

110)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p.49

111) 이들이 제시하는 국제제도의 핵심기능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① 제도는 점증하는 정치적 참여와 취약한 통치기구들간의 차이를 메꾸으로써 안정과 질서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친위대적 레짐

제에 입각한 그리에코(J. M. Grieco)의 설명은 현실주의의 새로운 시각으로 통합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¹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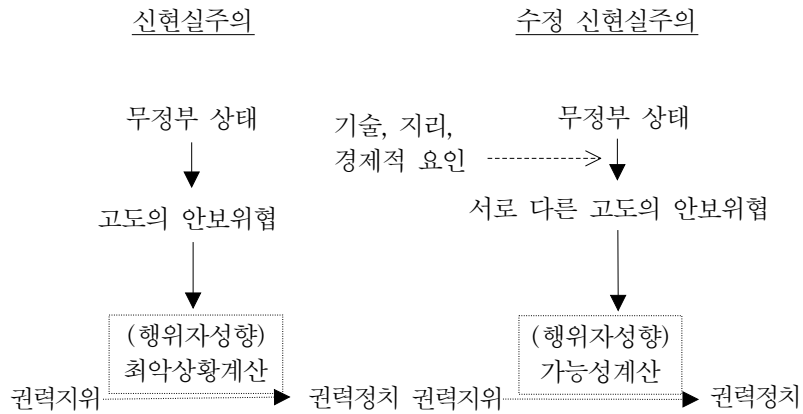
제도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수정 신현실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더욱 친화성을 가진다. 그러나 국제제도내에서의 상호작용이 권력정치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핵심가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단, 수정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자신의 권력지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만 권력정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신현실주의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국가는 심각한 안보위협 속에서는 권력을 추구하나, 안보위협이 비교적 약할 때에는 제도내에서 권력정치를 추구하며, 또한 이 경우 권력은 영향력의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¹¹³⁾ 이러한 가정은 위협이나 힘의

(praetorian regimes)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② 특히 서구적 경제분야의 국제제도에서 참여기회는 과도한 민족주의, 군사주의, 그리고 민족갈등을 완화시키려는 국가들의 강력한 노력의 대가로 제공될 수 있다. ③ 국제제도는 핵확산을 관리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또 핵무장을 원하는 국가에게 기술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핵억제 대상국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④ 국제제도의 형성을 주도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에게 그들의 관심에 관해 발언할 기회를 더욱 많이 보장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소국가들이 강력한 이웃국가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Randall L. Schweller & David Priess, "A Tale of Two Realisms: Expanding the Institutions Debate," pp.10-11.

- 112) 그리에코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탈냉전시기 유럽화폐통합의 발전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즉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통화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화체제(EMS)에 찬성한 이유는 목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며, 독일이 경제적인 양보(화폐통합의 불안정)를 감수한 배경에는 유럽연합에서 다른 경제적 이익(물가안정)이나 정치적 발언권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구성원은 탈퇴(exit)할 것이고 이로써 제도는 와해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Joseph M. Grieco, "State Interests and Institutional Rule Trajectories: A Neorealist Interpretation of the Masstricht Treaty and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Security Studies*, Vol.5, No.3 (1996), pp.286-89.

결정을 능력배분의 차이에서만 찾았던 왈츠의 신현실주의와 달리 경제, 기술, 지리와 같은 다른 물질적 요소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한데서 도출된 결과이다.

<그림 III-1> 신현실주의와 수정 신현실주의 비교



출처: Rainer Baumann, Volker Rittberger & Wolfgang Wagner, "Power and Power Politics: Neorealist Foreign Policy Theory and Expectations about German Foreign Policy since Unification," p.21

<그림 III-1>에서 보듯이 수정 신현실주의자들은 안보를 위협하는 변수들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기술, 지리, 경제적 요인 등은 국가간 상대적 권력지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매개변수로 간주된다. 예컨대 부잔(B. Buzan)은 국가간 상호작용을 주요 변수로 간주하고

113) Rainer Baumann, Volker Rittberger & Wolfgang Wagner, "Power and Power Politics: Neorealist Foreign Policy Theory and Expectations about German Foreign Policy since Unification," p.21 참조.

구조와 단위로 이루어진 왈츠의 체계이론에다가 제3의 분석수준으로 덧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의사소통과 운송기술의 발전이 국가간 상호작용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무정부상태에서 발생하는 자국적 성격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강조한다.¹¹⁴⁾

뿐만 아니라 저비스(R. Jervis)와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무정부상태와 안보딜레마가 반드시 갈등만을 초래하지 않으며,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¹¹⁵⁾ 이러한 논의의 동일선상에서 글래저(C. Glaser)도 권력 및 안보추구의 맥락에서 군사정책의 경쟁에만 주목하는 신현실주의적 접근의 결함을 지적하고, 군사기술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군축협력을 통한 안보추구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¹¹⁶⁾ 이외에도 위협이 단지 상대적 힘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에서도 생성된다는 왈츠의 ‘위협균형론’, 그리고 권력의 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길핀의 이론 등은 수정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실주의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갈등에 맞춰져 있다. 비록 전통적 현실주의나 수정 신현실주의는 협력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있긴 하지만, 이는 갈등의 잠정적 완화 내지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실주의자들은

114) Barry Buzan, "Rethinking System and Structure," *The Logic of Anarchy: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eds. by B. Buzan, C. Jones, & R. Little (N.Y.: Columbia Univ. Press, 1993), pp.69-80 참조.

115)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30, No.2 (1978), pp.167-214;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Regimes*; Robert Jervis, "Realism, Game Theory, and Cooperation," *World Politics*, Vol.40 (1988), pp.317-49; Robert Jervis, "Realism, Neoliberalism,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1 (1999), pp.42-63 참조.

116) Charles L. Glaser, "Realists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The Perils of Anarchy*, pp.378, 385-86 참조.

세력균형이나 국제체계의 변화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외교, 세력균형, 국제체계의 안정 및 동맹 등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실주의자들의 평화조건들은 소극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으며, 외교정책적 맥락에서는 강대국의 행위지침으로서 더욱 큰 유용성을 가진다.

2.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에서 흔히 자유주의는 이상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현실주의자들은 평화, 협력, 국제제도 등에 대한 잠재력을 낙관하는 자유주의의 제도적, 윤리적 측면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국제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을 규범적, 비과학적,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말한다.¹¹⁷⁾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있는 국제정치학자들은 결속력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 현실주의나 제도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통일되고 일관성을 갖는 국제정치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이상주의적 이념으로서가 아닌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으로 간주할 경우, 비록 원대하고 간결한 구조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유주의적 전통에 입각하여 사회적 선호와 국가행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은 지속되어왔다.¹¹⁸⁾ 더구나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국제협력에 대한

117) 가장 영향력 있는 비판은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H.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K.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이다.

118)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liberalism reconsidered," *The Economic Limits to Modern Politics*, ed. by John Dun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0), pp.172-73; Andrew Moravcsik,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515 참조.

관심과 실천이 점증하면서 자유주의적 시각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뿌리는 17세기 자유주의 정치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록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국제정치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화 작업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자유주의 맥락에서 다루어진 국제정치적 주제들은 2차세계대전 이후 다양하게 전개된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모태가 되었다. 이들 주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¹¹⁹⁾ 첫째, 평화, 번영, 정의의 실현조건들을 축적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더욱 증진하는 방향으로 국제관계를 점차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행위와 이성의 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념은 현실주의자들의 비판처럼 이상주의적이라고 매도될 수 없다.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완벽성이라든지 통일된 세계관의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은 이익의 완벽한 일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익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또한 이익의 조화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더욱 큰 자유의 실현에는 국제협력의 증대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비록 시대마다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국제협력의 성격과 강도는 달랐지만, 협력이 인간의 자유를 진보시키는 기반이었다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셋째, 국제관계는 과학혁명에 의해 촉발되고 자유주의의 지적 혁명으로 강화되는 현대화 과정을 통해 변화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현대화 과정의 핵심

119) Mark W. Zacher & R. A. Matthew, "Liberal International Theory: Common Threads, Divergent Strands," *Controvers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and the Neoliberal Challenge*, ed. by Charles W. Kegley, Jr. (N.Y.: St. Martins's Press, 1995), pp.109-11 참조.

적 요소로서 자유민주주의 내지 공화정부, 국제적 상호의존, 인식의 진보, 국제사회의 통합, 국제제도에 주목한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받은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표 III-2>와 같이 각각 서로 구별되는 국제정치이론들을 발전시키고 있다.¹²⁰⁾ 모라브칙은 그러한 분파들 가운데 공화주의적, 상업적, 이념적 및 규제적 자유주의만이 진정한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속하며,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이데올로기 및 역사적 의미에서는 자유주의와 연관성을 가지나 실제로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앞의 세 분파가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 관계의 세계정치적 함의를 찾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핵심가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와 구별하여 구조적 자유주의¹²¹⁾라는 이름으로 묶고 있다. 물론 그는 구조적 자유주의가 단지 국가의 행위(외교정책)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집합적 행위(국제관계)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이론으로도 손색이 없음을 강조한다.¹²²⁾

120) 학자들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분파를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나이는 상업적(commercial), 민주적(democratic), 규제적(regulatory), 사회적(sociological) 자유주의로, 키오헨은 공화주의적(republican), 상업적, 규제적, 세련된(sophisticated) 자유주의로, 모라브칙은 이념적(ideational), 상업적,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로, 자허와 매튜는 보다 세분하여, 공화주의적, 상업적, 군사적, 인식적(cognitive), 사회적, 제도적(institutional) 자유주의로 나누고 있다. Joseph S. Nye Jr.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World Politics*, Vol.40, No.2 (1988), pp.245-48;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liberalism reconsidered," pp.174-86; Andrew Moravcsik, *Liber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p.17-36 &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525-33; Mark W. Zacher & R. A. Matthew, "Liberal International Theory: Common Threads, Divergent Strands," pp.121-37 참조.

121) Andrew Moravcsik, "Federalism and Peace: A Structural Liberal Perspective," pp.123-32 참조.

<표 III-2> 자유주의 전통을 계승한 국제정치이론들

	구조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상업적 자유주의	이념적 및 규제적 자유주의	
기본 행위자	개인 및 사회단체(국가)	개인, 사회단체,(국가)	개인, 사회단체,(국가)	국가
국가 행위의 결정 요인	· 국내정치 및 사회 제도	· 경제적 동기	· 사회적 정체 성과 가치	· 개별적으로 규정된 효용 의 극대화 (절대적 이익) · 국제체계의 구조변화
핵심적 관심 사항	· 국제협력에 미치는 국내 정치구조의 영향	· 국내의 경제 적 이익과 국경을 초월 한 교환행위 · 경제적 상호 의존	· 국내사회 질 서(민족, 정 치, 사회경제 적 정당성) 의 국제적 조절 · 국제협력의 제도적 발전	· 무정부적 국 제사회에서 기능주의적 국제협력
평화의 조건	· 국내적 민주 주의의 확산 (민주주의평화론)	· 시장의 불균 형 교정	· 국제제도의 기능적 발전 (통합) · 의사소통을 통한 다원적 안보공동체 형성	· 시장의 실 패(속임수) 보완을 위한 정보개방 확 대 및 제도 적 장치 확 립
대표적 학자	M. W. Doyle	R. Rosecrance	E. Haas, J. Nye, K. W. Deutsch	R. O. Keohane

122) Andrew Moravcsik,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534-36 참조.

모라브칙은 구조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차이점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한다.¹²³⁾ 첫째, 전자는 국가의 권력과 정보가 일정 하더라도 국가선호는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국가선호를 고정되고 외재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전자는 외교 정책을 사회적 문맥에서 설명하는 반면, 후자는 국제정치체계의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셋째, 전자는 국내적 갈등이 어떻게 국제 정치차원에서 차선적 결과를 낳는가에 주목하는 반면, 후자는 국제적 무정부상태가 차선의 결과를 유도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넷째, 전자는 국제협력에서 목적을 중요시하는 반면, 후자는 수단을 강조한다. 이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모라브칙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수정된 구조적 현실주의’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를 주도적으로 발전시켜온 키오헨(R. O. Keohane)은 자신의 이론이 자유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암시한다. 자신은 역사의 진보와 이 과정에서 인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이론을 묵시적이거나 ‘세련된(sophisticated) 자유주의’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⁴⁾ 그러나 1970년대부터 다양한 이론들 — 초민족주의 내지 상호의존 이론,¹²⁵⁾ 기능적 레짐이론,¹²⁶⁾ 국제적 제도주의이론¹²⁷⁾

123) Andrew Moravcsik, "Federalism and Peace," p.128; Andrew Moravcsik,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pp.536-37 참조.

124) 그에 따르면, ‘세련된 자유주의’는 상업적 자유주의와 규제적 자유주의의 종합에다가 이익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을 첨가한 것이다. R. O. Keohane, "International liberalism reconsidered," p.183 참조.

125) 이에 대한 대표적 저술은 R. O. Keohane & J.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N.Y.: Little, Brown, 1977)

126) R.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 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연구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키오헨은 자신의 이론적 주 관심을 국제체계에 두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구조적 자유주의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비록 그는 국제적 협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국내정치를 분석과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수궁하고 있지만,¹²⁸⁾ 그의 이론은 여전히 국제체계에 맞춰져 있다. 또한 자신의 이론이 세계정치의 대안적 이론들을 만들어 내기보다 신현실주의에 새로운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한다.¹²⁹⁾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자유주의의 핵심가정을 구조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이다.

가. 핵심가정

(1) 구조적 자유주의¹³⁰⁾

가정 1: 국제정치의 기본 행위자는 개인 및 사적 단체이다.

자유주의이론은 개인과 사회단체를 기본 행위자로 간주한다. 자유주의자들이 가정하는 이들 행위자의 특징은 보편적으로 합리적이며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84) 참조.

127) R.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9) 참조.

128) *ibid*, p.30.

129) *ibid*, p.251 참조.

130) 구조적 자유주의의 핵심가정들은 주로 다음 두 글을 참조. Mark W. Zacher & R. A. Matthew, "Liberal International Theory: Common Threads, Divergent Strands," pp.118-20; Andrew Moravcsik,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pp.516-24.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며, 물질적 희소성, 가치갈등, 그리고 여러 형태의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한계들 속에서도 다양화된 이익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교류와 집단 행동(정치)을 한다는 것이다.

개인과 집단이 추구하는 물질적·이념적 복지는 애초 정치에 앞서 동기화되지만, 물질적 희소성과 이념적 다양성 탓에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교류 및 집단 행동, 즉 정치가 발생한다고 자유주의 이론은 가정한다. 여기서 행위자들은 기대이익이 크면 클수록 행위에 대한 동기도 강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또한 기존 투자를 방어하려는 의도는 강한 반면, 새로운 이익 추구를 위해 예상되는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다는 점에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가정아래 자유주의 이론은 스스로 이익을 가지는(self-interested) 행위자들의 행위를 협력과 갈등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들을 일반화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은 주로 ‘다양한 근본신념’, ‘물질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정치적 권력에서의 불평등’이라는 세가지 요소에 집중된다.

가정 2: 국가는 국내사회의 하부구조적 상태를 반영한다.

자유주의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그 자체로서 단일적 행위자가 아니며, 항상 변화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연합이익을 대표하는 집합적 내지 다원주의적 행위자이다.¹³¹⁾ 따라서 정부관료에 의해 규정되는 국가의 선호는 어떠한 특정 사회적 행위자들 내지 그들의 집단 이익을 강

131) 모라브칙은 구조적 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허를 비롯하여 대개의 자유주의 맥락에 서있는 학자들은 국가도 집합적 의미의 행위자로 간주한다.

하게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국가선호는 국내체제의 성격에 따라 다원적 이익, 특정 계급이익, 일부 관료이익 등과 일치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국제적 행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사회적 이익자체는 물론이고 국가선호를 형성하는 국가제도의 성격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국가행위와 관련하여 자유주의 이론은 전략적 환경보다 근본적인 선호의 문제를 중요시한다. 국가선호는 국제적 상호작용의 주요 결과들 사이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국가전략 및 전술 또는 정책에 선행하는 것이며, 또한 대표적 제도(국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게임이론에서 ‘선호’라고 불리기도 하는 전략과 전술은 자유주의이론에서 말하는 선호와는 다른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외교정책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집단들의 연합구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조의 연계방식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국가는 경우에 따라 관료나 정치가들 사이에 강력한 협조를 바탕으로 통일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회이익에 각각 달리 복무하면서 외교정책에 기여하는 상이한 요소들 — 즉 행정부, 법원, 중앙은행,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관료들, 지배정당 및 정치가 등 — 로 인해서 분열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국가선호의 형성과 국가행위의 사회적 문맥을 구조적·연계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가정은 현실주의자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이 전제하는 국가행위의 가정, 즉 국가는 확정되고 동질적인 국가이익을 자동적으로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가정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 3: 국가행위는 상호의존적인 국가선호들의 배열에 의해 결정된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행위 — 갈등과 협력을 모두 포함하여 — 를

국가선호들의 변화하는 양식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국가는 타국을 무시하고 단지 자신들의 이상적 정책만을 추구하지는 않으며, 타국의 선호에 의해 만들어진 제약들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선호를 실현시키려 노력한다. 이를 위한 국가간 상호작용과정에서 상대적 협상능력차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두고 자유주의 내부에 이견이 있다.¹³²⁾

소위 ‘최대주의자(maximalist)’로 불리는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간 능력차이는 독립변수가 될 수 없으며, 모든 협상은 기본적으로 선호 내지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협상이란 전쟁보다는 시장의 교환과 더욱 유사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익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주로 ‘윈셋(win-set)’, ‘협정에서 최선의 대안’, ‘상대적 기회비용’ 등에 주목한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국가의 대가지불이나 전략선택은 그 자체로서 당면문제에서 상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 기능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상대적 능력배분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되, 능력배분을 국가선호에 종속시키는 입장을 취하는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는 ‘최소주의자(minimalist)’들로 불린다. 이들은 국가간 극단적 갈등상황에서 현실주의자들의 설명이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절충이 필요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선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가 현실주의에 선행하는 이론임을 강조한다. 이 맥락에서 모라브칙은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현실주의와 실천적 차원에서는 양립 가능하다고 말한다.¹³³⁾

132) A. Moravcsik, *Liberalism and International Theory*, pp.13-16 참조.

133) *ibid.*, p.37.

가정 4: 역사의 발전에 따라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국제협력이 증대할 것이다.

역사를 순환적으로 파악하는 현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 이론은 역사의 축적적인 진보(cumulative progress)를 믿는다.¹³⁴⁾ 실제로 근대화의 초기에는 권력관계에 바탕을 둔 강요가 매우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했으나, 자유민주주의, 상호의존, 지식, 국제사회의 유대, 국제제도 등이 성장하면서 비강요적 협상이나 이익의 국제적 양식이 점차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 즉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협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의 이면에는 몇가지 기대가 있다. ① 상호의존의 증대와 민주적 가치의 확산에 따라 이익의 상호성이 증가할 것, ② 향상된 지식과 의사소통으로 국가 및 여타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③ 모니터링의 향상으로 협력파트너의 속임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점점 약화될 것, ④ 강요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증대함으로써 상대적 이익확보가 강요적 권력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 등이다.

(2)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외형상 대체로 신현실주의의 핵심가정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몇가지 중요한 점에서 신현실주의의 내적 논리와 충돌하고 있다. 그리에코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신현실주의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전자는 후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키오헨은 전자가 후자의 대안적 이론

134) R.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p.11 & "International liberalism reconsidered," p.174.

이라기보다 후자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³⁵⁾ 따라서 여기에서는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핵심가정을 정리할 것이다.

가정 1: 국가는 국제행위의 중심 단위이다.

1970년대 이론적 초기단계에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초민족적 행위자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비국가적 행위자들도 결국은 국가에 종속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가를 역시 국제체계의 핵심 단위로 간주한다. 다만 국가를 결속력 있는 유일한 행위단위로 파악함으로써 국제관계의 복합적 상호의존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주의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보다 완화된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국가간, 초정부적, 초민족적 관계로 세분한다.¹³⁶⁾

가정 2: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협력의 제도화가 가능하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가행위, 즉 외교정책의 전제를 국내정치보다 국제체계의 변화하는 성격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관심을 국제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맞추고 있다.¹³⁷⁾ 이와 관련, 키오헨은 국제사회가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갖는 주권국가들의 자구행위에 의존하는 무정부상태라는 가정아래 이론을

135) J. M.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ed. by David A. Baldwin, p.131; R.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pp.15-16.

136) R. O. Keohane & J.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p.25 참조.

137) *ibid*, p.viii.

전개한다. 그러나 갈등과 경쟁에 중점을 두는 현실주의자들과 달리 문제영역별로 국제레짐 내지 체도를 통한 협력의 발전가능성에 주목한다. 비록 국제레짐들이 경험적으로 국가중심적 국제질서를 새롭게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도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갈등의 부수현상으로 치부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¹³⁸⁾ 또한 무정부상태를 곧 전쟁의 충분조건으로 간주하는 현실주의적 설명을 논리적 비약으로 본다. 그는 무정부상태에서 조화의 부족과 전쟁발생 사이에 존재하는 어떠한 연관성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특정 국제체제에서 지배적인 기대들의 성격, 즉 체도에 따라 조건 지워진다고 말한다.¹³⁹⁾

체도의 조건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신자유주의적 체도주의는 우선 무정부상태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주요 조건들로서 ① 상호이익이 존재할 것, ② 소규모 행위자들 사이에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관계가 존재할 것, ③ 상호성(reciprocity)이 실천될 것을 들고 있다.¹⁴⁰⁾ 이러한 조건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키오헨은 ‘제도화의 정도(degree)’를 기준으로 이론들의 적합성을 찾고 있다. 즉 경우에 따라 신현실주의 이론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지만, 제도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신현실주의는 설명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체도주의가 더욱 포괄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¹⁴¹⁾

138) R. O. Keohane, *After Hegemony*, p.53.

139) R.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p.10.

140) J. M.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pp.131-135
참조.

141) 상호이익과 제도화의 정도라는 두가지 변수를 조합하여 두 변수 모두 낮은 상황(흡스적 의미의 무정부상태)에서는 신현실주의 이론이 적합성을 가지고, 양자 모두 높을 경우 신자유주의적 체도주의의 적합성이 제고된다. 그러나 하나는 높고 다른 하나는 낮은 두가지 경우는 실제로 매우 드문 경우로 본다. R.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이처럼 협력과 제도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제도화는 관성력을 가지고 있다.¹⁴²⁾ 무엇보다 일단 레짐이나 제도가 형성되면, 국가의 행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도에 맞춰지며, 제도의 변화나 새로운 제도의 형성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성력을 갖는 제도화를 통해 국가이익이나 국가에 부과되는 제약은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생각하는 무정부상태는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홉스적 성격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무정부상태에서 국가행위를 둘러싼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의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와 키오헨은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 무정부상태를 비공식적 제도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무정부상태는 주권이란 규범을 일반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제도화된 것”이라고 규정¹⁴³⁾함으로써 국제체계의 성격을 둘러싼 양이론의 시각차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정 3: 국가는 합리적·이기적 행위자이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신현실주의와 같이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행위의 기본동기를 생존에서 찾는 현실주의와는 달리 효용극대화를 위한 이기적 동기에 주목한다. 이러한 차이는 양이론간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과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에 관한 논쟁을 유발시켰다.¹⁴⁴⁾ 그리에코에 따르면,

and State Power, pp.2-3.

142) R. O. Keohane, "Institutional Theory and the Realist Challenge After the Cold War,"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p.271.

143) R. O. Keohane, "'Hobbes' Dilemma and Institutional Change in World Politics: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Society," *Whose World Order? Uneven Globaliza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eds. by Hans-Henrik Holm & Georg Sorense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p.276.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합리적·이기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는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절대적 이득을 얻는 데 몰두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실주의자들은 능력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국가의 효용 추구는 상대국가와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생존에 대한 기본적 관심 탓에 상대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는 데 만족한다는 것이다.¹⁴⁵⁾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이득에 관한 그리에코의 문제제기에 대해 키오헨은 국가관계의 상황에 따라 국가행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다.¹⁴⁶⁾ 이에 대해 현실주의자들은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협력이득(joint gains)’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보다 협력이득에서 발생하는 배분문제다. 효용추구라는 측면에서 배분방법은 파레토 곡선을 따라 매우 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기서 국가간 권력차이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¹⁴⁷⁾ 또한 이득의 배분문제는 능력배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왈츠는 이미 『국제정치이론』에서 상호이득을 위한 협력은

144) 이 문제는 J. M.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pp.124-31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145) 그리에코는 효용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양이론의 차이를 $U=V$ (신자유주의)와 $U=V-k(W-V)$ (현실주의)라는 수식으로 표현한다. U 는 효용, V 는 자국의 수익(payoff), W 는 상대국의 수익, k 는 상대국의 수익과 자국의 수익 차이를 각각 의미한다. 여기서 현실주의자인 그리에코는 k 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입장인 데 반해, 키오헨은 안정적 동맹관계에서 0보다 적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ibid*, pp.126-29; R. O. Keohane, "Institutional Theory and the Realist Challenge After the Cold War," p.279.

146) *ibid*, p.275.

147) 이에 대해서는 Robert Powell, "An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neorealist-neoliberal debate," p.339 참조.

이득배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절대적 이득을 위한 전망이 밝을지라도 타국이 증대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서로 두려워하는 한, 상호이득을 위한 협력은 촉진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⁴⁸⁾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하듯 국제레짐 내지 제도의 관성력은 큰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말한다.

<표 III-3>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신현실주의의 주요 논쟁점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신현실주의
무정부상태의 성격과 결과	성격: 협력적 결정(상호의존) 결과: 국제레짐 형성	성격: 독립적 결정(생존) 결과: 세력균형
국제협력	상호이익 탓에 협력 발생, 제도의 관성력으로 협력유지	협력은 가능하나, 생생·유지가 어려우며, 국가권력에 종속적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이득	절대적 이득	상대적 이득
국가목표의 우선순위	경제적 문제영역 우선	상대적 권력, 안보, 생존 우선
의도 대 능력	의도, 이익, 정보의 과대강조 및 능력배분에 대한 상대적 과소평가	타자의 의도를 알기 힘든 탓에 능력의 배분이 행위의 결정적 요소
제도 및 레짐	제도의 중요성 강조	제도에 대한 과대평가는 국가간 협력에 대한 무정부상태의 제약효과를 왜곡·완화

출처: David A. Baldwin, "Neoliberalism, Neorealism, and World Politics,"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pp.4-8

이상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가 신현실주의의 핵심가정을 공유하면서도 논리적으로는 상이성을 보이는 것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전통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이론적 모색을 하고

148) K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105.

있는 데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쨌든 양이론간 논쟁이 국제정치이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론적 발전을 주도해온 현실을 감안할 때, 양자간 주요논쟁점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표 III-3>은 크게 여섯가지의 핵심적 논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나. 평화의 조건

자유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국제정치이론들은 현실주의 이론들에 비해 훨씬 뚜렷한 평화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적 자유와 사회질서의 조화를 추구해온 자유주의 이념은 양자간에 내재하는 갈등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¹⁴⁹⁾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자유주의의 접근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측면 — 문화·규범과 구조·제도 — 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서구 시민문화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발전과정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들은 외형상 구조 및 제도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통합이론의 계열에 속하는 (신) 기능주의와 커뮤니케이션 이론, 국가와 사회의 관계구조에서 평화와 전쟁의 원인을 찾는 민주평화론, 그리고 통합이론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등은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간에 구조와 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한다. 다만 각 이론은 실증주의에 대한 신념의 정도에 따라 문화 및 규범의 가치적 측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149) Michael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5 참조.

(1) 구조적 자유주의

전후 국제평화의 구축에 대한 최초의 자유주의적 대안은 미트라니(D. Mitrany)의 기능주의 통합이론이었다. 그는 양차대전을 겪으면서 소위 이상주의자들의 국제평화 구상은 실현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현대사회의 특징을 고려한 기능주의적 통합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국민복지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적 차원의 협력 내지 상호의존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유발시키고, 비정치적인 기술적 차원의 공동이익은 파급효과를 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¹⁵⁰⁾

그러나 미트라니의 기능주의는 국내정치의 작동원리를 무시함으로써 파급효과의 자동적 생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스(E. Haas)는 신기능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하스는 통합과정을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를 상정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정치공동체란 특정 단체들과 개인들이 어떤 다른 권위보다 중앙정치제도에 더욱 충성을 보이는 어떤 상태라고 말한다.¹⁵¹⁾ 그는 정치공동체의 성립과 관련하여 두가지 핵심적 전제조건을 제시한다.¹⁵²⁾ 첫째, 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족국가들 사이에 합의를

150)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 1943), p.38 참조.

151) Erne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p.5

152) Erne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1959), pp.9-10; "The Uniting of Europe and the Uniting of Latin Americ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5, No.4 (1967), p.32 참조.

강요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를 범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앙제도의 존재이다. 중앙제도는 민족국가의 정부로부터 자율적 이야 하며, 또 중립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 권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민족국가의 정부 의사가 중요하다. 정부의 통합의사는 국내적으로 다원적 사회구조, 엘리트의 집단적 기대, 그리고 정책결정의 관료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상호간에 유사성을 가질 때 비로소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통합과정에서 사회구조적 동질화와 공적·정치적 엘리트들의 역할에 특히 주목한다.

하스의 이론에서 핵심은 국제적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국가 수준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제도의 형성보다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성심을 이전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스는 1970년대 중반 스스로 신기능주의 이론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민족국가의 합리성과 진보에 입각한 그의 생각들은 신기능주의 이론의 구상을 한 단계 더 높게 발전시키고 있다.¹⁵³⁾ 민족국가의 합리화 과정은 모든 인간의 운명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보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세계의 합리화 과정이 진전되면 초민족적인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근대국가의 합리화 과정으로 작용했던 민족주의를 자유주의적 이념과 결합시킴으로써 모든 민족국가가 자유주의적 이념을 추구하게 될 때 국가들간의 결속력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도이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신)기능주의 이론보다 평화문제에 대해 더욱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안보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두가지 형태의

153) Ernest B. Haas, *Nationalism, Liberalism, and Progress: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7)

안보공동체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융합된 안보공동체(amalgamated security community)’와 ‘다원적 안보공동체(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가 그것이다. 전자는 미국의 예에서 찾을 수 있듯이 두 개이상의 주권국가가 모여 하나의 확대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국가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평화적 변화에 대한 공동의 기대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각 구성원이 공동의 제도와 상호간 상응성(responsiveness)에서 연원하는 핵심적 가치가 서로 양립할 수 있을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¹⁵⁴⁾ 도이취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후자이다. 그에 따르면, 초국가적 공동체는 평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초국가적 제도내에서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이취의 안보공동체는 단순히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제도의 형성보다 근본적으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개념이다. 그에게 있어서 ‘안보공동체’란 통합된 국민들의 집단이며, ‘통합’이란 주어진 영토내에서 평화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확인시킬 수 있는 ‘공동체 의식(a sense of community)’과 제도 및 실천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¹⁵⁵⁾ 여기서 도이취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간주하는 요소는 공동체 의식, 즉 ‘우리라는 감정’이다. 그는 무역, 이민, 관광, 문화 및 교육교류 등의 상호거래와 의사소통 시설의 확산을 통해 정치엘리트 및 대중들에게 공동체의식이 주입되고 사회적 유대가 생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¹⁵⁶⁾ 이처럼 안보공동체의 시작은 미천할 수 있지만, 시작단계에서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과 이를 충족시킬 수

154)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5 참조.

155) *ibid.*

156) *ibid.*, p.36

있는 자원들이 서로 보완적이기만 하다면, 공동체의식 형성에 필요한 문화적 친근성의 발전과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도이취는 안보공동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크게 여섯가지를 들고 있다. ① 의사소통의 증대, ② 상호거래의 양적 확대, ③ 공동의 규범적 틀과 행위양식을 창출하는 학습과 사회화 과정, ④ 약소국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권력의 핵심', ⑤ 안보공동체의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선행 제도들, ⑥ 정책 결정능력을 가진 엘리트들의 지도력이다.¹⁵⁷⁾

이상과 같이 통합이론의 계열에 속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초국가적 정부보다 독립된 주권국가들간의 정치통합을 가능케 하는 국제제도가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본 가정아래 그러한 제도형성의 전제조건들을 정부간 관계, 초민족적 관계,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이념적 내지 규제적 자유주의 이론들이 특정 통합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통합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계열에 속하는 '민주평화론'은 국제제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국내적 수준에 중점을 두고 평화의 원인과 조건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주평화론은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제시한 가설에서 출발한다. 즉 자유공화국간의 '평화적 연합(*foedus pacificum: pacific union*)'은 연방화(*federalization*)과정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더욱 많은 자유공화국을 포괄하게 되며, 이는 결국 영구평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¹⁵⁸⁾ 이를 바탕으로 도일(M. Doyle)은 19세기초이래 발생한 전쟁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간에 전쟁은 매우 드물

157) *ibid*, p.47 참조.

158) Michael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22의 각주 25) 참조.

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민주평화론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민주평화론은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평화의 주 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역사적·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전쟁을 하기 때문이다. 단,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부분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만 국한되는 ‘분리된 평화(separate peace)’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민주평화론의 인과적 설명은 국가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평화는 국제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체제의 성격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도일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평화를 이루는 두가지 길을 도출해 낸다.¹⁵⁹⁾ 첫째는 ‘초민족적 길’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민들간에 경제 활동, 문화교류, 정치적 상호이해를 통해 평화의 기반을 다지며,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비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민들간의 교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전파됨으로써 내부로부터 비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변화 압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불안정과 전쟁의 위협을 극복하려는 국내적 대응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의 확립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간 평화를 이룩하게 만드는 ‘국제적 길’이다. 도일은 초민족적 길과 국제적 길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평화지역을 확대해 나간다고 말하면서도 국제적 길에 훨씬 큰 비중을 둔다. 민주평화론에서 국제적 길은 외교정책적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 사실 칸트의 ‘평화적 연합’은 세계정부와 같은 초국가적 국제기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가들간 일반적 조약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다.¹⁶⁰⁾ 다시 말

159) *ibid.*, p.56.

160) Andrew Moravcsik, "Federalism and Peace: A Structural Liberal Perspective," p.126.

해서 영구평화론의 핵심은 ‘평화적 연합’보다도 공화국의 형성 및 확대에 있었다.

이 맥락에서 민주평화론은 평화의 원인 및 조건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에서 찾는다. 예컨대 러셋(B. Russett)은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문화·규범과 구조·제도라는 두 측면에서 평화를 설명한다.¹⁶¹⁾ 문화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평화적 갈등해결의 규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과 같은 갈등이 있더라도 전쟁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구조 및 제도적으로도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정책에 대한 여론 및 공적 토론 등이 발달해있기 때문에 기습 내지 전격전을 감행하기 힘들며,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되기까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론의 기본 가정이나 경험적 분석방법은 현실주의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들의 관계에서는 이론적용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평화지역의 확산이란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이론적용의 가능성 여부이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론은 민주화과정에 있는 국가의 행위양식, 그리고 비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바람직한 외교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맨스필드(E.D. Mansfield)와 스나이더(J. Snyder)는 민주평화론의 기본 가정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경험적으로 반박한다.¹⁶²⁾ 즉 민주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은 체제변화를 겪지

161) Bruce Russett, "Why Democratic Peace?"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pp.90-107 참조.

162) 이들은 민주화과정에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재화 과정의 국가들도 전쟁을 쉽게 유발한다고 말한다. Edward D. Mansfield & Jack Snyder, "Democratization and the Danger of War," *Debating the*

않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전쟁을 더욱 쉽게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으로 사회변화, 기존제도의 약화, 기존이익의 위협 등에서 연원하는 민주화 과정의 정치적 난관들이 거론된다.¹⁶³⁾

도일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국가들간에 평화지역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의 성공으로 간주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자유주의국가들에 대해서는 외교적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지적한다.¹⁶⁴⁾ 이러한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유주의국가들은 자신들의 평화지역 밖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주의 국가들을 결속하는 정체성은 오히려 비자유주의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과장되게 인식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주의국가들의 국민들은 비자유주의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 존중심이나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주의국가들간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한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은 곧 관계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쉽다.¹⁶⁵⁾

도일은 평화를 확대하기 위해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비자유주의 국가들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올바른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그는 비자유주의 국가의 국력(강대국과 약소국)에 따라

Democratic Peace, pp.308-17 참조.

163) 이들은 정치적 난관들의 구체적 내용으로 ① 정치적 스펙트럼의 확대, ② 이익의 경직화 및 단기적 이익추구, ③ 경쟁적 대중동원, ④ 중앙집권적 권위의 약화를 들고 있다. *ibid*, pp.322-27 참조.

164) 그는 실패의 원인으로 자유주의 국가의 “신중하지 못한 열정”, 이에 반해 다른 한편으로는 “태평스러우며 게으른 공손함”, 그리고 국제적 부의 분배에 대한 자유주의적 원칙의 도덕적 애매성에서 기인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적한다. Michael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p.30-31.

165) *ibid*, pp.31-33.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크게 세가지의 대안을 제안한다.¹⁶⁶⁾ ① 비자유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자유주의 원칙(인권, 시민권, 민주주의, 세계시장경제 등)을 적용할 것, ② 안보와 생존을 위한 현실주의의 신중함(prudence)을 참고하여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비자유주의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상호의존을 제고할 것, ③ 자유주의의 원칙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비자유주의 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타협을 이룰 것 등이다. 독일은 자유주의 외교정책의 가장 큰 비용은 국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이렇듯 관용적인 외교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¹⁶⁷⁾

(2)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간의 제도적 협력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평화의 조건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애초 관심은 국제적 경제협력이 있었으나, 이론적 개념의 세련화와 확장을 통해 안보문제로까지 관심을 확대해왔다.¹⁶⁸⁾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은 일차적으로 확장된 제도개념에 있다. 자유주의 계열에 속한 구체도주의는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국제제도를 개별국가들의 정책조정과 이를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지역통합이나 국제기구와 동일시하며,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국제제도를 독립, 평화, 조

166) *ibid.*, pp.48-53.

167) *ibid.*, p.54.

168) R.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p.15.

약준수와 같은 국가의 일반적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세력균형 또는 외교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신자유주의는 이렇듯 상이한 기능주의와 현실주의의 시각을 포괄하여 새로운 제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키오헨은 제도를 “행위역할을 지시하고, 행동을 제한시키며, 기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지속적이고 연결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규칙들”이라고 규정하고,¹⁶⁹⁾ 제도의 구체적 형태로서 ① 국제기구와 같은 공식적 제도, ② 특정한 이슈에 대해 국가간에 합의된 명백한 규칙을 갖는 국제레짐, ③ 관습과 같은 비공식 제도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¹⁷⁰⁾ 이처럼 제도개념의 확장은 국제협력의 조건과 발전가능성을 규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즉 국제기구나 레짐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국가관계에는 관습의 형태로 제도적 협력이 가능하며, 관습이 국제레짐으로 발전 내지 확대됨으로써 제도화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협력을 상호정책 조정을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목적지향적 행위로 파악한다. 협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계획과 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¹⁷¹⁾ 물론 키오헨은 국제협력이 반드시 윤리적인 가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¹⁷²⁾ 예컨대 몇 개 국가가 협력하여 약소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협력의 제도화는 국제적 안정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가 현실주의와는 달리 역사의 진보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제도화의 발전은

169) *ibid*, p.3.

170) *ibid*, pp.3-4.

171) *ibid*, p.11

172) *ibid*, p.159; R O. Keohane, *After Hegemony*, p.11.

국제적 안정과 나아가 평화의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협력을 가능케할 뿐더러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의 기능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설명으로부터 평화의 조건들을 추론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이론의 핵심 전제조건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국가간 상호이익과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협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는 상호이익을 가진 국가들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자유주의는 협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을 ‘속임수의 위협(threat of cheating)’에서 찾으며, 이를 ‘정치적 시장의 실패’라고 표현한다.¹⁷³⁾ 제도는 그러한 시장의 실패를 교정 내지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도는 속임수가 단기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의 규칙을 지키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키오헨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빌려온 ‘코저의 정리(coase theorem)’을 바탕으로 제도(레짐)의 핵심적 기능을 세가지로 요약한다.¹⁷⁴⁾

첫째, 일련의 문제영역들 내에서 국가수준의 법체계는 아니라도 참여 행위자들의 기대를 모으거나 또는 이탈자에 대한 공동의 제재를 위해 합의된 규칙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법적 의무’와 유사한 행위양식을 창조한다. 이러한 행위양식은 짧은 기간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호성’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¹⁷⁵⁾ 상호성의 전제조건으로 협

173) R. O. Keohane, *After Hegemony*, p.85.

174) *ibid*, pp.88-98.

175) R.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s*, pp.137-51 참조.

력지향적인 행위자는 더욱 큰 이익을 보장받는 데 반해, 속임수를 쓰거나 이탈하는 자는 응징을 받는다는 규범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호성의 전략적 적용은 결코 쉽지 않다. 행위자가 두 명일 경우 상호성(specific reciprocity)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지만, 행위자가 많을 경우 상호성(diffuse reciprocity)은 즉각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연속적인 형식을 띠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행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¹⁷⁶⁾

둘째, 제도는 정보의 양을 증대시킴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속임수에 대한 우려는 정보의 부족에서 연원하기 때문에 일탈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단순히 정보의 부족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량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정보가 충분할 경우, 협력의 이탈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무임승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여 협력을 증대할 수 있다.

셋째, 제도는 행위자들간의 협상과정에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낮출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규범이나 정보의 양적 확대를 통해 행위자들은 협상과정에서나 협정의 준수를 감시하는 데 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비용이 감소될 경우, 과급효과 덕분에 생산적인 사안별 연계가 쉽게 발생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의 전반적 확산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제도의 원칙과 합치되지 않는 파괴적 연계는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해 더욱 발생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제도(레짐)의 주요 기능은 충분조건은 아니라도 국제협력을

176) 키오헨은 '특화된 상호성'은 대체로 의무규범이 약한 제도에서, '분산된 상호성'은 의무규범이 존재하는 제도에서 적합하다고 말한다. *ibid.*, p.151.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의 길을 모색해 가는 필요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자유주의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이론도 서구국가들 또는 이들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이들 이론에서 개발된 개념들과 설명틀을 어느 정도 가공할 경우, 비서구국가들에게도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자유주의 계열에 속하는 이론들의 전반적인 논리구조에 따르면, 비서구국가들 또는 이들의 국제관계에는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이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이 암시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다양한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묶기가 매우 힘들지만, 물질에 초점을 두는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후기 실증주의(post-positivism)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구성주의를 “물질세계가 형성되는 — 특히 인간 행위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 방법이 물질세계에 대한 규범 및 인식론적 해석에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view)”¹⁷⁷⁾으로 정의하는 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구성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이해를 위해 키오헨이 말하는 ‘재귀적 접근(reflective approaches)’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 개념이 국제정치학에 도입되기 이전에 키오헨은 ‘재귀적 접근’이란 용어로서 구성주의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실증주의를 표방하는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들을 ‘합리적 접근’으로 명명하고 이를 비판하는 이론들을 재귀적 접근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

177)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p.322 참조.

했다. <표 III-4>는 합리적 접근과 재귀적 접근에 대한 키오헨의 비교를 요약한 것으로서 구성주의의 특징을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준다.

<표 III-4> 합리적 접근과 재귀적 접근의 비교

	합리적 접근	재귀적 접근
학 과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회학자, 맑시스트, 정치사상 및 이론가, 전통적 국제법학자 등
관 심 의 초 점	개인의 선호를 외적으로 주어진 것(확일적 또는 상수)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도는 제도적 장치와 주도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인간 및 조직의 선호에 대한 반성 및 학습의 사회적 과정의 영향 중시
방 법 론	합리성 원칙의 결정론에 대해 약간의 이견은 있으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깊은 신뢰(I. Lakatos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서에 대한 해석을 중시 · 과학적 방법에 대한 한계를 강조
분 석 행 태	항상 문맥적(contextu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본질, 즉 궁극적으로는 세계정치의 특성에 대한 인간의 반성 (human reflection)을 중요시
분 석 대 상	이익의 계산(calculations of interests) 및 효용의 극대화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격적인 사회의 힘, 문화·관습·규범·가치의 영향 중시 (intersubjective meanings) · 제도의 역사성 및 내재적 동력에 관심
연 구 현 황	연구프로그램 풍부	연구프로그램 부족

출처: R.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pp.166-74.

국제정치학에서 구성주의의 개념은 1989년 오너프(N. Onuf)가 처음 도입한 이후 1992년 웬트에 의해 확산되기 시작했다.¹⁷⁸⁾ 웬트는 국제정치적 행위가 물질적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재귀적 접근을 구성주의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오너프의 애초 관심은 모든 종류의 사회질서에 있었다. 즉 국제사회에도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류 국제정치학에서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홉스적 무정부상태 개념으로는 국제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현실주의의 이론적 기반인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이론에 대한 비판과, 언어와 사회적 실천을 바탕으로 사회의 구성방법을 규명하려는 후기실증주의적 관심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제정치이론을 정립하고자 했다.¹⁷⁹⁾

초기 구성주의는 합리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맥락에서 재귀적 접근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이론적 전통의 다양성 탓에 구별의 필요성이 점차로 제기되었다. 구성주의 패러다임 내에서 이론적 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뚜렷한 기준으로는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즉

178) Nicholas G. Onuf, *World of Our Making: Rules and Rule in Soci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9); Marlene Wind, "Nicholas G. Onuf: the rules of anarchy,"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p.236-68;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p.393 참조

179) 오너프는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통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 효용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패러다임(국제정치이론의 자유주의와는 구분되는 철학적 의미), 구성주의적 패러다임, 그리고 맑스주의적 패러다임이다. 그는 맑스주의적 패러다임은 논외로 하고, 주류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패러다임과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의 긴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국제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다. Marlene Wind, "Nicholas G. Onuf: the rules of anarchy," p.239, 241 참조

실증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지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비판적 구성주의’와 ‘재래적 구성주의’로 구분된다. 양자의 구체적 차이는 <표 III-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II-5> 재래적 구성주의와 비판적 구성주의의 비교

	재래적 구성주의	비판적 구성주의
방법론과 인식론	· 정상과학(실증주의) 인정	· 반실증주의
관찰자와 분석대상의 관계	· 분석대상과 관찰자의 상호주관적 의미연결 배제	· 분석대상과 관찰자는 분리될 수 없음
정체성에 대한 이해방식	· 정체성 및 관련된 재생산적 사회적 실천 발견과 정체성과 행위간의 상관성(인과성) 설명	· 정체성규명을 원하되, 정체성과 관련된 신화를 밝히려 함
정체성의 원천(origin)	· 정체성의 인식적 설명을 수용 · 정체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의 재생산 및 효과를 이해하기 원함 · 정체성을 갖기위해 타자의 존재가 필요(지배관계의 차이를 인정)	· 정체성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어떤 형태의 소외에 초점 · 정체성의 원천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특화 · 동등한 자격일 때는 동화, 상하관계에서는 지배관계에 중점
권력개념	·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분석적 중립유지 · 권력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또 사회적 실천은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권력 관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존재하는 권력에 초점 · 그러한 권력관계의 규명하는 것이 이론의 핵심
국가의 지위	· 존재론적 지위를 인정	· 국가의 존재론적 지위는 논쟁거리이며, 그것의 자율성은 인정될 수 없음

출처: Ted Hopf,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p.182-85

이러한 구분과 더불어 비판적 구성주의에 속하는 이론들은 비판국제이론, 포스터모던 국제이론, 페미니스트 국제이론 등으로 기존의 사회학적 연구전통에 따라 고유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구성주의는 좁은 의미에서 ‘재래적 구성주의’를 지칭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앞으로 구성주의는 주로 좁은 의미로 사용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재래적)구성주의에 속하는 이론들은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역사주의)의 대립을 조화시킴으로써 고유의 과학적 접근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특히 이해(verstehen)와 해석이 체계적인 사회과학의 설명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두고, 구성주의자들은 실증주의자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극단적 대립을 화해시키고자 한다. 실증주의자들은 이해를 “관찰자가 감정이입적 이해와 패턴인지를 통한 해석”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판단이 체계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지 않을 경우 관찰자의 개인적 관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¹⁸⁰⁾ 이에 반해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인식기반 자체를 부정(anti-foundationalism)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오로지 언어를 통해서만 세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담론해석만을 고집한다. 구성주의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추종하지는 않지만, 이로부터 이해의 존재론적 함의를 찾아내고 있다. 즉 규범, 과학적 이해, 외교실천, 군비통제 등은 사회적 현실로서 여기에는 이미 이해와 해석이 내재해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구조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행위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생산되기 때문이다.¹⁸¹⁾ 따라서 구성주의는 해석이 현실의 사회적 구성을 설명하려는 과학적 시도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180) Judith Goldstein & R. O. Keohane, "Ideas and Foreign Policy: an Analytical Framework,"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eds. by J. Goldstein & R.O.Keohnae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3), p.27 참조.

181)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pp.326-28 참조.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 이론들은 철학 및 사회과학적 기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웬트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주의적(naturalistic) 구성주의’와 오너프, 러기 등의 ‘신고전적 구성주의’이다.¹⁸²⁾ 인식론적 차이만을 두고보면, 웬트는 ‘과학적 실재론(scientific realism)’을 근거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¹⁸³⁾ 그는 자연과학에서도 먼저 논리적으로 추론되고 나중에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예를 든다. 이에 비해, 러기(J. Ruggie), 오너프(N. Onuf), 크라토크빌(F. Kratochwil), 아들러(E. Adler) 등은 뒤르켕(E. Durkheim)의 ‘집단 표상’ 개념, 베버(M. Weber)의 과학적 설명과 해석적 이해의 융합 시도, 포퍼(K. Popper)의 ‘세계 3’ 개념을 인식론적 기반으로 삼는다.¹⁸⁴⁾

182) John G. Ruggie, "What Makes the World Hang Together? Neo-Utilitarianism and the Social Constructivist Challenge," pp.880-82; Friedrich Kratochwil, "Constructing a New Orthodoxy? Wendt's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Constructivist Challenge,"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9, No.1 (2000), pp.94-97 참조.

183)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p.350-55 참조.

184) 뒤르켕은 사회적 삶에 있어서 이념적 요소는 개인 차원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의 총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실체로 간주하고, 이것의 생산물을 ‘집단표상’이라고 불렀다; 실증주의와 역사주의를 모두 비판했던 베버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이념(Ideen)이 아니라 (물질적 및 관념적) 이익(materielle und ideelle Interessen)이다. 그러나 이념들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상들(Weltbilder)은 종종 전철수(Weichensteller)로서 선로를 결정해왔으며, 그 속에서 이익들의 역동성이 행위를 진전시켰다.”; 포퍼는 우주를 세계의 하위세계로 구분한다. ‘세계1’은 물질적, ‘세계2’는 주관적, ‘세계3’은 문화적 세계로 각각 규정되고 이들은 존재론적 실체를 가진다. Max Weber, "Die Wirtschaftsethik der Weltreligionen,"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I, 4. Auflage (Tübingen: Mohr, 1947), p.252; John G. Ruggie, "What Makes the World Hang Together?" pp.857-62;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이외에도 양자간의 차이는 <표 III-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II-6> ‘신고전적 구성주의’와 ‘자연주의적 구성주의’의 비교¹⁸⁵⁾

	신고전적 구성주의	자연주의적 구성주의
인식론	· 실용주의 및 진화론적 인식론(M. Weber, E. Durkheim, K. Popper)	· 과학적 실재론(R. Baskar)
존재론	· 정치과정에 초점 · 언어행위이론(J. Searle), 소통행위이론(J. Harbermas)	· 정치구조에 초점 · 구조화이론(A.Giddens)
방법론	· 기존의 사회과학적 전통 유지 · 다양성과 사회성 강조(정치적 자유주의의 전통에 접맥)	· 새로운 자연주의적 사회과학 모색 · 체계이론 정립 모색(현실주의적 방법론에 접맥)
대표적 학자	Ruggie, Adler, Finnemore, Onuf, Katzenstein, P.Haas, Kratochwil	Wendt, Dessler

그러나 이상과 같은 구분들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 닿아있는 철학적, 이론적 전통들이 너무나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명쾌한 구분은 사실상 어렵다.¹⁸⁶⁾ 더구나 구성주의의 이론적 논쟁 및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pp.327-28; 신중섭,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1992), p.105 참조.

185) 이 분류는 러기의 분류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John G. Ruggie, "What Makes the World Hang Together?" pp.880-82;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pp.335-36 참고.

186)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준 철학적·이론적 흐름의 계보학적 규명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Vendulka Kubalkova, "The Twenty Years' Catharsis: E.H. Carr and 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pp.42-43.

발전과정에서 이론가들의 철학 및 사회학적 지식 확대와 더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논점의 일치와 경쟁이 교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구성주의의 작업이 메타이론적 차원에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아직은 고유한 연구프로그램을 풍부하게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상당부분 연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는 사회학 이론들의 풍부한 연구결과 — 언어행위(speech act)이론, 의사소통이론, 사회학적 제도주의, 포스트모던의 발생학적 접근 등 — 를 국제정치학에 도입함으로써 미시경제학적 접근에 치중했던 주류 국제정치이론들을 보완(대체가 아니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 핵심가정

실증주의적 과학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구성주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분석틀, 전이론(pre-theory), 또는 ‘과정(process)의 이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¹⁸⁷⁾ 무엇보다 구성주의가 사용하는 개념적 요소들, 즉 문화, 규범,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또한 문화이론으로 과학적 인과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성주의는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몰두한다. 다시 말해서 개념적 요소들이 서로간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으며, 영향을 주고받는가에 대해 관심을 둔다.

또한 구성주의는 이론의 성립요건인 분석수준의 선택에 대해서 합

187) Ted Hopf,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196;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7-8 참조.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정치학에서 구성주의는 크게 두가지 경향을 보인다. 국가행위자 중심의 체계이론을 정립하려는 웬트의 작업과 이와 달리 체계적 이론화보다 현실세계를 가능한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 모든 인식 및 존재론적 접근을 절충하는 전체주의적(holistic) 입장(러기, 크라토크빌, 오너프, 아들러 등)이다.¹⁸⁸⁾ 나아가 구성주의는 원칙적으로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특정 세계관을 표방하지 않는다. 구성주의의 규범적 측면을 굳이 따진다면, 사회적 변화의 증진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¹⁸⁹⁾ 실제로 구성주의는 존재론 및 인식론적 차원에서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도전할 뿐이며, 이데올로기적 확산에 의한 반 현실주의 내지 반자유주의는 아니다.¹⁹⁰⁾ 오히려 대다수의 구성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전통에 접맥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진화론적 발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성격 탓에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달리 이론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핵심가정을 정리하기 쉽지 않으며, 가정들도 대체로 메타이론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188) Richard, Price & Christian Reus-Smit, "Dangerous Liaisons? Critical International Theory and Constructivism,"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 No.3 (1998), pp.268-69; 특히 웬트는 사회과학의 기반 위에 역사주의적 해석방법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신현실주의를 역사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rik Ringmar, "Alexander Wendt: science v. history,"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285 참조.

189)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20, No.1 (1995), p.74.

190)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p.323.

가정 1: 국제관계의 현실은 지식과 사회적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

구성주의는 기존 국제정치이론들이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채택하고 있는 일련의 가정들에 대해 근본적 차원에서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실증주의에 사로잡힌 기성 국제정치학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광범한 철학적 기반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이 맥락에서 구성주의는 이념(ideas)이 물질적 세계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구성주의가 주목하는 이념은 단순히 인간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뒤르켐의 ‘집합표상’이나 포퍼의 ‘세계 3’ 개념과 같이 개인적 인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지식이다. 즉 언어적 실천, 종교적 신념, 도덕적 규범 등과 같이 사회적 설명이 필요한 상호주관적(또는 공유) 지식이 관심의 대상이다. 물질세계에 대한 공유지식의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종이에 불과한 지폐가 돈이라는 물질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규칙(rules) 덕분”¹⁹¹⁾이라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입증된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규칙과 규범으로 구체화되는 공유지식을 탐구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사회 및 정치적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들은 규칙과 규범을 국가의 합리적 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 데 반해, 구성주의는 규칙과 규범들을 이익형성의 매개변수로 이해한다. 즉 규칙과 규범은 누가 행위자이고, 특정한 결과를 추구하길 원할 경우 따라야 하는 법칙이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자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소멸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국제적 게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칙과 규범

191) 이는 구성주의자들에 의해 종종 활용되는 언어철학자인 서얼(J. R. Searle)의 비유이다. *ibid*, p.328.

은 국가가 어떠한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단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뿐이다.¹⁹²⁾ 이러한 규칙과 규범에 대한 관심은 곧 행위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구성주의는 언어철학, 특히 언어행위이론에 입각하여 행위를 언어와 일치시킨다. 즉 어떠한 국가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언술은 단지 단어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위 그 자체라는 것이다.¹⁹³⁾

가정 2: 국제사회의 질서는 행위주체와 구조의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구성주의의 관심은 사회라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구조의 개념없이 사회적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주의의 구조개념은 신현실주의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신현실주의의 구조는 무정부상태에서 사실상 국가들 간의 능력배분으로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구조개념은 행위주체의 속성을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서 자체적 동력이나 부분에 대한 전체의 우월적 권위를 전혀 갖지 않는다.¹⁹⁴⁾ 이에 비해 구성주의의 구조개념은 전체로서의 의미, 즉 구조주의가 말하는 구조의 성격을 내포한다.

192) 규범은 행위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행위시 일반적으로 규범 자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존재이유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이 판단된다. 대표적인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들 수 있다. 규범의 주요 특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규범으로서 계속해서 유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범이 생성되면, 기존의 규범은 대체된다. 대개의 경우, 규범의 변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193) 언어행위이론과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Nicholas Onuf, "Constructivism: A User's Manual,"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pp.66-69 참조.

194) R. Ashley, "The Poverty of Neorealism," pp.286-73 참조.

그렇다고 해서 세계체제론과 같이 행위주체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구조도 아니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행위주체와 구조는 상호의존적이며, 규칙을 매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¹⁹⁵⁾ 규칙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유지식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행위자에게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개념이다. 규칙의 매개방식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주체는 어떠한 실천을 행할 경우, 규칙의 도움을 받아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규칙에 따른 행위주체의 선택결과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 그 규칙은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안정적인 패턴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런 행위가 반복될 때, 그 패턴은 제도로서 자리잡으며, 제도는 행위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복잡한 현실세계에서 규칙이나 제도에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의도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경우,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는 대표적 사례이다(‘이성의 간계’). 중요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안정적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너프는 이렇듯 규칙, 제도,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안정적 패턴을 가질 때, 사회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¹⁹⁶⁾ 이처럼 구조가 행위주체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주체도 구조의 속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구조는 물질적 존재는 아니지만, 마음의 눈으로 인식되는 현실인 것은 분명하다. 일단 행위주체가 구조를 인식하는 순간, 이미 구조는 행위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¹⁹⁷⁾ 이는 행위자의 실천이 항상 규범, 제도, 문

195) 행위주체와 구조의 매개체로서 규칙의 작용에 대해서는 Nicholas Onuf, "Constructivism: A User's Manual," pp.59-62 참조.

196) *ibid.*, p.61.

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주체와 구조의 관계를 상호의존적으로 파악하는 구성주의의 시각은 기든스(A. Giddens)의 구조화(structuration)이론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구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회구조는 행위주체의 자기이해(정체성 형성과 변화)와 구체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반면, 역으로 행위주체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인과적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기도 하다.¹⁹⁸⁾ 웬트의 존재론적 입장은 기든스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다. 오너프의 경우, 기든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적어도 구조화 이론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든스와 오너프의 주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¹⁹⁹⁾ 기든스는 규칙들을 구조의 속성으로 보는 데 반해, 오너프는 규칙을 구조로 파악하기보다 행위주체와 구조를 매개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주의자들은 존재론적 의문의 해결 실마리를 주체와 구조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구성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무정부상태를 제도화되지 못한 무질서의 상태가 아닌 일종의 제도적 질서로 간주한다. 오너프는 무정부상태를 어떤 한 국가 또는 국가들의 어떤 집단이 여타 국가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규칙의 한 조건으로 파악한다.²⁰⁰⁾ 웬트도 “무정부상

197) Harry D. Gould, "What Is at Stake in the Agent-Structure Debate?"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p.82

198)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p.355-61 참조.

199) 기든스와 오너프의 차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Harry D. Gould, "What Is at Stake in the Agent-Structure Debate?" pp.80-81.

200) Nicholas Onuf, "Constructivism: A User's Manual," p.62 참조.

테는 국가가 만들기 나름(anarchy is what state make of it)”이라고 말하며, 안보딜레마를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간주한다.²⁰¹⁾ 안보딜레마는 주체의 차원에서는 상호성 내지 상호의존의 문제에서, 그리고 구조의 차원에서는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공유지식(shared knowledge)구조의 문제에서 각각 발생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존재론은 주류 국제정치이론에 대해 매우 중요한 비판적 논거를 제시한다. 즉 제도는 국가행위를 단순히 제약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행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관계 현실에 그러한 존재론을 적용할 경우, 행위주체와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행위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에 참여해야 하며, 또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²⁰²⁾ 웬트는 국가를 국제관계의 중심적 행위주체로 간주한다. 이 경우, 주체와 구조의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국제정치에서 주체와 구조의 관계는 이처럼 단층적이지 않다. 개인이나 사회집단도 국제사회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사회, 국가, 지역적 국제사회, 범세계적 국제사회는 각각 상이한 층위에서 주체와 구조관계를 맺을 수 있다. 신고전적 구성주의자들은 그러한 맥락에서 국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전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정 3: 국가이익은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에 의해 결정되며, 양자는 끊임없는 정치적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

201)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pp.75-79 참조.

202) 행위주체(agent)란 개념에는 사람들 또는 집단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만약 대표자가 기관이라면, agency로 표기될 수 있다. Nicholas Onuf, "Constructivism: A User's Manual," pp.59-60 참조.

국가이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주어진 어떤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며, 구조적 자유주의는 국가-사회의 관계에서 효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구성주의는 국가이익이 단순히 집단이익의 집합도, 또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적 개인의 이익도 아니라고 말한다. 국가이익의 근원을 찾기 위해 먼저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구성주의적 설명이 필요하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권력은 단순히 타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기 위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 이익, 국가의 실천행위 등을 구성하는 공유의미(shared meanings)를 결정하는 권위이다.²⁰³⁾ 사회적 현실이 의미부여의 소산이라는 구성주의적 논지를 감안하면, 권력과 지식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국가이익은 “권력과 지식이 배분되어 있는 어떤 사회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인정된 권력, 영향력, 재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관한 상호주관적 이해”²⁰⁴⁾로 간주될 수 있다. 즉 국가이익은 인간의 동의와 물질적 대상에 대한 집합적 의미부여에 의존한다. 이는 곧 국가이익과 ‘우리’라는 정체성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국가이익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웬트는 사회적 정체성을 “행위자가 사회적 객체인 타자들의 관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의미의 집합”²⁰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 정체성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행위주체와 기관의 성격과 목적을 규정하는, 상호주관적이고 사회적으로 허용되

203)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p.336 참조.

204) *ibid*, p.337

205)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8, No.2 (1994), p.385 참조.

며 또 제도화된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정체성은 행위의 일차적 원천인 동시에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기반이다. 정체성은 행위주체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과 다양한 형태의 집단정체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집단정체성의 한 형태인 국가정체성은 주권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주권은 그 자체로서 개인의 자유와 같은 독립적인 행위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주권이 국가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국내적으로 배타적·위계적인 정치질서를 조직할 수 있으며, 또 국제사회에서 타국과 경계를 짓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권에는 국가와 국제사회의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²⁰⁶⁾

그렇다면, 국가이익의 형성과정은 국가의 ‘안과 밖’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정체성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정체성과 이익의 상호관계는 사회화 및 정치과정에 대한 비교정치학의 연구영역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무정부적 국제사회에서도 이익에 관한 상호주관적 이해가 성립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권의 배타성에 초점을 맞춰 국가이익을 개별국가 차원에서 찾았던 기존 국제정치이론들과 달리, 구성주의는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정체성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도 집단정체성이 형성 내지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제적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집단정체성의 존재를 입증해 준다. 국제사회에서 집단정체성이 사회적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이익이 타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성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²⁰⁷⁾

206) *ibid.*, p.388; Christian Reus-Smit,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Nature of Fundament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1, No.4 (1997), p.565 참조.

국가정체성과 이익은 국가의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정치적 과정을 겪기 때문에 항상 변화의 역동성을 내재한다. 또한 ‘안과 밖’에서 형성·변화하는 정체성과 이익은 주체와 구조의 상관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한다. 냉전시기와 같이 ‘안과 밖’에서 국가정체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 합리주의자들이 가정하는 고정된 이익이 국가행위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치적 과정 속에서 변화는 지속되었으며, 냉전종식도 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탈냉전과 같은 격변의 시기에는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통한 국가이익의 변화 과정이 분명하게 부각된다.

나. 평화의 조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회는 변한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규범적 가치를 표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성주의 이론은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이 이론의 출발 조건(initial conditions)을 갈등이나 협력의 어느 한쪽에 치중시키지 않는다. 전쟁과 평화 또는 갈등과 협력의 문제에 대한 구성주의적 기본입장은 게임이론처럼 분석적 중립성을 가진다.²⁰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가 협력과 평화를 지향하는 이론으로 비춰지고 있는²⁰⁹⁾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구성주의는 주로 신현실주의를 비판하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이며, 둘째로 구성주의자들의 대다수가 자유주의 내지 제도주의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7)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p.388.

208)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p.76.

209) John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pp.37-47 참조.

구성주의는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전쟁, 세력균형 등과 같은 현실정치(realpolitik)를 실천해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로지 그러한 실천만이 있어왔던 것처럼 말하는 현실주의를 비판한다. 국제관계의 역사는 국가들이 국제법적 규칙이나 제도적 제한을 받아왔으며, 심지어 전쟁과 안보딜레마가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현실주의는 국가가 왜 전쟁을 하는지의 이유를 설명(explanation)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현실정치를 있는 그대로 묘사(description)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²¹⁰⁾ 더구나 현실주의자가 강조하는 무정부상태도 반드시 전쟁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비록 무정부상태에서 전쟁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possibility)이 곧 개연성(probability)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정부상태라고 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²¹¹⁾ 이처럼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구성주의가 상대적으로 평화와 협력에 더욱 가깝게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구성주의의 제도 개념은 엄격한 의미에서 객관적이다. 즉 제도는 갈등적일 수도 협력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정부상태의 국제관계에서 제도는 현실적으로 협력지향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합리주의자들도 제도가 국가의 무한한 권력 및 이익추구를 규제함으로써 갈등완화와 협력증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구성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도의 규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창조하는 기능이 있음을 보

210)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p.76.

211) 이와 관련하여 웬트는 미국이 영국의 군비증강에 대해서는 안보공동체적 시각으로 보는 반면, 북한의 군비증강에 대해서는 안보딜레마로 간주하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다. *ibid*, pp.77-78 참조.

여준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설명은 역사의 진보를 믿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제도의 발전에 관해 설명하지 못했던 의문을 해결해줄 수 있다.

요컨대 구성주의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평화의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체와 구조의 관계, 정체성과 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통해 제도의 구성과 발전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제시된 평화의 조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규명해준다. 특히 구성주의를 적용한 사례연구의 결과들은 갈등억제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천방향과 관련하여 정책적 상상력을 제고시키기에 충분하다. 몇가지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가의 안보정책이 단순히 국제체계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적 사회문화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결과들이다. 구성주의적 설명에 따르면, 전쟁의 발생 및 억제가 국가간의 상대적 이득을 고려한 전략적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는 현실주의의 설명은 현실세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레그로(Jeffrey W. Legro)의 연구는 2차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 영국, 독일의 군사전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배경과 관련하여 국가선호가 상대적 이득 계산의 이전에 각국 군부의 조직문화적 특성과 상관성이 있음을 논증한다.²¹²⁾ 즉 현실주의적 설명에 앞서 국가선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문제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국가의 특정 전쟁수행 전략은 군부의 문화와 상응할 때 비로소 채택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전략은 타국과의 능력비교를 통해 상대적 이득 또는 승산을 인정받을 때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¹³⁾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제관계에서 협력에 관한 선호형성과 변화를 제

212) Jeffrey W. Legro, "Culture and Preferences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wo-Step," pp.118-37.

213) *ibid.*, p.123.

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외교정책적 선호의 원천과 문화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레그로의 논지는 2차세계대전 직전 프랑스의 군사전략에 대한 키어(Elizabeth Kier)의 연구²¹⁴⁾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녀는 당시 프랑스의 방어위주 전략이 군부의 행위양식에 대한 일반적 가정 — 즉 군부는 세력균형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군사전략을 입안하기 때문에 공격적 전략을 선호한다는 가정 — 의 오류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만약 히틀러의 위협을 세력균형적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면, 프랑스 군부는 공격적 전략을 수립했어야 마땅했기 때문이다. 그녀에 따르면, 그러한 일반적 가정의 오류는 흔히 군부의 사회적 역할을 기능적으로 바라본 데 기인한다. 그러나 실제로 군부는 민간사회의 문화적 영향력 하에 있다. 즉 군부도 국제체제의 구조를 생각하기에 앞서 권력의 국내적 배분에 일차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사회의 문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¹⁵⁾

둘째, 정치엘리트를 포함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집단정체성이 국가 이익과 외교정책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이다. 허만(R. G. Hermann)은 1980년대말 소련의 개혁정책과 신사고(New Thinking)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한다.²¹⁶⁾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소련의 체제위기가 매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데 비해, 자유주의자들은 풍부한 변수들과 인과관계를 들어 소련의 외교정책 변화를 보다

214) Elizabeth Kier, "Culture and French Military Doctrine Before World War II,"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pp.186-215.

215) *ibid*, p.187 참조.

216) Robert G. Hermann, "Identity, Norms, and National Security: The Soviet Foreign Policy Revolu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pp.271-316.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은 개혁정책의 핵심이념을 배태한 사회적 과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합리주의자들은 소련의 외교정책 변화를 국제적 또는 국내적 필요성에 따른 전략적 적응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허만은 당시 소련의 지식층, 당 및 정부고위관료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각종 문서조사를 바탕으로 신사고가 서구체제 지향적 개혁주의자들의 인식적 진화의 산물인 동시에, 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혁을 통해 국내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정치지도자 고르바초프의 등장이 맞물려 시도된 진취적 정책기획이었다고 결론짓는다.²¹⁷⁾

허만에 따르면, 소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소련의 개혁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크게 두가지 요소로 구성된 개혁지향적 이념을 서서히 키워왔다. 한가지는 소수 전문가들이 주로 1970년대 서구 자유주의 내지 좌파 정치세력과의 개별적 교류를 통해 배웠던 서구민주주의적 정치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블록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 드러난 인류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이었다.²¹⁸⁾ 이러한 두가지 요소가 개혁정책의 기반이었다는 것을 더욱 결정적으로 확정해 주는 근거로서 허만은 당시 지도부가 누적되어왔던 경제적 침체의 교정을 위해 훌륭한 대안으로 논의되었던 아시아식 개발독재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다.²¹⁹⁾

나토동맹의 성립배경에 관한 리세-카펜(T. Risse-Kappen)의 연구²²⁰⁾는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집

217) *ibid.*, p.273.

218) *ibid.*, p.275.

219) *ibid.*, p.312 참조.

220) Thomas Risse-Kappen, "Collective Identity in a Democratic Community: The Case of NATO,"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pp.357-99, & *Cooperation among Democracies: The European Influence on U.S.*

단정체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흔히 현실주의자들은 2차대전 직후 소련의 위협이 나토성립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탈냉전시기 나토의 존속 및 발전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리쎄-캄펜은 애초 소련의 위협에 대해 유럽과 미국간에는 커다란 인식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유럽인에게는 소련으로부터의 위협 인식이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갖는 데 반해, 미국인은 그러한 위협인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과 미국이 소련의 위협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은 전후 국내 및 국제질서에 대한 서구와 소련간의 근본적 이념(세계관) 차이 때문이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소련의 위협인식이 서구민주국가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나토 내의 자유민주적 집단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는 나토를 중심으로 공통의 가치와 집단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를 민주적 원칙과 결정규칙을 존중하는 나토조직의 다자주의적 성격에서 찾는다.²²¹⁾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탈냉전시기에도 나토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자유주의에 의해 제시된 평화의 조건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평가 또는 재확인하는 연구들이다. 아들러는 도이취의 안보공동체, 하스의 유럽공동체, 그리고 카의 '평화의 조건'을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체성의 변화가 관건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낸다.²²²⁾ 특히 현실주의의 대부인 카도 유럽평화는 민족국가단위를 넘어 국제공동체의 기반 위에 군사적·경제적 통제를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²²³⁾는 점을 강조한다. 흔히 현실주의자들은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5) 참조.

221) *ibid.*, p.378.

222) Emanuel Adler, "Condition(s) of Peace," pp.165-91 참조.

카의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에만 주목하지만, 실제로 그는 현실주의도 비판했으며, 이상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옹호하기도 했다.²²⁴⁾ 물질적 세계와 권력이 목적지향적이고 의미있는 행위를 매개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사는 권력관계와 시대의 집단이념에 의해 사회적으로 그 가능성이 확보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카의 인식을 근거로 아틀러는 권력과 사회인식 과정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재확인한다.

아틀러는 안보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²²⁵⁾ 전쟁의 위협은 사라질 수 있지만, 비군사적 안보딜레마, 즉 전쟁이 아닌 형태의 강제적 권력의 사용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군비감축과 협력안보의 실천은 적극적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조건들을 창조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서 그는 세가지 점을 열거한다. ① 상호 친밀성과 공동이익을 발견하는 것을 돕는 의사소통 과정의 증진, ② 지역갈등을 일정수준으로 묶어두는 동시에 상호거래, 제도, 학습과정의 발전을 촉진, ③ 평화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충족된 지역에서 불안정의 확산과 침략적 실천을 억제하는 것이다.²²⁶⁾

구성주의는 특히 경험적 조사를 기반으로 출발한 민주평화론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²²⁷⁾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내의 제도와 규범에 초점을 맞

223) E. H. Carr, *Conditions of Peace* (London: Macmillan, 1942), p.123 & 274, *ibid.*, pp.70-71에서 재인용.

224) Ken Booth, "Security in Anarchy: Utopian Re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Affairs*, No.67 (1991), p.531 참조.

225) Emanuel Adler, "Condition(s) of Peace," p.180.

226) *ibid.*, p.185 참조.

227) Colin H. Kahl, "Constructing a Separate Peace: Constructivism, Collective Liberal Identity, and Democratic Peace," pp.94-144 참조.

취 민주평화론을 설명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설명에는 국제체계 수준의 설명이 간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수준에서도 자유민주적 제도와 규범이 평화적 외교정책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재생산되는가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하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설명의 빈칸을 메우는 데 구성주의의 상호주관적 집단정체성 개념은 매우 적절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성주의의 연구결과들은 현실세계의 평화적 변화가 발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미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구성주의는 인과적 설명에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어떤 행위가 의도한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곧 미래에 대한 예측의 한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현상에는 우연적 요소가 곳곳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미래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미래예측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는 합리주의의 탈역사적 관점을 보완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즉 구성주의는 국제관계의 현안에 대한 대안모색과정에서 물질적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합리주의의 판단오류를 교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IV.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이론적 논점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경험적·귀납적이거나 규범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경우에 따라 특정 이론이나 패러다임에 입각한 접근이 간헐적으로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²²⁸⁾ 이러한 기존의 연구경향은 이슈 자체의 성격, 즉 한반도 평화문제에 내재한 복잡성과 포괄성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로 목표의 복잡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이론들, 특히 국제정치이론에서 평화는 핵심적 가치이자 궁극적 목표로 간주된다. 이에 비해 한반도 평화문제에는 두가지 목표가 공존한다. 즉 평화 자체가 하나의 목표인 동시에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수단적 의미로서 중간목표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 접근을 위해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개념규정은 넓은 의미에서 개념적 틀 또는 이론 정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범위의 포괄성 탓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국내환경, 남북한 관계, 국제환경의 차원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연구에는 필연적으로 ‘분석수준’의 문제가 제기된다. 1980년대 국

228) 최근 시도되기 시작한 이론적·연역적 연구는 주목할만 한다. 한국정치학회의 2000년도 추계학술회의(2000. 10. 21)에는 이와 관련한 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발표자들이 대부분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 이론연구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용에 한계를 노정했다. 따라서 이들의 접근은 아직 시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양준희,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정진영,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김태현, “현실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구갑우, 박건영,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이근, “구성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참조.

제정치학계의 논쟁들을 통해, 현실세계를 가능한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위’, ‘단위들간의 관계’, ‘구조’라는 세가지 분석수준이 전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특히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석수준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이론적 대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석수준을 강조하는 각 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면, 적어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구성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일거에 설득력 있는 이론이나 모델을 만들어 내려는 과감성 대신에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국제정치이론들의 주요 논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이론적 문제제기와 접근방법의 모색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국제정치이론에서 ‘평화체제’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념화가 요구된다. 학술적 표현으로서 ‘체제’는 대개 ‘시스템(system)’ 또는 ‘레짐(regime)’이라는 이론적 개념의 번역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평화체제는 *peace system* 또는 *peace regime*으로 영역될 수 있다. 굳이 영어 표기를 확인하려는 것은 평화체제가 이론적 맥락에서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을지를 고찰해보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추구해야할 목표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관용어로

자리잡았지만,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화를 위한 진지한 논쟁도 없었다. 수많은 학술논문과 저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란 용어가 사용되어 왔지만, 실제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개념화하려는 본격적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평화체제 구축 방안모색에 초점을 맞춘 몇 개의 논문에서 평화체제의 내용을 밝히기 앞서 나름대로 간략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어떤 학자는 시스템의 일반적 특성²²⁹⁾을, 다른 학자는 국제레짐 이론가들이 사용하는 레짐개념²³⁰⁾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정치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peace system*이란 표현은 매우 생경하며 두 단어의 조합이 도대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시스템이란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사회학적인 기본개념²³¹⁾에 따르면 “통일적으로 질서 지워진 전체의 집합적 배열과 분류”를 뜻하며 여러 단위(개인, 집단, 단체 등)의 서로 연관된 행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현대사회학의 기본범주로 이해된다. 따라서 어떤 시스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구성요건들 — 즉 각 단위요소들의 상호 관계에서 일정한 정도의 통합과 결속을

229)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학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케 하고, 생동하는 평화의 계속적 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체제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서울: 세종연구소, 1998), pp.19-20 참조.

230) 이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는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보다 남북한이 불신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국가의 안보이익을 인정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96-98 참조.

231) Günther Hartfiel & Karl-Heinz Hillmann, *Wörterbuch der Soziologie*, 3. Aufl.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1982), p.747.

의미하는 구조, 다른 시스템 내지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선, 다른 시스템과의 관계를 맺는 특정한 질서, 그리고 시스템내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정한 연속성과 규칙성 — 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식론적·존재론적 문제들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 지향성을 지닌 ‘평화’가 시스템으로 이해되기는 힘들다.²³²⁾

*peace regime*이란 표현 역시 좀 어색해 보인다. 국제정치학에서 평화문제와 관련하여 안보레짐(*security regime*)²³³⁾이란 표현은 즐겨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뜻하는 바를 온전히 만족시키기는 힘들다. ‘한반도 평화체제’에는 이미 안보레짐을 넘어서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개념정의에 따르면, 레짐은 “국제관계의 주어진 이슈영역들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원칙, 규범, 규칙, 결정절차들의 집합”이다.²³⁴⁾ 그러나 국제레짐 이론가들은 학파에 따라 레짐에 대한 관심을 달리하기 때문에 개념적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개념정의만으로 레짐을 선뜻 이해하기 어

232) 예외적으로 갈통은 *peace system*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의 용법에 따르면, *peace system*이란 어떤 국가체제(*state system*)에 폭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라는 체제를 미리 상정하고, 그 체제가 평화롭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이 용어는 맥락상 *peaceful system*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p.60-61 참조.

233) 이와 관련, 대표적 논문으로는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Regimes*, pp.173-94 참조.

234) 여기서 원칙은 경험, 인과, 정당성(*rectitude*)에 대한 신념들이며, 규범은 권리 및 의무의 표현으로 정의되는 행위기준이다. 규칙은 행위에 대한 특정 지시 및 금지이며, 결정절차는 집단적 결정을 내리거나 수행하는 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실천(*practices*)이다. Stephen D. Krasner, "Regimes and the Limits of Realism: Regimes as Autonomous Variables," *International Regimes*, p.2.

렵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레짐은 국제제도의 특수한 어떤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파들간에 레짐의 제도적 성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²³⁵⁾ 또한 국제레짐이 제도적 성격을 갖지만, 제도적 형식을 제대로 갖춘 국제기구와는 구분된다. 1970년대 중반 국제법적 전통을 가진 레짐개념이 국제정치학에 도입된 이래, 국제정치학자들은 레짐을 한편으로는 형식적 제도의 수준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체계적 요소들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시키고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²³⁶⁾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국제레짐은 국제기구와 동반할 수도 있으며, 또 국제기구와 달리 실행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국제레짐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무역레

235) 예컨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은 “국제관계에서 특별한 일련의 이슈들에 관계하며, 국가들에 의해 합의된 명백한 규칙(rules)을 가진 제도”라고 본다. 이들의 레짐연구는 행위자들의 이익과 선호(preference)에 초점을 맞춘다.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p. 4 참조; 이에 반해 구성주의자(constructivist)들은 “국제적 이슈영역에서 특정한 기대들이 모여진 사회적 제도”로 간주한다. 이들은 특히 기대의 결집(convergent expectation) 내지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를 강조함으로써 레짐의 존재론적 의미를 상호주관성에서 찾으며, 규범의 문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Friedrich Kratochwil & John G. Ruggi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state of the art on art of the state,” p.764 참조.

236) 이는 레짐개념이 국제정치학에 도입된 배경을 이해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즉 안보, 국제경제, 역학관계(특히 미국의 패권) 등을 망라하여 2차대전후에 형성된 국제체제의 모습이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며, 기존의 국제제도적 장치들도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관계 현실에 대한 지식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레짐개념의 도입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bid*, pp.759-60 참조; 레짐개념을 처음으로 국제정치학에 도입한 학자는 러기(J. G. Ruggie)이다. John G. Ruggie, “International Responses to Technology: Concepts and Tre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9, No.3 (1975), pp.557-83.

짐, 국제통화레짐, 해양레짐, 통신레짐 등의 명칭을 갖는다. 셋째, 국제레짐의 행위자들은 현실적으로 대개 국가이지만, 비정부단체들과 개인도 행위자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환경분야 레짐들에 특히 관심을 집중하는 인식론적 공동체(epistemic community)적 접근법에서는 비정부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중요시한다.²³⁷⁾ 넷째, 국제레짐은 정태적이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생성, 유지, 변화(발전 또는 쇠퇴)라는 역동성을 가진다.²³⁸⁾ 물론 초기 국제레짐 연구들은 특정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가지기도 했다. 다섯째, 국제레짐의 성립과정에는 일정한 필요조건들이 존재한다. 국제레짐은 발생론적으로 어떤 상황구조의 결과 또는 특별한 갈등적 요인의 반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단적 딜레마의 극복과 서로 경쟁하는 행위자들간 협력이 중요한 발생 동기이다. 그렇지만, 국제레짐이 실제로 성립하는 배경에는 단수 또는 복수의 관련 행위자의 역할과 관련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제제도의 선존재 유무가 핵심관건으로 작용한다.²³⁹⁾

이상과 같이 레짐의 개념을 정리한다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레짐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근거로는 첫째, ‘한반도 평화’를 지역적 범위를 가진 하나의 국제적 이슈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를 하나의 이슈로 간주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평화개념의 불명료성뿐만 아니라 국제레짐의 기능적 효과들²⁴⁰⁾ 중에는 이미 평화확립이 전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

237) Peter M. Haas, "Epistemic Communities and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Regim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ds. by Volker Rittberger & Peter May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168-201 참조.

238) *ibid*, pp.173-80 참조.

239) Beate Kohler-Koch, "Regime in den internationalen Beziehungen," *Regime in den internationalen Beziehungen*, ed. by B. Kohler-Koch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89), pp.22-35 참조.

때문에 평화를 이슈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강대국들간에 평화목적의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어떤 형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이든 원칙과 규범의 공유를 기대할 것이고, 동시에 규칙과 결정절차들을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제기구와 같이 형식을 갖춘 제도가 아니며, 그렇다고 동북아 국제체계의 일반적 요소들로만 설명되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적 틀을 상징하는 레짐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셋째, 한반도내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행위자들 역시 특정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실천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 이미 국제레짐의 발생요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실천력을 갖진 못하지만, 원칙과 규범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인식을 담고 있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합의서’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언적 레짐’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국제레짐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곧바로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란 이슈의 내용과 적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의 문제이다. 둘째, 학파별로 레짐이론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어떠한 학파의 접근법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0) 국제레짐은 일반적으로 행위적응, 목표실현, 국제체계의 변화라는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비단 안보관련 레짐이 아니라도 국제레짐은 평화확립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동반한다. *ibid*, pp.44-48 참조.

첫번째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지역의 특수성과 평화 개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한반도 평화의 내용은 정전상태의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우선 전쟁재발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것은 물론, 예상되는 모든 차원의 갈등들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행위 자로는 관련국가들의 정부, 사회단체, 개인들이 모두 포함되고, 적용 범위로는 군사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가 포괄된다.

두번째 문제와 관련, 레짐이론에 대한 각 학파별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실주의 학파는 권력관계를, 신자유주의 학파는 이익의 문제를, 그리고 구성주의(인식론) 학파는 지식의 역동성, 의사소통 및 정체성을 중심으로 각각 레짐이론을 전개하고 있다.²⁴¹⁾ 순수 이론적 차원에서는 특정 시각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에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이론의 주 기능이 현실세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론적 절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자료와 관찰가

241)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eter M. Haas, "Epistemic Communities and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pp.173-80와 Andreas Hasenclever, P. Mayer, & V. Rittberger, "Interests, Power, Knowledge: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gime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No.40 (1996), pp.177-228 참조; 물론 분류의 기준에 따라 더욱 자세히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Stephan Haggard & B. A. Simmon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1987), pp.491-517; Manfred Efinger, V. Rittberger, K. D. Wolf, & M. Zürn, "Internationale Regime und internationale Politik," *Theorien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hrsg. von Volker Rittberger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0), pp.267-73 참조

능한 것에만 집착하는 실증주의와 가치를 중시하는 반실증주의 사이의 화해하기 힘든 입장 차이를 극복하려는 구성주의자들의 시도는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세 학파들의 이론체계가 각각 달리 강조하는 사회관계의 핵심적 추동원리들은 나름대로 현실세계에서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도 권력관계, 이익의 문제, 지식과 가치의 역동성 등이 각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현재 형성단계에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향후 정립, 유지, 그리고 변화의 단계를 겪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이익, 권력, 지식 및 가치가 실제로 각각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상호 작용할 것인가에 따라 각 단계별 특징과 발전 가능성이 달리 나타날 것이다.

2. 존재론 및 인식론적 접근

앞 절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규정은 실제정책에 반영되고 있거나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험적 사실 및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해보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이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그 궤적을 회피하나마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생산적으로 전개하려면, 경험적 사실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 경쟁하는 국제정치이론들의 다양한 시각과 논의들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본 절에서는 풍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특정 이론의 입장에서 출발하기보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주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주요이론들간의 이론적 가정과 주장 차이를 통해 현실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을 뿐더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상상력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 국제정치이론의 대논쟁은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과 관련한 다분히 철학적이고 과학이론적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체계의 질서 및 작동원리에 관한 시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맥락에서 국제레짐적 성격의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떠한 질서 및 작동원리에 따라 형성·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또는 이해하기 위해 존재론과 인식론을 둘러싼 논의들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이론간 존재론 및 인식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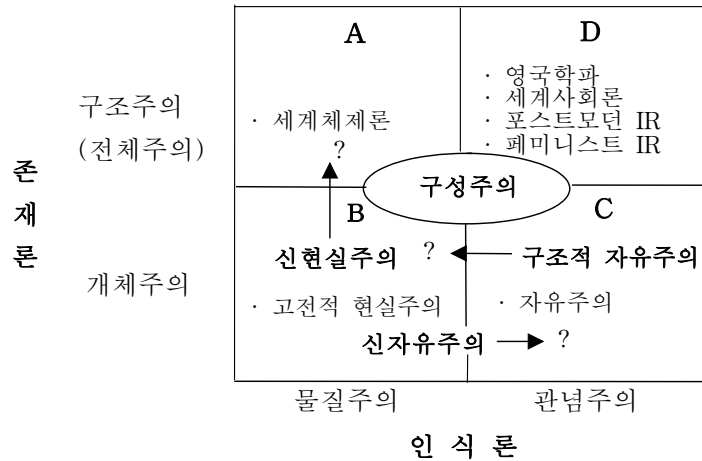
존재론과 인식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철학적 주제이다.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경험론)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념이 인식을 결정(관념론)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끊임 없이 논쟁을 해왔다. 사회과학에서 이 주제는 메타이론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다양한 이론들간 논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명될 필요가 있다.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 내지 형식화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갖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주체와 구조의 관계에 대한 논쟁으로 집약된다. 사회과학에서는 오랫동안 두가지 존재론적 관점이 서로 경쟁해왔다. 즉 사회가 행위주체에 의해 재생산과 변화를 거듭한다는 개체주의(individualism)와 사회적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고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한다는 구조주의 내지 전체주의(holism)이다. 중요한 것은 두 관점이 사회에 대한 상이한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사회질서와

그것의 작동원리를 매우 다르게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사실이다.²⁴²⁾

3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국제정치학에서 주체와 구조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1980년대 말 웬트의 논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²⁴³⁾ 물론 이전의 국제정치이론들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문제가 무시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1960년을 전후한 왈츠와 싱어의 분석수준에 대한 논의와 ‘전통주의’에 대해 ‘과학주의’의 승리로 일막을 내렸던 제2의 대논쟁은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주체와 구조에 관한 논의는 분석수준에 대한 논의와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분석수준 문제는 국제정치현상을 어떠한 수준에서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관한 방법론적 질문에서 대두된 것이었던 반면, 주체와 구조에 대한 논의는 ‘체계적 인과관계(systemic causation)’에 관한 질문에서 제기된 것이다.²⁴⁴⁾ 즉 주체와 구조 중 어느 하나가 독립적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종속적일 수 있는지, 아니면 양자가 상호 의존적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 질문은 1960년대 말부터 과학주의(실증주의)를 표방하고, 학문의 정체성을 국제체계 연구에서 찾는 가운데 국가행위를 국제체계 종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국제정치학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
- 242) 데슬러는 사회과학에서 존재론의 문제를 모델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David Dessler, "What's at Stake in the Agent-Structure Deb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3, No.3 (1989), p.445.
- 243)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p.335-70.
- 244) Alexander Wendt, "Levels of Analysis vs. Agents and Structures: Part III,"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8 (1992), pp.182-83
참조; 이 문제에 관한 논쟁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정리한 논문으로는 Harry D. Gould, "What Is at Stake in the Agent-Structure Debate?"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pp.79-98 참조.

<그림 IV-1> 주체-구조 관계에 따른 국제정치이론들의 분류²⁴⁵⁾



245) 웬트는 이 도식을 1987년의 논문에서부터 조금씩 발전시켜왔다. 체계와 이념에 이론적 중점을 두고있는 그의 원래 도식에는 '체계구조에 대한 관점(종축)'과 '이념의 역할에 대한 관점(횡축)'이 분류기준으로 되어있지만, 기본적 문제의식은 존재론과 인식론에 있다. 또한 그의 구성주의적 관점도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웬트가 처음 이 도식을 창안했을 때, 구성주의는 (D)군에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구성주의 내의 비판적 논의를 거치면서 1999년 그의 저서에는 구성주의가 (D)군에서 빠졌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의 도식을 약간 수정하여 게재한다.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lexander Wendt & Daniel Friedheim, "Hierarchy under Anarchy: Informal empire and the East German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4 (1995), p.639; Ronald L. Jepperson, Alexander Wendt, &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p.38;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29 & 32;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p.331; David Dessler, "Constructivism within a positivist social scien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5, No.1 (1999), pp.123-37 참조.

웬트는 사회이론의 차원에서 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따라 인식론적 접근방법이 달리 결정된다고 주장²⁴⁶⁾하면서, 존재론과 인식론적 차이를 기준으로 국제정치이론들을 <그림 IV-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횡축은 행위주체의 동인을 물질 또는 이념 중 어디에서 찾는가에 관한 인식론의 문제를 보여준다. 물질주의자는 세계정치의 기반을 군사력, 경제력, 기술 등과 같은 물질적 힘에서 찾으며, 이념은 기껏해야 상부구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관념주의자들은 공유하는 지식구조를 세계정치의 기반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지식구조의 의미부여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물질적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종축은 앞에서 언급했던 존재론적 문제와 관련한 방법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양축의 관계지움에서 국제체계의 질서와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 및 이해의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A)군에 속하는 이론으로서 세계체제론은 국제질서가 자본주의경제 구조와 원칙에 의해 구성되고 작동한다는 엄격한 구조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즉 국가행위는 물질적 힘의 원칙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구조는 국가차원으로 환원시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B)군에는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본 행위주체로 하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생존노력이 세력균형이라는 국제질서를 창출 및 유지한다는 공통된 가정을 가진다. 그러나 행위주체의 성격과 국제체계의 작동원리에서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인간의 천성을 바탕으로 물질적 힘과 이익을

246)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339.

설명하는 고전적 현실주의의 경우, 행위주체는 정치엘리트와 여론을 포함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국제체계를 유지·변화시키는 중요한 동인을 특히 강대국들의 외교에서 찾는다. 이에 비해 신현실주의는 철저히 국가중심적이며, 구조주의적이다. 그러나 왈츠의 구조개념은 본질적으로 구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신현실주의에서 구조는 실제로는 단위(국가)들의 연결에 의해 발생하는 반영적 성질의 것으로서 자체적 동력이나 부분에 대한 전체의 우월적 권위를 전혀 갖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구조개념을 도입했지만, 국가를 국제체계의 구조에 선행시키는 신현실주의는 방법론적으로 개체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이론적 가정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신현실주의에 더욱 가깝지만, 갈등과 경쟁에 중점을 두는 현실주의자들과 달리 문제영역(issue-area)별로 국제레짐 내지 제도를 통한 협력의 발전가능성에 주목한다. 즉 신자유주의는 신현실주의에 비해 국가들간의 사회적 관계 — 공동이익과 지식의 공유 — 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레짐이 존재하기 위해 전제되는 상호주관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심리적인 통찰이나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²⁴⁷⁾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이다.

셋째, (C)군에는 자유주의 계열의 이론이 속한다. 자유주의 이론들은 개인, 사적 단체, 그리고 이들의 집합으로서 국가를 국제정치의 기본 행위자로 간주한다. 자유주의는 이들 행위자가 여러 한계들 속에서도 다양화된 이익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교류와 집단 행동

247) Robert O. Keohane,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gimes: towards a European-American Research Programme," *Regim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d. by V. Rittberger (Oxford: Clarendon Press, 1993), pp.27 참조

(정치)을 함으로써 국가선호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의 상대적 능력 차이가 반영된 국가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국제체계의 구조는 국가행위 또는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 및 단체의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²⁴⁸⁾ 이 맥락에서 자유주의는 엄격한 개체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부분적으로 외교정책이론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다. 그렇지만 현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역사의 진보,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제적 상호의존, 인식의 진보, 국제사회의 통합, 국제제도의 발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화 과정이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관념주의적이다. 과학적·실증적 체계이론을 지향하는 소위 구조적 자유주의도 협력, 진보, 현대화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관념주의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넷째, (D)군에는 키오헨이 ‘재귀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이론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다양한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묶을 수 없지만,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후기실증주의적 인식론을 공유하고 있다. 즉 주체의 행위는 물질적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특히 사회구조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영국학파는 국제관계의 사회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과학적 설명보다 역사적 해석을 중시해왔으며, 나머지 이론들은 후기구조주의 내지 포스터모더니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이론이 관념주의적인 동시에 구조주의적 성격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는 3장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시피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역사주의)의 대립을 화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존재론의 측면에서도 주체와 구조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8) Andrew Moravcsik,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pp.516-24 참조.

모든 이론들을 절충하는 중간입장(middle ground)을 취하고 있다.²⁴⁹⁾ 그러나 행위주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구성주의 내부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웬트와 같은 체계적(또는 자연주의적) 구성주의자들은 국가를 중심적 행위자로 간주하며, 러기, 오너프, 아들러와 같이 현실세계를 가능한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 모든 인식 및 존재론적 접근을 절충하는 전체주의적(또는 신고전적) 구성주의자들은 개인과 사회집단도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생각한다.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질서모델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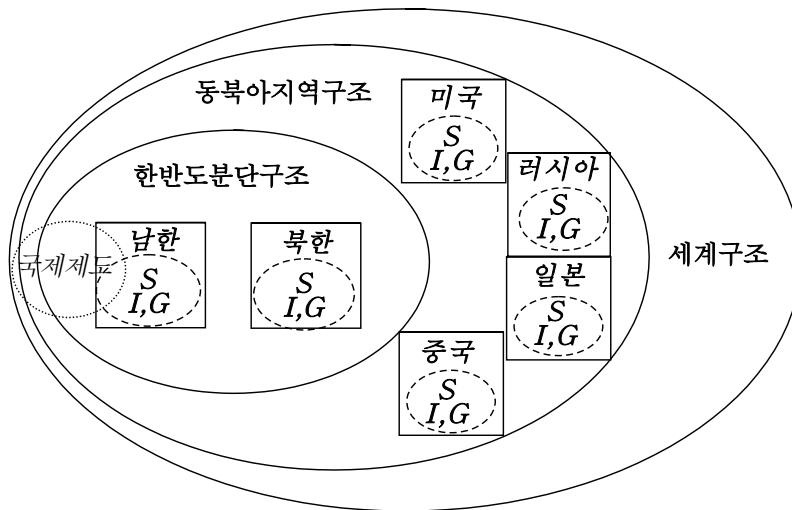
국제정치이론들의 존재론 및 인식론적 차이를 고려하면, 어떤 이론적 가정에서 출발하는가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질서에 관해 여러 가지 인식모델이 경쟁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모델선택은 단지 이론적 차원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러 정책대안들간의 경쟁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모델에서 출발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모델을 모색하는 작업은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제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다음 두가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그러한 모델의 모색을 위해 요구되는 이론적 논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다.

249)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pp.319-63.

(1) 행위주체와 구조의 규정 방식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행위주체와 구조는 각각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국제정치이론들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행위주체에는 개인, 집단, 사회, 그리고 국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간에도 주체와 구조의 관계가 성립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집단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사회가, 이들 모두에 대해서는 국가가 각각 구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를 행위주체로 삼을 경우, 세계적 구조뿐만 아니라 하부구조로서 지역적 구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질서를 구성하는 주체와 구조의 배열은 <그림 IV-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IV-2>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주체와 구조의 배열



S: 사회, I: 개인, G: 집단

<그림 IV-2>를 바탕으로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조적 측면을 살펴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포함관계를 맺는 세 가지의 중층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²⁵⁰⁾ 구조의 세분화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의미를 갖는다. 좁게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가 한반도 분단구조에 국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태도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또는 남북평화 협정체결 주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일련의 복잡한 국제정치적 현실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지역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구조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냉전시기 미·소 양극체제의 결정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탈냉전시기에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안보는 세계안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도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자유주의의 확산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의 공간적 구분은 특수성과 일반성의 문제를 수반한다. 즉 공간적으로 좁아질 경우, 세계정치구조의 일반성보다 지역적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세계 정치의 일반적 법칙을 추구하는 국제정치이론들 가운데 특정 이론이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가질 수 있다거나, 또는 이론의 적용과정에서 보조적 가정²⁵¹⁾의 채택 내지 변수들의 가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중층구조는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국제기구, 국제레짐, 국제법·규범·관습 등을 포괄

250) 지역구조 역시 세분화 될 수 있다. 예컨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아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 등의 중층구조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역적 유효범위를 동북아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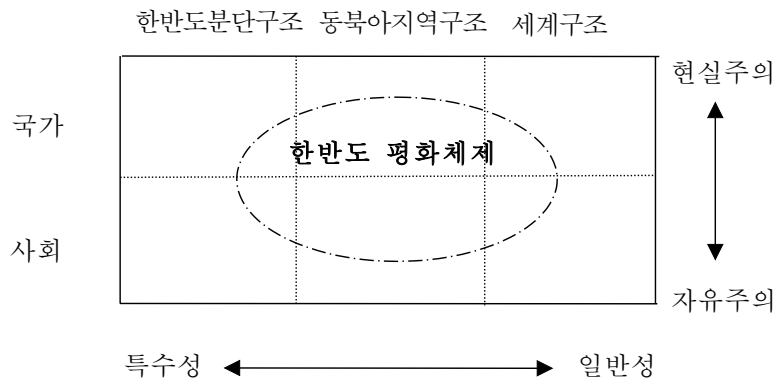
251) Imre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pp.116f & 133-37참조.

하는 국제제도는 세 구조간 연계성을 보여주는 실체들이다. 국제제도는 나아가 국내구조와도 연계성을 가진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층구조는 분석적 차원에서 분리 설명될 수 있겠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서로 분리시켜 접근할 경우, 현실과 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위주체로는 이론적 입장에 따라 크게 국가와 사회라는 두 주체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주체는 남북한의 2개국 또는 주변강대국들을 포함한 6개국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접근은 주체들의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단순화시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 각국의 행위를 결정하는 외교정책은 국내적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지지 또는 저항을 받는다. 예컨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남한 사회내의 이견들, 대북 개입정책에 대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차이, 북·일관계개선의 조건들에 대한 일본 국내의 이견들은 자유주의적 시각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경우, 자유주의적 시각은 적용의 한계를 가진다. 물론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지도자 내지 엘리트 집단이 행위주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가 자유주의 시각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주체는 국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초민족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남한의 비정부단체가 직접 또는 세계적 비정부기구와 협력을 통한 대북 식량 및 경제지원을 하는 것은 대표적 예이다.

행위주체와 구조를 각각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분석범위나 국제정치적 자리매김이 달라질 것이다.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개인 및 집단 포함), 구조로서 세계의 중층구조를 서로 조합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어서 주체와 구조의 규정방식은 크게 여섯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IV-3>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체와 구조의 규정방식



<그림 IV-3>은 주체와 구조의 조합이 갖는 의미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특수성과 일반성의 비중을 각각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 주체와 구조의 규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현실분석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내재하는 여러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려면, 여섯 가지 중 어느 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예컨대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와 한반도 분단구조의 조합, 한반도 군사안보 문제는 국가와 동북아시아 및 세계구조의 조합, 민간단체들의 대북식량지원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사회와 한반도분단구조, 동북아시아구조, 세계구조의 조합이 각각 효율적인 규정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하나의 범주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현실은 여섯 가지 규정방식 전반에 걸쳐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복잡성과 포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의

규정방식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수준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경쟁적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각각의 설명력 한계를 나름대로 인정하고 절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향들²⁵²⁾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다면, 비록 이론화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특정 주체와 구조를 미리 전제하고 출발하는 접근보다 열린 태도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더욱 적합하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2) 행위주체와 구조의 체계적 인과관계

행위주체와 구조의 규정방식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동적 질서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질서규명을 위해서는 주체와 구조의 체계적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두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행위가 주체와 구조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지배받는지, 아니면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인지를 문제이다. 둘째, 행위주체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인과적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물질과 이념의 역할은 각각 어떠한가의 문제이다.

현실주의적 가정에 따르면, 남북한 및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물질적 권력추구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정부상태와 힘의 배분차이로 특징지어지는 세계 및 동북아 지역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정책과 관련하여 세계정치의

252)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Andrew Moravcsik, *Liber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p.36-38 참조;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Randall L. Schweller & David Priess, "A Tale of Two Realisms: Expanding the Institutions Debate," p.9; Stephen G. Brooks, "Dueling Realisms," pp.445-77 참조.

변화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존이익을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가능성을 찾으려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그러한 현실주의적 기본가정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실주의의 주류를 이루는 신현실주의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질서를 설명해보자. 신현실주의는 역학관계의 변화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국가들의 행위가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탈냉전시기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왈츠는 냉전종식이 체제성격의 변화를 초래했지만, 국제체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설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국제체계가 세력균형, 무정부상태, 힘의 배분, 자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으며, 탈냉전시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²⁵³⁾ 다만 탈냉전시기 국제체계는 예외적으로 ‘단극(unipolar)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이는 과도기적 불안정 상태이며 언젠가는 양극 내지 다극화됨으로써 안정된 세력균형을 확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한다.²⁵⁴⁾ 왈츠는 향후 세계정치적으로 미국세력에 대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국가로서 중국을 손꼽는다.²⁵⁵⁾ 또

253) K. N. Waltz,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1 (2000), p.5 참조.

254) 왈츠는 두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지배세력은 국제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갖게됨으로써 세력약화가 필연적이다. 둘째, 지배세력이 아무리 절제 있고 중도적으로 행위를 할지라도 상대적 약소국들은 지배세력의 미래행위에 대해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이들은 세력을 확장하려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ibid*, pp.27-28; 그러나 언젠쯤 단극체제가 다극화될 것인가에 대해 월포스는 멀리 내다보고 있다. 그는 현재의 단극체제를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William C.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1 (1999), p.8 참조.

255) *ibid*, pp.32-37 참조.

한 이와는 별개로 탈냉전기 동북아 역학구조를 미국과 중국의 양극 체제로 파악한다. 그 이유로서 미국은 세계적 초강대국이지만, 지역적 패권국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운다.²⁵⁶⁾

양극체제가 안정적이라는 ‘방어적 신현실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는 새로운 세력균형을 통해 이미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적 단극체제와 지역적 양극체제가 공존하는 현 상황이 향후 세계적 양극 및 다극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북아 역학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구할 것이고,²⁵⁷⁾ 그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의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이 유지·발전될 것으로 예측하는 신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당사자 해결에 큰 비중을 두고 화해·협력·평화를 내세우는 남한의 대북·통일외교정책 기조가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단지 동맹정책을 통해 북한의 권력추구를 억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세력균형을 기반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상태가 유지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한의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면, 북한의 외교적 행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흔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미 접근행위는 자구적 생존전략으로 평가된

256) *ibid.*, p.83; Robert S.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23, No.4 (1999), p.82 참조.

257)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들이 취하는 외교전략으로는 크게 8가지로 분류된다. 길핀은 ‘헤게모니 장악’ 노력, 쉬엘러는 ‘이익추구적 편승’, 머시하이머는 ‘팽창’, 왈츠는 ‘전통적 균형’, 왈트는 ‘위협균형’, 로트슈타인(R.I. Rothstein)은 ‘은신(hide)’, 저비스는 ‘자기부정(self-denial)’, 그리에코는 ‘통합’이라는 행위전략을 각각 제시한다. Collin Elman, "Horses for Courses," pp.51-52 참조.

다. 북한의 공격적 군사무기의 개발은 안보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분명히 현실주의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대미 접근행위는 앞에서 언급했던 신현실주의의 시각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북한은 이익추구적 편승²⁵⁸⁾ 또는 균형을 위해 중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현실주의적 설명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적대적 관계의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신현실주의적 설명의 한계가 드러난다.

신현실주의적 설명의 한계는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논리적 취약성에서 더욱 크게 부각된다. 물론 이 변화는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는 과정의 산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적 지연이 발생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단순히 역학구조변화에 따른 북한의 행위변화로는 충분하게 설명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북한 지배엘리트들의 세계정치적 인식변화와 식량·경제난으로 인한 체제생존위협 등의 북한 내부요인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현실주의가 비판하는 환원주의적 설명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는 신현실주의의 핵심가정과 배치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설명은 국제체계구조를 넘어 고전적 현실주의와 수정된 신현실주의적 논리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단위의 속성, 그리고 기술·경제·지리적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실주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는다. 세력균형의 논리적

258) Randal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pp.72-107 참조

기반을 제공하는 안보딜레마와 국가행위의 덕목인 현실주의적 신중함(prudence)이 국가행위를 설명하는 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대표적 예이다. 안보딜레마와 신중함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실제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²⁵⁹⁾ 예컨대 한·미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은 남북관계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현실세계에서 불확실성은 변수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현실주의는 이를 상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자유주의는 국가이익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이익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념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제관계를 구조보다는 국가들의 배열이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국가이익은 국가간의 상대적 능력차이에 의해 관철여부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즉 신현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행위주체를 독립변수로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들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연구에서 즐겨 활용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이론은 비교적 동질적 제도와 문화기반을 가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으로서 이질적 체제를 가진 국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상의 한계를 가진다. 더욱이 자유민주체제, 경제적 상호의존, 다자적 제도에 주목하는 자유주의적 가정에만 집착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갈등잠재력이 실제보다 더욱 부각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의 발전에 중점을 두는 자유주의 이론이 갈등관계의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259)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pp.167-214; Ted Hopf,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188 참조.

다.²⁶⁰⁾

이러한 탓에 남한의 대북·통일외교정책에 관한 기존연구들 가운데 자유주의적 접근은 현실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나 탈냉전시기 남북한은 평화와 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이익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설명의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존재론 및 인식론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질서를 규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의 대북·통일정책에서 국민적 합의 기반에 대한 강조나 민족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의 주장 이면에는 자유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이 내재되어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방법의 장점은 무엇보다 국가수준과 국제체계수준을 연계시켜 국제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남북한관계나 북·미관계에서 최근 북한외교의 변화를 단순한 역학구조보다 사회적 선호와 국제적 역학관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경우,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남한사회의 대북인식과 그 정책의 국제적 성과들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 또 동북아의 협력지향적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의 외교행태 등에 관한 문제는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으로는 규명되기 어렵다. 특히 남북공동체의 형성조건들에 주목하는 남한의 대북·통일정책과 남북한간에 아직도 위력을 떨치고 있는 안보딜레마적 상호인식의 모순적 관계 속에서 평화와 협력을 향한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은 국제제도의 협력지향적 기능에 주목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장점을 부각시킨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은 서로 상반된 입장에

260) 이와 관련, 반복게임을 통한 학습효과나 자유주의적 통합이론의 기본 발상에서 몇가지 중요한 형식논리를 찾을 수는 있다.

서 주체와 구조를 각각 종속 및 독립변수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정치에 대한 두 이론의 설명은 반드시 대립적인 결론만을 내놓지는 않는다. 종속변수 또는 독립변수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두 이론 모두 힘의 배분관계를 구조의 특성으로 내세우는 데는 암묵적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구조개념은 행위주체의 속성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두 이론의 차이는 국제체계구조의 무정부상태에 대한 각각의 상이한 가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홉스적 무정부상태로 가정하는지 또는 타협 및 협력이 가능한 무정부상태로 보는지에 따라 두 이론의 주체와 구조 관계에 대한 관점차이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국제체계구조 또는 국가간의 관계가 홉스적 무정부상태와 같은 극단적인 갈등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가정하면, 자유주의적 설명도 결국 현실주의의 그것과 동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⁶¹⁾ 요컨대 주체와 구조 관계에 대한 이들의 관점은 본질적으로 행위주체 중심적이며, 단지 현실을 서로 다른 분석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동전의 서로 다른 면을 각각 강조하는 양 시각은 현실 설명을 위해 서로 보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달리 구성주의는 사회학적 구조개념을 내세운다. 즉 구조는 상호주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규칙과 제도를 매개로 주체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비록 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도 제도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들은 제도를 국가라는 행위주체의 물질적 이익에 의해 생성되며, 역으로 주체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의 제도개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²⁶²⁾ 물론 구성주의가 행위주체의 물질적 능력을 무시

261) Andrew Moravcsik, *Liber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p.13-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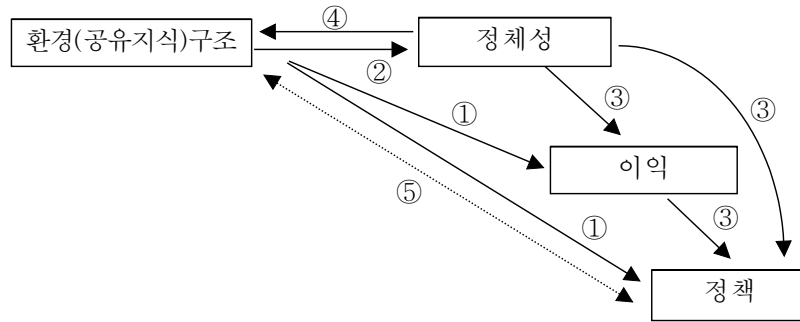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물질적 능력은 국제체계구조를 구성하는 제도의 성격과 행위주체의 정체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이다. 구조는 행위주체의 머리 속이나 물질적 능력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과정 속에 있다. 전후 세계정치를 지배했던 공유지식의 구조였던 냉전은 행위주체들이 더 이상 그 구조에 따라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극복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²⁶³⁾ 구성주의의 구조개념은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체계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천되고 있는 공유지식의 성격에 일차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기 동북아지역에 존재하는 공유지식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 북한과 한·미·일간에는 냉전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긴장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중·러와 한·미·일간에는 냉전구조가 와해되고 협력증대를 위한 새로운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완화 내지 협력을 향한 실천들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62) 각 이론별 제도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John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pp.5-49 참조.

263)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p.74 참조.

<그림 IV-4> 행위주체와 구조의 상호작용 과정



출처: Ronald L. Jepperson, Alexander Wendt,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pp.52-53.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 대한 구성주의의 설명은 <그림 IV-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간략히 요약하면, ①은 구조의 문화적·제도적 요소들(공유지식 내지 규범)이 행위주체의 이익 또는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 ②는 이것이 주체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③은 정체성 변화가 이익이나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 ④는 정체성의 형태가 문화적·제도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⑤는 정책이 문화적·제도적 구조를 재생산 내지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림 IV-4>를 활용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과정은 매우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반도의 화해·협력·평화를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협력 및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다. 이는 남북한간에는 물론이고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는 주변강대국들과의 관계를 포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KEDO의 활동, 4자회담의 개최, 한·미·일 3자 조정·감독그룹(TCOG) 개최, 북·미회담,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강조 등은 그러한 맥락에서 제도화를 촉진하는 실천들로 간주될 수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실천은 구

조의 변화와 동시에 역으로 행위주체들의 정체성 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국가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각국들의 정체성, 이익, 정책변화는 또 다시 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체와 구조의 선순환적 상호작용이 지속될 경우, 냉전적 실천은 화해와 협력의 실천으로 변화하고 중국에는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자칫하면, 이상주의적이라고 치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과 냉전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 인식도 실은 갈등적 실천에 익숙한 문화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근래 갈등 해소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들이 협력의 문화를 배태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난 3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단지 남한정부의 이상주의적 정책이 북한에 의해 현실주의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잠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현실주의적 비판은 사회의 변화를 과소평가하거나, 그 자체로서 자기 충족적 예언에 사로잡힌 판단일 수도 있다. 보다 열린 시각으로 현실을 본다면,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는 세계구조변화의 파급효과에서부터 북한내부의 물질적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주체와 구조의 양면에서 다양한 변화의 동력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남북한관계나 북·미관계만을 두고 보더라도, 탈냉전적 세계구조의 영향력은 물론이고 서로 다양하고 상이한 이익들이 뒤섞여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각 행위주체의 정체성 변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²⁶⁴⁾

그러나 오랫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새롭게 인식하는

264) 남북관계와 관련한 남한사회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 추계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10. 21), p.13.

정체성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비록 각 행위주체가 공통의 이익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위적인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게 될지라도 제도의 정착에 필수적인 공유지식 내지 규범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예컨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평화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와 구조 간의 선순환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실천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문제를 둘러싼 근래의 변화들은 선순환의 시작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평화구축을 위한 실천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실주의의 덕목인 신중함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시각이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선순환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이상과 같이 물질과 이념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주체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설명은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와 비교하여 크게 두가지 점에서 매력적이다. 첫째, 시장논리, 즉 경제적인 목적합리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강대국 내지 서구 중심적 시각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구성주의는 약소국의 행위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 수 있으며 이질적 체제간의 협력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현실주의적 시각은 동북아에서 강대국들의 능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한의 노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유도하며, 자유주의적 시각은 동북아 지역의 협력여건 부족으로 갈등 잠재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구성주의적 시각은 남북한의 갈등적 관계가 협력지향적 공유지식이나 국제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 증대가

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최근 전개되고 있는 양자 및 다자적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설명해준다. 실제로 최근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는 어떠한 강대국의 이익만을 반영하지 못하며, 그렇다고 세계 및 지역구조가 각국들의 행위를 제약만 하는 것으로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의 지역구조는 각국들로 하여금 새로운 제도의 형성을 위한 실천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구성주의적 설명에는 실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의 체계화와 형식화를 지향하는 과학이론적 접근이 과연 얼마나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비판적으로 따져본다면, 과학적 접근방법과 역사적 접근방법을 접목하려는 구성주의적 시도는 비판받기보다 오히려 의미 있는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문제해결이론적 접근

한반도 평화체제의 질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은 물론이고 당면현안들의 비중도 달리 평가될 것은 자명하다. 각 패러다임내의 이론들은 단지 국제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제정치적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효용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특정관점 내에서 제기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소위 ‘문제해결이론’의 전형으로 간주된다.²⁶⁵⁾ 이에 비해

265) 콕스는 모든 이론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각 목적에 따라 이론을 구분해보면, 특정한 관점 내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으로써 ‘문제해결이론’과 그것을 이론화한 과정에 대해 좀

구성주의는 ‘비판이론’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 역시 구체적인 제도나 실천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론적 성격도 동시에 가진다.²⁶⁶⁾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에는 현재 안보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해결이론적 접근의 중점은 갈등상황의 협력상황으로의 전환에 두어진다. 따라서 과연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협력가능성은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협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론적 검토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두가지 주제, 즉 ‘안보와 협력의 조화’와 ‘양자적 내지 다자적 해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전자는 협력가능성, 후자는 협력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적절한 주제로 간주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두 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갖는 어떠한 동북아시아 국가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주제들은 이론세계에서도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다. 3장에서 이미 암시되었듯이, 각 패러다임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 행위논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²⁶⁷⁾ 첫째, 행

더 사변적으로 관점에 대한 관점을 확보하는 ‘비판이론’으로 대별된다. ‘비판이론’과 ‘문제해결이론’은 각각 역사주의적 접근과 실증주의적 접근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따르면, 실증주의를 지향하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전형적인 문제해결이론이다. Robert W.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orealism and Its Critics*, pp.207-209 & 244.

266)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p.334.

위결과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특정 선호 또는 이익 추구의 합리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주의의 논리(logic of consequentialism)’이다. 이는 과학이론을 내세우는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의 논리적 기반으로서 목적합리성을 지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협력은 항상 이익의 균형(equilibrium)을 의미한다. 둘째, 행위를 결정하는 정체성 내지 규칙적 기반에 초점을 맞추는 ‘적합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이다. 이는 주로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규범이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간행위에 주목하며, 사회적 관계 또는 상호 이해과정의 합리성을 중시한다. 여기서 협력은 반드시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항상 변화하는 현실에 끊임없이 적응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가. 안보와 협력의 조화

김대중정부는 대북정책 3원칙에 ‘무력도발 불용’과 ‘남북간 화해협력 적극 추진’을 포함시키고 정책추진기조의 첫째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안보와 협력의 병행’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남한 정부의 공식적 대북정책으로 자리잡아왔다. 냉전시기 안보와 협력의 병행은 적대적 관계의 국가들 사이에 긴장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도 일차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에

267) James G. March & Johan P. Olsen,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Y.: Free Press, 1989); James G. March & Johan P. Olsen,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2, No.4 (1998), pp.949-54 참조.

비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자유주의적 발상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며, 나아가 단순한 전쟁의 억제를 넘어서 넓은 의미의 협력개념 아래 안보협력에 대한 기대가 함축되어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민주평화론의 태두인 도일(M. W. Doyle)이 권고하는 비자유민주국가에 대한 자유민주국가의 바람직한 외교정책적 대안을 상기시킨다.²⁶⁸⁾ 흔히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자유주의, 특히 민주평화론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²⁶⁹⁾ 이는 오히려 대북포용정책에 더욱 적합한 표현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싼 국내여론의 격렬한 찬반논란은 비자유주의국가에 대한 관용적 외교정책의 성패가 국내정치에 달려있다는 도일의 주장²⁷⁰⁾의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도일이 제시한 외교적 덕목 내지 처방은 근본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협력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과 국제정치사적 통찰력에 기초하는 것일 뿐, 그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안보와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과작용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68) 도일의 권고는 크게 3가지이다. 즉 ① 비자유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자유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 ② 안보와 생존을 위한 현실주의의 신중함(prudence)을 참고하여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비자유주의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상호의존을 제고할 것, ③ 자유주의의 원칙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비자유주의 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타협을 이룰 것이다. Michael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p.48-53.

269) 머시하이머는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신윌슨적 시각(neo-Wilsonian view)'이라고 지칭한다. John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p.5; 클린턴 미대통령은 1994년 연두교서에서 민주화를 자신의 외교정책에서 '제3의 기둥'이라고 불렀다. John M. Owen, "How Liberalism Produces Democratic Peace,"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p.116에서 재인용.

270) *ibid.*, p.54.

안보와 협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결과주의의 논리'를 전개하는 합리주의자들은 대체로 두가지 경쟁적 견해를 표방한다. 현실주의자들은 협력을 기본적으로 안보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반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안보문제 역시 협력의 대상으로 본다. 이런 차이는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의 출발점이 각각 갈등과 협력에 편향되어 있는 데에 기인한다. 양이론은 그러한 본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범위 내에서나마 안보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황조건, 예컨대 국가간 역학구조, 군사전략 및 기술, 국제제도화의 수준, 국가체제의 동질성 여부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안보와 협력에 대한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경쟁적 논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현실주의의 기본입장은 타국의 미래 의도와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국가의 관심이 안보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인 능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⁷¹⁾ 여기서 두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국가는 항상 타국과의 상대적 능력차이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력은 기본적으로 갈등의 부수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현실주의는 안보협력의 대표적 사례인 동맹도 생존을 위한 잠정적 행위로 본다. 또한 적대국과의 협력도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드물며 기껏해야 이차적 중요성을 갖는 분야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²⁷²⁾

현실주의내에서도 저비스, 글레저와 같은 방어적 현실주의자나 수

271) J. M.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p.128

272) 왈츠는 경우에 따라 적대국과 군비통제와 같은 안보협력도 가능할 수 있지만, 자구적 국가체계에서 국가의 기본적 행위준칙을 무시하는 협력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K.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115-16.

정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특히 저비스는 현실주의의 기본입장에서 벗어나 무정부상태와 안보딜레마가 반드시 갈등을 부추기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보딜레마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국가의 안보능력 증대는 타국의 안보능력의 확충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호 비용만 증대시키기 때문에 공격적인 안보능력 증대보다 방어적인 조치를 선호함으로써 안보협력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²⁷³⁾ 요컨대 안보능력 확대의 비효용성이 문제이다. 경제능력의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의 증대와 직접 연결되지만, 안보능력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군비증강은 오히려 부의 감소를 야기한다. 따라서 안보능력의 경쟁적 확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⁷⁴⁾ 그렇지만 이들도 안보문제와 경제문제에 있어서 갈등과 협력의 성립방식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⁷⁵⁾ 경제문제와 달리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을 통한 타국의 상대적 이득 증대가 생존과 관련한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안보문제에서 불확실성은 경제문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불신을 증폭시키기 쉽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273) 저비스는 안보레짐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크게 4가지를 열거한다. ① 강대국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② 국가들은 서로간에 안보협력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③ 특히 정치지도자의 신념이 중요하다. ④ 개별적 안보능력 증대에는 비용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Regimes*, pp.176-78 참조.

274) Charles L. Glaser, "Realists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The Perils of Anarchy*, p.400 참조.

275)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Regimes*, pp.174-75; Charles Lips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pp.70-76 참조.

신자유주의는 현실주의보다 협력에 관해 더욱 정교한 논리를 전개한다. 무정부상태에서도 협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게임이론의 논리로 설명하고, 또 협력의 형태도 세분화한다. 신자유주의의 관심은 주로 경제문제에 치중했지만, 점차 안보문제로까지 이론적용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단, 안보문제에 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설명은 주로 동맹관계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동맹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신현실주의와 견해를 같이 하지만, 절대적 이득의 논리를 바탕으로 동맹국간의 협력이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차별된 주장을 한다.²⁷⁶⁾

그러나 절대적 이득과 상대적 이득을 둘러싼 논쟁은 합리적 선택을 위한 극단적 경우를 가정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이득 계산이 달라진다. 이득계산은 단순히 국가선호라기보다 오히려 상황적 제한에 달려있다. 예컨대 무력사용의 비용이 낮아서 무력사용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절대적 이익추구는 균형적 협력결과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신현실주의적 설명이 더욱 유효하다. 이에 반해 비용이 너무 높아 무력사용이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적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²⁷⁷⁾ 또한 정치적 시장이 복·과점적(oligopolic)인 경우, 즉 초강대국간의 관계에서는 상대적 이득이 추구될 가능성이 높지만, 안보공동체의 경우에는 절대적 이득추구가 더욱 일반적일 수 있다.²⁷⁸⁾ 뿐만 아니라 기대이론(prospect theory)을 활용한 연구에

276) Celeste A. Wallander & R.O. Keohane,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lliance Theory*,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Harvard Univ.), Working Paper Series, No.95-2 (1995), pp.7-8.

277) Robert Powell, "Absolute and Relative Gai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p.211 참조.

278) Celeste A. Wallander & R. O. Keohane,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lliance Theory*, p.13.

의하면, 현상유지가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간주될 경우, 국가는 상대적 이득을 추구하며, 이에 반해 현상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국가는 절대이익을 추구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²⁷⁹⁾

신자유주의는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간의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이론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며, 대체로 현실주의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실제로 완전한 흡수적 무정부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간 상호작용을, 신자유주의자들은 상호의존을 각각 강조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연결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경중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대적 국가간에도 안보와 협력의 행위들이 항상 교차하고 있다. 합리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정치적 시장에서 국가의 합리적 선택행위의 결과로 파악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게임이론의 형식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비록 게임이론의 단순한 설명으로 복잡한 현실정치를 제대로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게임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 논리적인 통찰력은 갈등과 협력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여러 종류의 게임들 중에서도 특히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에 의해 공통적으로 즐겨 활용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성립조건들²⁸⁰⁾이 국가행위에 대한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기본가정들과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

279) Jeffrey Berejikian, "The Gains Debate: Framing State Choice," *APSR*, No.91 (1997), pp.789-805 참조.

280) 악셀로드의 ‘죄수의 게임’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① 게임참가자를 강요하거나 어떠한 언질을 줄 수 있는 메카니즘이 없을 것, ② 다른 참가자들의 전략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③ 다른 참가자가 게임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될 것, ④ 다른 참가자의 수익(payoff)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을 것을 들고 있다.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Y.: Basic Books, 1984), pp.11-12.

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관심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각자의 입장에서 안보와 국제정치경제 양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의 논리를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발견하고 있다.

안보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균형점(DD)은 상호협력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차선적 선택이다. 국가는 서로 이탈하여 갈등관계를 갖게 될 경우,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탓에 차선적 결과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협력은 양자협력(CC)의 수익이 비교적 높고, 양자이탈(DD)나 일방이탈 내지 협력(DC, CD)에 따른 수익은 비교적 낮을 경우에 발생가능성이 높다.²⁸¹⁾ 그러나 안보딜레마 탓에 수익구조(payoff structure)의 변화를 통한 협력의 확대는 어렵다.²⁸²⁾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자들은 각각의 수익결과에 대한 가치의 차이 크기가 변화하면, 협력에 대한 기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²⁸³⁾ 즉 상호협조와 상호이탈사이의 수익차이(CC-DD)가 더욱 클수록, 동시에 상호간 일방적 이탈에서 얻는 수익차이(DC-CD)가 적

281)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기본적 수익구조는 $DC > CC > DD > CD$ 이다. (C: 협력, D: 이탈) 그러나 현실주의에 따르면, $CC > DC > DD > CD$ 의 구조를 갖되, CC와 DC의 수익차이가 높고, DC, DD, CD간의 수익차이가 미미할 때, 협력이 가능하다. Robert Jervis, "From Balance to Concert: A Study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Cooperation under Anarchy*, p.64 참조.

282) 죄수의 딜레마 게임보다 훨씬 협력의 강도가 높은 게임으로는 ‘사슴사냥(stag hunt)’ 게임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구조는 $CC > DC > DD > CD$ 이다. 현실주의자들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사슴사냥게임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신자유주의자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Kenneth A. Oye, "Explain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Hypotheses and Strategies," *Cooperation under Anarchy*, pp.7-9.

283) *ibid*, p.9 참조.

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나아가 게임참가자들간에 인식의 결집이 이루어질 때 협력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협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이 요구되며, 또한 반복게임을 통해 게임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소위 '미래의 그림자'가 길어져야 한다.²⁸⁴⁾

일반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특정한 공동이익을 달성하려는 협력의지가 전제된 국제관계에 적합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문제와 같이 갈등관계의 협력관계로 전환을 목표로 하며, 특정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협력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실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협력은 '협동적 협력(collaboration)'이라기보다 '조정적 협력(coordination)'의 성격을 띠고 있다.²⁸⁵⁾ 양자는 게임의 수익산출과 관련하여 차이를 보인다. 즉 협동적 협력에서는 대체로 차선적 결과라는 하나의 균형점이 형성되는 데 비해, 조정적 협력에서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균형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조정적 협력'의 맥락에서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²⁸⁶⁾ 첫째, 북한을 포함한 모든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일차적으로 한반도에서 전

284) *ibid*, pp.12-14 참조.

285) 신자유주의자인 스타인(A. Stein)은 협력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협동적 협력'으로서 공동이익의 균형을 찾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적 협력'으로서 어떤 특정 결과를 기피하려는 '공동기피(common aversion)' 노력의 산물이다. Arthur Stein,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Regimes in Anarchic World," pp.120-27 참조.

286) 조정적 협력게임의 논리와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Duncan Snidal, "Coordination versus Prisoner's Dilemma: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gimes," *APSR*, Vol.79 (1985), pp.923-42.

쟁, 긴장고조, 경제위기로 인한 북한의 체제붕괴 등 한반도의 불안정을 기피하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의 기본 축을 북한은 북·미간에, 남한은 남북간에 각각 두고 있는 사실에서 보듯이 관련국가들이 선호하는 수익결과가 서로 다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계약이 필요하지만, 계약 위반의 경우에 예상되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관습 내지 규범적인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과거의 경험이 협력행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정적 협력게임의 경우, 새로운 레짐의 형성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 경우보다 어려운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에서 파생된다. 대북포용정책이 미래지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중시하며 협력과의 병행추진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조정적 협력게임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²⁸⁷⁾ 첫째는 행위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강자에 유리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경우, 세력의 불균형관계는 기본적으로 협력과정에서 강자와 약자의 어느 쪽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단지 국제레짐의 다자적 게임에서 어떤 국가를 축출할 수 있다면, 강자가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축출할 수 없다면, 오히려 협력을 통해 약자가 힘의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이 더욱 용이하다. 그러나 조정적 협력 게임에서는 강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²⁸⁸⁾ 예컨대 남북한간의 선호 차

287) Arthur Stein,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Regimes in Anarchic World," p.127.

288) Duncan Snidal, "Coordination versus Prisoner's Dilemma: Implications

이는 북·미, 한·미, 또는 동북아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둘째는 상황에 따른 가변적 방법으로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공정한 원칙의 적용, 즉 서로의 선호를 번갈아 가며 우선하는 조정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그러한 공정한 원칙의 적용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다만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4자회담을 통한 상호 호혜적 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조정적 협력 게임의 논리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일단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면, 레짐이나 관습이 생성되고 행위자는 스스로 그 틀 속에 구속된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조정적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이나 결실을 맺게될 경우에는 평화체제의 생존력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조정적 협력을 협동적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단지 남북당사자 또는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평화체제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안보문제에서 협력의 본격적 모색과 경제·사회협력에 대한 공동이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을 의미할 뿐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궁극적 목표가 통일에 있는 한, 특히 절대적 이득을 추구하는 협동적 협력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합리주의자들의 논리는 가정과 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 현 상황에서 안보와 협력의 병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거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이론에 입각하여 전략적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gimes," p.929 & 935 참조.

이들의 논리는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 치명적인 약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몇가지 대표적인 약점들을 요약해보면, 첫째로 행위자의 가치, 선호, 신념,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들을 외부적으로 주어질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둘째, 정책결정의 타이밍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셋째, 기대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사태의 발생을 설명하기 어렵다. 넷째, 선호 및 행위를 형성하는 역사적 맥락이 무시되고 있다.²⁸⁹⁾

이러한 약점들은 근본적으로 두가지 문제에 기인한다. 첫째, 현실세계의 복잡한 전략적 행위를 간결·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변수들을 제한한 결과로서 게임이론가들도 그 한계를 인정한다. 둘째, 목적합리성에만 주목하여 사회행위를 객관적·기능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결과이다. 합리주의자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만 집착하지 않고 행위의 '주관적 의미'들을 사회과학적 설명에 통합시킴으로써 인과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즉 특정한 신념, 가치, 동기들을 어떤 특정 문맥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상호 연관 지음으로써 특정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행위양태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추출하려 한다.²⁹⁰⁾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현실세계를 온전히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 '상호주관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와 신념은 행위자의 속성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사회적 실천의 기반인 상호주관적 의미들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²⁹¹⁾

289) Charles Lips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p.31; Robert Jervis, "Realism, Game Theory, and Cooperation," *World Politics*, Vol.40 (1988), pp.319-20 참조.

290) 노이펠트(M.A. Neufeld)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의미지향적 행태주의'라고 명명한다. Mark A. Neufeld, *The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Y.: Cambridge Univ. Press, 1995), pp.72-75 참조.

‘적합성의 논리’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제도와 실천을 구성하는 기반으로서 상호주관적 의미에 주목한다. 이들은 행위자의 합리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사회를 시장이 아닌 포럼, 즉 토론의 장(Jon Elster)으로 보며, 사회관계를 게임이 아닌 토론(Anatol Rapoport)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주의자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²⁹²⁾ 다시 말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면,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합리주의자들의 기본 관심과 달리, 어떤 행동이 행위자가 원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적합성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은 규범, 제도, 집단정체성 등의 직접적 영향하에 행위자간의 토론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토론은 행위자들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정체성의 공유감정을 유발하며, 규범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어떤 기대되는 행위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토론은 협상을 단순히 흥정과정으로 간주하는 합리주의자들의 논리를 넘어 설득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규범, 정체성 및 선호의 변화 등을 감안할 경우, 합리주의자들의 절대적 이득과 상대적 이득에 관한 치열한 논쟁도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이득에 대한 선호는 행위자의 기본적 속성으로만 간주되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또 항상 사회맥락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⁹³⁾

토론을 통한 협력의 가능성은 언어행위이론 내지 의사소통적 행위

291) *ibid*, p.77.

292) James A. Caporas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Multilateralism Matters*, p.66 참조.

293) Jeffrey Berejikian & John S. Dryzek, "Reflexive Ac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0, No.2 (2000), p.202 참조.

이론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된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행위는 기본적으로 언어행위와 동일시된다. 그는 '체계'에 의해 식민화된 현대의 '생활세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의사소통적 행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즉 행위자들이 공유된 생활세계의 지평과 공동의 상황해석들을 토대로 자신들의 계획을 서로 협동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사회적 협력 및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목적합리성에 입각한 전략적 행위는 실패한 의사소통적 행위의 대안으로서 여기에는 언어를 통해 제기되는 타당성 주장 대신에 단지 권력주장만이 남게 된다. 전략적 행위는 생활세계에 대한 체계의 침투 결과로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기능주의적 이성에 의지하는 것이며, 단지 특수한 행위영역(예: 경제 및 조직행위)만을 포착할 뿐 일반적인 사회행위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전략적 행위에 집착하는 화자가 자신의 성공에 대한 방향설정을 단지 외양상 포기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청자가 간파하면, 그 즉시 전략적 행위는 실패하게 되고, 양자를 매개하는 언어는 단지 정보수단으로만 전략하게 된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행위자들이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 성공지향적 행위자의 객관화하는 태도로부터 2인칭의 인격과 더불어 상호이해의 힘을 활용하려는 관점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⁹⁴⁾

‘적합성의 논리’는 합리적 선택이론이 제시하지 못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의 조건들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하다. 남북한 관계를 두고보더라도 관계개선 및 발전 문제는 단순히 양국이 어떠한 전략으로 게임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한내부의 갈등,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

294) 위르겐 하버마스, 『탈형이상학적 사유』, 이진우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0), pp.73-148 참조.

등을 비롯하여 대남정책에 대한 북한 엘리트 내부의 미묘한 차이들에서 보듯이 국가들간 전략적 행위의 동인이 되며 동시에 국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식을 좌우하는 정체성과 상호이해의 기반인 상호주관성의 성격이 전략적 행위의 독립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남북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의 지역강대국들간에 협력지향적 상호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전략적 게임은 끊임없이 잠정적인 결과만을 반복할 뿐이며 실질적인 협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각 국가들간의 게임은 반복 및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발생하는 행위동인의 변화, 즉 이익 내지 선호변화에 따라 항상 새로운 행위들을 요구한다. 이미 3장의 구성주의이론에서 언급되었듯이 이익 내지 선호변화는 국내적 차원에서 정체성 변화와 국제적 차원에서 규범과 제도 변화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갈등보다는 협력지향적인 정체성과 공유규범 및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질적·양적 증대와 직결된다. 이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포함하여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구조에서 형성되고 있는 국제규범 및 제도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제사회에 동참노력을 보이는 북한의 태도변화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제도의 실천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록 북한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세계적 내지 지역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제도화의 경향과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메타규범들의 확산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²⁹⁵⁾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이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인 정체성 변화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수 있는 지역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그러한 환경의 조성과정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사회의 인식변화는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평화와 협력에 대한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증진이라는 당위론적 규범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기에는 아직 이른다. 동북아 지역은 서구와 다른 특유의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힘의 논리가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냉전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상호주관적 인식이 안보의 중요성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탈냉전시기에 접어들어 동북아 지역에도 국제협력의 규범 및 제도적 기반의 확립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실도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안보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현실적 필연성이 대두한다.

비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면과제가 우선 국가간 이익들의 절충과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향후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통일의 과제를 고려하면, 평화체제는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기제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학자들에게 친숙하지만 현실의 일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결과주의의 논리'를 넘어 '적합성의 논리'를 진지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295) Christian Reus-Smit,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Nature of Fundamental Institutions," p.570 참조.

나. 양자적 내지 다자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하여 남한 정부는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을 꾸준히 내세워왔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국제정치적 측면이 점차 부각되는 가운데 당사자 원칙의 관철이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당사자 원칙의 강조와 나란히 4자회담이 남한정부에 의해 제안·추진되었던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당사자 해결 원칙은 남한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정부가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 탓에 그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이러한 당위와 현실의 불일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혹에도 불구하고 미·일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마침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당사자 해결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그러나 페리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남북관계는 우리의 의지와 별개로 주변강대국, 특히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남한정부는 국제적 지지 하에 남북 당사자간 해결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표명하고 있다.

그러한 의지표명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양자적 해결을 위해 다자적 접근을 활용하려는 목표설정, 둘째로 다자적 접근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강요를 인정하는 가운데 양자적 해결 원칙을 포기하기 어려운 국내적 여론을 감안한 수사적인 표명, 셋째

로는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의 병행 추진이다. 아마도 정책담당자들은 첫째의 해석을 목표이자 희망사항으로 여기고 있을 것이며, 둘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면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첫째와 둘째의 절충적 대안으로 고려될 것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은 한반도 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가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하는 바처럼 현실이 따라줄 것인지는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러한 당위론적인 논의는 일단 접어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이 양자적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해 어떻게 촉진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협력의 촉진과 관련한 이론화 작업은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이들은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발시키는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협력증대를 위해 일차적으로 반복게임이 필요하며, 여기서 제시되는 전략들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다.²⁹⁶⁾ 게임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전략적 범주와 참여자들의 성격 또는 동기 변화와 관련된 그것이다. 게임의 구조변화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미래의 그림자’를 길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²⁹⁷⁾ 즉 참여자들이 미래의 이득에 대한 전망을 가

296)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pp.124-44; Kenneth A. Oye, "Explain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Hypotheses and Strategies," *Cooperation under Anarchy*, pp.9-22; Robert Axelrod & R.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pp.87-98 참조.

297) 미래의 그림자가 협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① 장기적인 시간 지평, ② 게임의 규칙성, ③ 타자의 행위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 ④ 타자의 행위에서 변화에 대한 재빠른 대응 및 환류

김으로써 현재의 게임에서 이탈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수익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전략이다. 국제정치적 현실에는 반드시 죄수의 딜레마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게임의 성격과 국력 차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오이(Oye)는 수익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방적, 양자적, 그리고 다자적 전략의 세가지를 제시한다.²⁹⁸⁾ 일방적인 전략은 무엇보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적 저항을 야기함으로써 실제로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둘 수 있다. 이에 비해 양자적 및 다자적 전략은 이슈연계와 상호성 등의 활용을 통해 협력의 촉진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셋째, 게임 참여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합리주의자들은 흔히 게임 참여자수가 많을수록 협력은 어렵다고 말한다.²⁹⁹⁾ 그렇지만 협력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소수의 협력보다 다수의 협력이 더욱 높을 수도 있다.³⁰⁰⁾ 즉 참여자 수를 줄일 경우, 협력의 용이성과 유지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지만, 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양자적 내지 소수의 협력은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러한 외부성(externalities)은 제3자의 견제를 유발하여 협력의 제한을 초래하거나 또는 오히려 제3자를 협력의 장

등이다. Robert Axelrod & R.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pp.91-92.

298) Kenneth A. Oye, "Explain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Hypotheses and Strategies," pp.9-11 참조.

299) 게임 참여자수가 증가할 경우, 협력이 더욱 어려운 이유로는, 첫째, 거래비용 및 정보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익명적 이탈의 용이성과 대가 지불 및 통제의 어려움이 증가한다. 셋째, 이탈자를 응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한다. *ibid*, p.19 참조.

300) *ibid*, p. 21; Duncan Snidal, "Coordination vs. Prisoners' Dilemma," p.929 참조.

으로 유인하여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참여자들의 성격 또는 동기 변화를 통한 협력 증진전략으로는 첫째, 이타주의자나 이기주의자에게 모두 통용되는 상호성을 각 참여자들이 습득하는 것이다. 공공선을 위한 이타주의자들의 행위는 유사한 감정을 갖는 집단 속에서만 협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상호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상호성의 중요성은 이기주의자들의 세계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중앙통제권력이 존재하지 않은 사회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Tit For Tat)’ 전략은 서로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의(justice)의 잣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갈등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상호성의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받은 것의 9/10만을 되돌려주는 전략으로 갈등 완화 및 협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³⁰¹⁾ 어쨌든 상호성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이타에 대한 개념규정이 명확해야 하며, 또한 행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인식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과거의 게임을 경험삼아 타자의 정체성 또는 행동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만 지속적인 협력과 협력의 증진이 가능하다. 예컨대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상호 안보협력을 추구했지만, 상대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각자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력이 어려웠다. 이는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상호성이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남북한은 서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자적 게임의 모델에서 도출된 이상의 전략들은 다자적 게임(n-person game)의 경우에도 대체로 적용된다. 예컨대 게임이론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되는 상호성은 다자적 게임에

301)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p.138 참조.

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다자적 게임일 경우, 상호성은 더욱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양자적 게임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의 단순한 적용에 따른 ‘특화된 상호성’이 문제라면, 다자적 게임에서는 이것과 함께 ‘분산된 상호성’의 적용도 고려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호성 전략 자체로는 현실세계의 협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상호성은 협력뿐만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공유이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 더구나 상호 연계성을 갖는 사안들에 대해 분리적 또는 순차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가치의 변화로 인해 이전에 이루어졌던 협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³⁰²⁾

상호성 전략의 예에서 보듯이 게임참여자들의 전략만으로 협력의 축진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현실세계에서는 이들 전략은 상호작용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게임이론적 시각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맥락은 다차원 게임(multilevel game)으로 설명된다.³⁰³⁾ 즉 상이한 차원의 게임들이 서로 영향을 줌으로써 상호간에 우발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슈연계, 국내와 국제정치적 연결, 그리고 상이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게임들간의 양립 가능성 여부 등은 세계정치에서 협력의 발생 맥락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황들이다.

다차원 게임을 염두에 두면, 정치적 맥락을 배제한 채 어떤 특정한 상황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협력의 발생양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은 자명해진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맥락은 제도의 모습을 띠고 있

302) Robert Axelrod & R.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p.105 참조.

303) *ibid*, pp.98-103 참조.

다. 제도는 이미 3장에 설명되었듯이 각 패러다임마다 상이하게 개념화되고 있다. 현실주의는 제도를 권력정치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데 반해, 신자유주의는 제도가 행위의 독립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로 효용주의의 측면에서 제도의 규제적 기능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에 비해 구성주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제도의 자율성과 신념 및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적 기능을 넘어 행위와 구조를 구성하는 제도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협력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협력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게임전략'과 행위자들간 상호작용의 맥락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물론 협력보다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는 논리상 협력이 주로 행위자의 전략에 좌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에 비해 다차원 게임에 주목하는 신자유주의는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 전략의 결과들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도 기본적으로는 행위자의 전략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협력의 동기를 활성화 내지 최대화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협력의 동기유발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결과를 축적해왔으나, 실제로 그 동기가 협력의 실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가장 큰 원인은 게임이론에는 의사소통이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³⁰⁴⁾ 언어적 상호작용을 배제한 채

304) Harald Müller, "Internationale Beziehungen als kommunikatives Handeln: Zur Kritik der utilitaristischen Handlungstheorien,"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Beziehungen*, 1.Jg., Heft 1 (1994), p.24; Thomas Risse-Kappen, "Reden ist nicht billig; Zur Debatte um Kommunikation und Rationalität,"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Beziehungen*, 2.Jg., Heft 1 (1995), p.176 참조.

국제협력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합리주의자들은 게임이론의 틀에다가 인위적인 두가지 개념을 도입한다. 즉 신호(signal)와 언질주기(commitment)이다.³⁰⁵⁾ 신호는 게임상대자의 동기나 결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지식은 사적 성격, 즉 상대방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된다. 언질주기는 게임의 시작되기 이전, 신호들에 포함된 지식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언질주기가 신호들과 관계를 갖는지, 또 게임시작시 언질주기가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협력적 게임의 결과가 좌우된다. 이렇듯 게임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합리주의자들의 상호이해적 대안은 소위 ‘힘들이지 않은 대화(cheap talk)’로 상징된다.³⁰⁶⁾

그러나 이러한 ‘힘들이지 않은 대화’는 근본적으로 의사소통 및 상호이해지향적 행위의 기본성격을 결여하고 있다. 여기서는 단지 상호정보교환만이 이루어질 따름이고, 상대방의 언어행위의 진실성에 대한 상호신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공동의 상황규정을 목표로 하거나 규범적 틀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³⁰⁷⁾ 이러한 합리적 내지 전략적 선택이론의 취약성을 보완 내지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계열에서 있는 독일의 일부 국제정

305) James D. Morrow, "Modeling the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istribution versus Inform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8, No.3 (1994), pp.387-423 & "The Strategic Setting of Choices: Signaling, Commitment, and Negoti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p.86-102 참조.

306) James Johnson, "Is Talk Really Cheap? Prompting Conversation Between Critical Theory and Rational Choice," *APSR*, Vol.87 (1993), pp.74-86 참조.

307) Harald Müller, "Internationale Beziehungen als kommunikatives Handeln," pp.29-30 참조.

치학자들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을 도입한다. 이 맥락에서 리쎄-칼펜은 ‘결과주의의 논리’를 지향하는 합리주의적 이론들에 내재하는 문제점 두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합리적 선택이론은 행위자들의 전략적 협상을 가능케 하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상황규정과 합의, 즉 공동지식(common knowledge)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상호작용, 즉 게임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³⁰⁸⁾

이러한 문제점은 효용주의적 행위에 주목하는 ‘결과주의의 논리’만으로는 극복되지 못하며, 규칙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는 ‘적합성의 논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효용극대화를 피하는 행위가 아닌 ‘올바른 것’ 내지 타당성을 찾는 행위를 통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적합성의 논리’에서 강조되는 규범적 행위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추구 또는 논증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논증적 합리성(argumentative rationality)에 기반을 둔 ‘논증의 논리’가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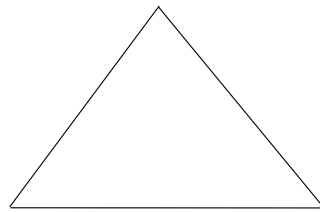
<그림 IV-5>에서 선분 CA는 전략적 행위에 따른 협상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목표달성 내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흥정과 수사학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뿐이다. 이에 비해 선분 PA는 진리추구 내지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설득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개별적인 이해(verstehen)가 아닌 감정이입(empathy)을 통한 상호이해(Verständigung)와 ‘합리적인 견해의 일치(reasoned consensus)’에 의해 도출된다. 합리적인 견해의 일치를 찾는 의사소통적 행위는 행위자의 개인적 선호를 실현하려는 욕구보다, 진리를

308) Thomas Risse-Kappen, "Let's Argue!: Communicative Action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4, No.1 (2000), p.11 참조.

추구하는 욕구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일차적으로 공동의 지식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의 초점을 모은다. 협상에서 진리추구 행위와 이를 위한 공동지식의 확보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의 과정과 양립한다. 진리추구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 내지 완화하기 위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⁹⁾

<그림 IV-5> 사회행위의 세가지 논리

논증의 논리(A)



결과주의의 논리(C)

적합성의 논리(P)

출처: Thomas Risse-Kappen, "Let's Argue!" p.8.

물론 의사소통적 행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의사소통 행위자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직접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공동의 생활세계를 공유해야 한다. 셋째, 행위자들은 동등한 자격으로 담론에 참여함으로써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³¹⁰⁾ 그렇다면, 다양한 문화와 권력관계로 이루어진 국제관계에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을

309) *ibid.*, p.12 참조.

310) *ibid.*, pp.10-11; Harald Müller, "Internationale Beziehungen als kommunikatives Handeln," p.27 참조.

까? 리쎄-칼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일차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공동의 생활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레짐 내지 제도에서 보듯이 세계에 대한 집단적 해석이 미약하나마 존재하고 있다는 데서 입증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의사소통적 행위라는 이상적인 언어상황이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권력 역시 담론 속에 내재하고 있으며, 더욱이 권력이 개입된 전략적 행위에 대해 행위자들은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세계에서는 전략적 행위(결과주의의 논리), 규범적 행위(적합성의 논리), 담론적 행위(논증의 논리) 중 어느 것도 순수하게 한가지 형태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행위자가 어떠한 형태의 행위를 하는가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의 행위가 더욱 요구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국제사회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진리추구적 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³¹¹⁾

나아가 리쎄-칼펜은 논증적 합리성은 공동지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① 언어행위의 진실성에 대한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② 상황규정에 대한 논증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③ 중요한 규범적 틀에 대한 집합적 이해를 얻기 위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실제의 협력사례들을 살펴보면, 진리요구에 대해 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로간에 불일치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할 경우,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서 노사협상을 들 수 있다. 효율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사 양측은 일차적으로 공동의 이해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논증의 과정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공동지식을 마련한다. 이는 게임을 규정하는 집합적 이해의

311) Thomas Risse-Kappen, "Let's Argue!" p.19 참조.

기반이 되며, 그 위에서 타협을 위한 전략적 협상이 전개될 수 있다.³¹²⁾

담론적 행위에서 공동지식은 기본적으로 규범적 행위에서 공유지식 및 문화와 일맥상통하며, 이는 제도의 기반이다. 앞에서 누차 강조되었듯이 사회학적 제도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전략적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기능을 갖는 상호작용의 맥락을 넘어 행위를 새로이 구성하기도 한다. 공유규범과 제도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는 종종 게임이론가들이 제시하는 협력촉진 전략들의 의미를 축소시킨다. 예컨대 행위자 수와 협력의 용이성간의 상관관계보다 어떠한 공유규범이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이는, 갈등적인 양자관계에서보다 협력적 규범이 존재하는 다자관계에서 협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소위 다자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자주의는 단순히 셋 이상의 행위자가 관계를 갖는다는 것 이상을 뜻한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조직원리를 넘어 규범적인 원칙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행위자들을 결속시키는 심층구조 — 즉 규범 및 규칙 — 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다자주의의 주요 전제이다. 이 점에 주목하면, 다자주의가 참여국가들의 양자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자주의는 일반적으로 수적 개념이라기보다 이슈적 내지 지역적 개념을 강하게 내포한다.³¹³⁾

적합성의 논리를 추종하는 제도주의적 이론은 합리주의 이론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행위주체와 구조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312) *ibid.*, pp.13-14 참조.

313) James A. Caporas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Multilateralism Matters*, pp.54-56 참조.

공유규범의 변화로 인해 행위자들의 애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은 이미 앞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유럽공동체(EC)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발전과정은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양 제도적 기구의 현재 모습은 애초의 설립의도 및 목적과는 상이해져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즉 유럽연합(EU)의 형성으로 경제적 목적의 유럽공동체가 군사안보적 문제까지 포괄하며, 또한 소련 및 동구공산권에 대항한 집단안보기구의 성격을 띠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탈냉전기에 들어와서 유럽지역의 안보공동체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형식을 갖춘 제도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제도의 성격 변화는 과거 동·서독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70년을 전후한 시기 동·서독관계를 새롭게 규정했던 제도, 즉 현상유지의 기반 위에 성립된 긴장완화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동·서독주민들의 공유규범을 변화시킴으로써 결국은 통일의 발판으로 작용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과주의의 논리’, ‘적합성의 논리’, ‘논증의 논리’에 입각한 협력이론들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 중요한 이론적 논점을 제공한다. 첫째, ‘결과주의의 논리’에서 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자적 및 다자적 접근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여태껏 남북한관계와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 한반도 문제는 전략적 시각에서 분석·설명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주의의 논리에 입각할 경우, 한반도 평화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 또는 다자주의적 접근은 게임의 수익구조 변화 전략과 다차원 게임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오이(Oye)가 제시하는 수익구조 변화전략, 즉 일방적, 양자적, 다자적 전략은 탈냉전기 남한의 대북·통일정책에 모두 담겨있다. 특히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수익구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후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를 비롯하여 정치적으로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자적 전략과 4자회담의 개최나 동북아 안보협력기구의 필요성 주장 등과 같은 다자적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일방적 전략이 과거 남북한간 갈등적 상호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경제적 분야에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이며, 안보적 분야에서는 대가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내적 저항 탓에 적용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상호성과 다차원 게임의 상호작용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 내지 활용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사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은 전형적인 다차원 게임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의 상호주의 원칙 준수, 사안간 연계전략 추진, 다자주의적 접근 등이 강조되는 데서 입증된다. 실제로도 이산가족의 남북동시 방문의 예에서 보듯이 상호성은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KEDO 방식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4자회담의 개최, 한·미·일 대북정책공조,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대국민홍보 및 통일교육의 강화, 북한의 국제적 활동 지원, 경의선 복원과 관련하여 군사문제와 경제협력의 연계 등과 같이 다차원 게임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양자적 및 다자적 차원에서 그러한 전략적 행위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협력게임의 성공에 필수적인 공동이익의 존재 여부가 일차적 관건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 전쟁회피와 평화정착을 통한 현상유지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한 협력이익과 분배갈등간의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협상

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입장만을 두고 보면, 남한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반면, 북한은 사안별로 양자적 또는 다자적 관계를 원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협력과 같이 협력이익이 명백히 기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내지 양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북한내부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협력과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양자적 내지 다자적 관계를 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성의 적용에 있어서도 딜레마가 존재한다. 아직 남북한간 안정적인 협력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게임을 통해 협력의 증대를 꾀하는 남한은 ‘특화된 상호성’을 엄격히 적용하기 어렵다. 만약 그러한 상호성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양자적 협력을 도모하기조차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내적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일방적 전략을 무턱대고 지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적 전략은 남북한간 협상딜레마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남한의 대북·통일정책에서 표방되고 있는 다자적 접근은 다자주의와 적지않은 거리가 있다. 현재의 다자적 접근은 근본적으로 안보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당사자 해결 거부태도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2+2’를 내세우는 4자회담에서 입증되듯이 실제로는 4개국간에 형성되는 여러 개의 양자적 관계를 서로 연결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형태의 다자적 관계에는 4국간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은 자명하며,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국제레짐 내지 제도의 기능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설령 4자회담이 성공을 거듭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양자적 관계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는 국제제도가 “행위역할을 지시하고, 행동을 제한하며, 기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지속적이고 연결된 규칙들”을 생성하고, 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기서는 오히려 현실주의적 설명이 더욱 타당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논점은 ‘적합성의 논리’와 ‘논증의 논리’가 ‘결과주의의 논리’에서 노정된 전략적 행위의 한계를 보완 내지 극복하는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자 해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현 단계에서는 효율적 전략의 모색에 앞서 우선 협상을 가능케 하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상황규정과 합의, 즉 공동지식을 찾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예컨대 남북한이 현 상황을 각각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갈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바로 그러한 공동지식을 모색하는 첫발 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동지식은 남북한 양자간에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북·미 평화보장협정을 요구하는 북한의 완고한 태도에서 보듯이 공동지식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반드시 양자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당사자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간의 공동지식은 세계적 차원과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통용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과 동떨어진 것일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낮지만, 만약 남북한이 국제규범과 상충하는 공동지식을 형성한다면, 이는 주변강대국에게 개입의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국제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양자적 관계도 국제제도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즉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은 궁극적으로는 세계 및 지역적 다자주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탈냉전기 세계적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자주의는 세계시장의 자유화, 정치적 민주화, 인권, 안보협력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직 서구적 수준의 다자주의적 행위와 규범이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세계적 추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 흐름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국제관계의 추동력은 단순히 힘의 논리에만 의존하지 못하며, 점차 국제규범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한·미·일 대북정책 공조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미·일의 다자적 관계에는 협력을 위해 서로의 이익을 규제하는 제도적 기능이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의 다자적 관계는 양자적 관계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발언권을 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북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적 조화와 협력적 규범, 즉 상호주관성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러한 다자주의가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포괄하는 더욱 큰 다자주의로 발전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 평화문제가 동북아 전 지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협력의 제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은 아쉽게도 그리 높지 않다. 동북아지역의 다자주의는 오히려 세계적 협력규범의 확산에 따라 점진적으로 형성될 것이며, 그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

탈냉전기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보편적 국제관습의 통용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남북한 관계의 예만 보더라도, UN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6·15 남북정상회담' 등을 바탕으로 남북한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협력의 제도화를 향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남

북한이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특히 분단이래 한반도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왔으며,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강한 집념의 근거에 놓여있는 민족주의적 의식은 의사소통적 행위의 주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주변강대국들이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부정하지 못하고, 외형적이거나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단지 역학관계의 균형유지에 대한 고려를 넘어 더욱 근본적으로는 근대국제관계의 기본적 규범인 민족자결주의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탈현대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주의만으로 양자적 해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국제사회에는 한편으로 현대적 주권국가들의 무정부성에 따른 힘의 논리가 아직 엄연히 위력을 발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세계통치체제(global governance)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보적 협력규범들은 힘의 논리를 억제하고 세계정치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기제로서 정당성을 점차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를 극복하고 당사자 해결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양한 규범들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는 두 방향에서 의사소통적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국가들과는 민주적 국제규범의 정립을 향한 다자주의의 구축을 위해 각각 의사소통적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적 및 다자적 차원의 제도화를 넘어 각국의 사회적 행위자의 정체성 변화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앞에서 누차 언급되었지만, 제도에는 규범성과 가능성이 공존한다.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화의 수준은 공동지식 내지 기초적 규범의 정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주의의 논리’는 현 단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유규범이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주의의 논리’로는 협력증대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정체성과 구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통일이라는 최종목표를 위한 중간목표라는 점을 직시한다면, ‘왜’라는 질문에만 매달리기보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져볼 필요가 있다. 전략적 행위에서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목표 이면에 숨어있는 통일목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나 또는 양 목표에 내재한 가치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반면, 의사소통적 행위에서 평화와 통일은 이미 별개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V. 결 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수많은 정책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지금도 연구들은 계속되고 있다. 정책연구는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정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지식에서 출발하는가에 따라 정책대안이 달라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물론 지식은 단지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정하는 것도 지식에 달려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여 체계화된 지식을 흔히 이론이라고 부른다. 이론은 반드시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아니며, 복잡한 현실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렌즈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연구를 보다 심층적이고 의미있게 수행하기 위해 어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에 앞서 평화개념을 정립하고, 평화에 관한 이론연구의 흐름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평화는 현존하는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 미래지향적 목표로서 끊임없이 추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갖기 힘들며, 그 결과 평화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바라보는 이의 가치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현실주의자는 갈통이 말하는 소극적 평화에 대체로 만족하며, 자유주의자는 적극적 평화를 향한 인류정신의 발전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더욱 주목한다. 또한 평화개념은 국제정치적 현

실에 따라 변화해왔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소대립이 첨예화되고 핵 무기로 인해 인류절멸의 가능성이 대두되었던 시기에는 이론적 관심이 소극적 평화의 달성에 급급했으나, 1970년대 긴장완화를 거쳐 탈 냉전시대에 이르면서 적극적 평화를 향한 희망이 상대적으로 점증했다. 이는 안보연구의 초점이 국가안보, 국제안보, 세계안보로 변화해 왔다는 사실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적 안보연구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탄생한 현대적 평화연구도 점차 이론과 사회운동의 양 측면에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데서 입증된다.

둘째,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정책연구에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론들을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평화는 국제정치학의 중심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이래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세가지 이론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각 이론들이 표방하는 핵심가정과 평화의 조건을 요약적으로 정리했다. 문제는 사회과학 이론이 가지는 한계 탓에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으로 간주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이론들은 특정 문제영역에서 강점과 약점을 가진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세계적 냉전시기 문제해결이론으로서 국제정치이론의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1970년대 등장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실증주의와 신고전학파의 미시경제학적 목적합리성을 기반으로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전략적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정치현상에 대해 서로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제정치학계를 석권했다. 그러나 이들 이론에 전제된 가정 및 방법론, 예컨대 국가중심주의, 효용주의, 실증주의, 그리고 구조개념 등은 일반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부터 이미 사회학에서 시작된 3가지의 이론적 ‘탈(post)’ 운동

(post-structuralism, post-positivism, post-modernism)의 여파가 1980년대 뒤늦게 국제정치학에 밀려들면서 기존 이론들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구성주의가 서서히 태동되었다.

구성주의는 무엇보다 국제정치이론들의 존재론 및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정치학이 사회과학으로서 면모를 재정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구성주의는 기존의 주류 이론들이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실증주의에 집착하여 사회과학의 전체주의(또는 구조주의)와 관념주의적 전통을 배제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마치 19세기 말 베버가 역사주의와 실증주의의 논쟁에 대해 양자를 모두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듯이,³¹⁴⁾ 양자간의 이론적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즉 역사라는 큰 흐름을 무시한 채, 현재라는 시간적 단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눈에 보이는 요소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효용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기존 국제정치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주의는 역사주의의 해석과 이해를 도입·집목시키려는 원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구성주의는 비판이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기존 국제정치이론들에 비해 문제해결이론으로서 아직 풍부한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구성주의가 문제해결이론의 성격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구성주의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의존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정들이 ‘특정 조건을 전제’(ceteris paribus)로 하기 때문에 현실세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행위의 상호주관성에 주목한다. 즉 현실세계에서 행위자들의 행위는 상호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

314) 막스 베버, “사회과학적 그리고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 ①』, 전성우 역 (서울: 사회비평사, 1997), pp.29-124 참조.

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주의는 정체성, 문화, 규범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맥락에서 구성주의자들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언어행위이론, 나아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을 도입한다. 행위를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이라고 표현하는 구성주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핵심인 전략적 행위에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이상과 같은 국제정치이론들의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이론적 논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경험적·귀납적 내지는 규범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론적 접근은 단지 간헐적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연구의 상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 규정을 시도했다. 개념규정은 개념적 틀 또는 이론적 논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레짐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서 ① 한반도 평화는 지역적 범위를 가진 하나의 국제적 이슈로 간주될 수 있고, ②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위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결정절차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합의서’ 등은 비록 실천력을 갖지 못하지만, 원칙과 규범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는 이미 ‘선언적 레짐’이 존재한다는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규정이 현재 진행중인 경험적 사실들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존재론 및 인식론적 논의와 문제해결이론적 논의는 앞에서 제시한 세가지 이론적 패러다

임을 토대로 연역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존재론 및 인식론적 논의는 웬트의 '주체와 구조 관계에 따른 국제정치이론들의 분류'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떠한 질서 및 작동원리에 따라 형성·발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의 질서모형을 모색하는 이론적 작업이다. 이를 위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이론적 틀을 모두 적용시켜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성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분석수준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론으로서 주목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문제해결이론적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행위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게임이론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전략적) 행위, 규범적 행위, 그리고 담론적 행위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각각의 한반도 평화문제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았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여태껏 주로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정에 집착하여 전략적으로만 인식된 경향이 매우 강하며, 그 결과 오히려 전략적 딜레마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의 적극적 모색이 요구되며, 규범적 및 담론적 행위이론은 전략적 행위를 보완해주는 접근방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서 구성주의의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주의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각 이론들을 비교·검토했으며, 이를 한반도 현실에 적용시켜보았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어떠한 이론도 일반이론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현실주의의 신중함과 자유주의의 발전주의 내지 진화론적 이념은 결코 경시될 수 없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전략적 행위가 판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목적합리성에 치중한 합리주의자들의 지식이 이데올로기화됨으로써 그러한 현상을 실제보다 더욱 과장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모든 행위에는 사회학적 측면, 즉 규범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성격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과주의의 논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억압되어온 ‘적합성의 논리’와 ‘논증의 논리’가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직은 계도적이며 시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한 논의가 활성화된다면 현실을 더욱 ‘있는 그대로’ 설명 내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막스 베버.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 ①』. 진성우 역. 서울: 사회비평사, 1997.
-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서울: 세종연구소, 1998.
- 신중섭.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1992.
- 위르겐 하버마스. 『탈형이상학적 사유』. 이진우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0.

- Allison, Graham T.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 Brown, 1971.
- Axelro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Y.: Basic, 1984.
- Baldwin, David A.,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Y.: Columbia Univ. Press, 1993.
- Boulding, Kenneth E. *Stable Peace*.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78.
- Brown, Michael E. et als, eds.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6.
- Brown, Michael E., S. M. Lynn-Jones, & S. E. Miller. *The Perils of Anarchy: Contemporary Realism and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5.

- Bull, Hedley.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Y.: Columbia Univ. Press, 1977.
- Butterfield, Herbert & Martin Wight, eds. *Diplomatic Investig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6.
-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 Company Ltd., 1939.
- _____. *Conditions of Peace*. London: Macmillan, 1942.
- Deutsch, Karl. *Political Community at the International Level*. Garden City, N.Y.: Doubleday and Company, Inc, 1954.
- _____. *The Nerves of Government: Models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d Control*. N.Y.: Free Press, 1963.
- Deutsch, Karl et als, eds.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7.
- Evans, Gareth. *Cooperating for Peace: The Global Agenda for the 1990s and Beyond*. Maryborough, Australia: Allen & Unwin Pty Ltd, 1993.
-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 Gilpin, Robert.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Y.: Basic, 1975.
- _____.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1.
- Haas, Ernest B.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1959.
- _____. *Beyond the Natio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1964.
- _____. *The Obsolescence of Regional Integration Theory*. Berkeley: Univ. of Berkeley, 1975.
- _____. *Nationalism, Liberalism, and Progress: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7.
- Hartfiel, Günther & Karl-Heinz Hillmann. *Wörterbuch der Soziologie*, 3. Aufl.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1982.
- Katzenstein, Peter J.,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Y.: Columbia Univ. Press, 1996.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 _____.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Westview Press, 1989.
- Keohane, Robert O.,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Y.: Columbia Univ. Press, 1983.
- Keohane, Robert O. & J.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 Brown, 1977.
- Knorr, Klaus & J. N. Rosenau, eds. *Contending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69.

- Krasner, Stephen D.,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 Univ. Press, 1983.
- Kubalkova, Vedulka, Nicholas Onuf & Paul Kowert,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Armonk, N.Y.: M.E. Sharpe, 1998.
- Lake, David A. & R. Powell, eds.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9.
- March, James G. & Johan P. Olsen,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Y.: Free Press, 1989.
- Milner, Helen V., ed. *Interests, Institutions and Information: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7.
- Mi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 1943.
- Moravcsik, Andrew. *Liber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Harvard Univ.) Working Paper Series No.92-6 (1992)
- Morgenthau, H.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th Edititon. N.Y.: Alfred A. Knopf, 1973.
- Neufeld, Mark A. *The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Y.: Cambridge Univ. Press, 1995.
- Neumann, Iver B. & Ole Waever.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s in the Making*. London: Routledge, 1997.

- Onuf, Nicholas G. *World of Our Making: Rules and Rule in Soci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9.
- Oye, Kenneth A.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6.
- Risse-Kappen, Thomas. *Cooperation among Democracies: The European Influence on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5.
- Rosenau, James N. ed. *Linkage Politics*. N.Y.: Free Press, 1969.
- Ruggie, John G.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Y.: Columbia Univ. Press, 1993.
- Senghaas, Dieter, hrsg. *Kritische Friedensforschung*. Frankfurt a.M.: Suhrkamp, 1981.
- Snyder, Jack. *Myth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1.
- Wallander, Celeste A. & R.O. Keohane,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lliance Theory*,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Harvard Univ.), Working Paper Series, No.95-2 (1995)
-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Y.: Columbia Univ. Press, 1959.
- _____.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Wolfers, Arnold.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2.

2. 논문

- 구갑우, 박건영.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2000. 10. 21)
- 김태현. “현실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2000. 10. 21)
- 양준희.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2000. 10. 21)
- 이근. “구성주의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2000. 10. 21)
- 이삼열. “비판적 평화연구란 무엇인가,” 이호재 편, 『한반도평화론』. 서울: 법문사, 1989.
-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2000. 10. 21)
- 정진영.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2000. 10. 21)
-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세미나시리즈 95-0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Adler, Emanuel. "Condition(s) of Pea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4, Special Issue (Dec. 1998)

_____.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 Relations*. Vol.3, No.3 (1997)
- Ashley, Richard K. "The Poverty of Neorealism,"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 by R. O. Keohane. N.Y.: Columbia Univ. Press, 1983.
- Axelrod, R. & R.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ed. by D. A. Baldwin. N.Y.: Columbia Univ. Press, 1993.
- Banks, Michael "The Inter-Paradigm Debate," *International Relations: A Handbook of Current Theory*, eds. by Margot Light & A.J.R Groom. London: Printer, 1985.
- Baumann, Rainer, Volker Rittberger & Wolfgang Wagner. "Power and Power Politics: Neorealist Foreign Policy Theory and Expectations about German Foreign Policy since Unification," *Tübinger Arbeitspapiere zur Internationalen Politik und Friedensforschung*. Nr.30a (1998)
- Berejikian, Jeffrey. "The Gains Debate: Framing State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No.91 (1997)
- Berejikian, Jeffrey & John S. Dryzek. "Reflexive Ac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0, No.2 (2000)
- Biersteker, Thomas J. "Critical Reflections on Post-Posi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3 (1989)
- Booth, Ken. "Security in Anarchy: Utopian Re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Affairs*. No.67 (1991)

- _____. "Security and emancip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7, No.4 (1991)
- Boulding, Kenneth E. "Twelve Friendly Quarrels with Johan Galtung," *Journal of Peace Research* No.14 (1977)
- Brock, Lothar. "'Frieden'. Überlegungen zur Theoriebildung," *Theorien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hrsg. von Volker Rittberger.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0.
- Brooks, Stephen G. "Dueling 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1, No.3 (1997)
- Buzan, Barry. "Rethinking System and Structure," *The Logic of Anarchy: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eds. by B. Buzan, C. Jones, & R. Little. N.Y.: Columbia Univ. Press, 1993.
- Caporaso, James A.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ed. by John G. Ruggie. N.Y.: Columbia Univ. Press, 1993.
- Christensen, Thomas J. &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4, No.2 (1990)
- Cox, Robert W.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 by R. O. Keohane. N.Y.: Columbia Univ. Press, 1983.
- Czempiel, Ernst-Otto. "Der Friede - sein Begriff, seine Strategien,"

- Beiträge zur Konfliktforschung*. Nr. 4 (1988)
- Dessler, David. "What's at Stake in the Agent-Structure Deb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3, No.3 (1989)
- _____. "Constructivism within a positivist social scien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5, No.1 (1999)
- Doyle, Michael W.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0, No.4 (1986),
- _____.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eds. by M. E. Brown, S. M. Lynn-Jones, & S. E. Miller.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6.
- Dunne, Timothy. "Realism,"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eds. by John Baylis & S. Smith. Oxford: Oxford Univ. Press, 1997.
- Efinger, Manfred, V. Rittberger, K. D. Wolf, & M. Zürn. "Internationale Regime und internationale Politik," *Theorien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hrsg. von Volker Rittberger.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0.
- Elman, Colin. "Horses for Courses: Why Not Neorealist Theories of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Vol.6, No.1 (1996)
- Frankel, Benjamin. "Restating the Realist Case: An Introduction," *Security Studies*. Vol.5, No.3 (1996)
-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No.6 (1969)
- _____.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27, No.3 (1990)

- _____. "Peace Theory: An Introduction," *World Encyclopedia of Peace, Vol. IV*, 2nd Edition, eds. by Young Seek Choue. Seoul: Seoul Press, 1999.
- George, Alexander L. "The 'Operational Code': A Neglected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Leaders and Decision-Mak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13, No.2 (1969)
- George, Jim.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Search for Thinking Space: Another View of the Third Debat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3 (1989)
- Gilpin, Robert. "No One Loves a Political Realist," *Security Studies*. Vol. 5 (1996)
- Glaser, Charles L. "Realists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The Perils of Anarchy*, eds. by Michael E. Brown, et al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5.
- Goldstein, Judith & R. O. Keohane, "Ideas and Foreign Policy: an Analytical Framework,"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eds. by J. Goldstein & R.O. Keohane.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3.
- Gould, Harry D. "What Is at Stake in the Agent-Structure Debate?"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eds. by Vedulka Kubalkova, et als. Armonk, N.Y.: M.E. Sharpe, 1998.
- Grieco, Joseph M.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 ed. by Baldwin, David A. N.Y.: Columbia Univ. Press, 1993.
- _____. "State Interests and Institutional Rule Trajectories: A Neorealist Interpretation of the Masstricht Treaty and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Security Studies*. Vol.5, No.3 (1996)
- Haas, Ernest B. "The Uniting of Europe and the Uniting of Latin Americ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5, No.4 (1967)
- Haas, Peter M. "Epistemic Communities and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Regim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ds. by Volker Rittberger & Peter May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Haftendorn, Helga. "The Security Puzzle: Theory-Building and Discipline-Building in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5 (1991)
- Haggard, Stephan & B. A. Simmon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1987)
- Hall, Rodney Bruce. "Territorial and National Sovereigns: Sovereign Identity and Consequences for Security Policy," *Security Studies*. Vol.8, Nos.2/3 (1998/1999)
- Hampton, Mary N. "NATO,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reating Positive Identity in Trans-Atlantia," *Security Studies*. Vol.8, Nos.2/3 (1998/1999)
- Hasenclever, Andreas, P. Mayer, & V. Rittberger. "Interests, Power, Knowledge: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gime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No.40 (1996)

-
- _____ . "Regimes as Links Between States: Three Theoretical Perspectives," *Tübinger Arbeitspapiere zur Internationalen Politik und Friedensforschung*, Nr.29 (1997)
- Hermann, Robert G. "Identity, Norms, and National Security: The Soviet Foreign Policy Revolu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ed. by Peter J. Katzenstein. N.Y.: Columbia Univ. Press, 1996.
- Herz, John H.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No.2 (1950)
- Holsti, K. J. "Mirror, Mirror on the Wall, Which Are the Fairest Theories of Al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3 (1989)
- Hopf, Ted.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23, No.1 (1998)
- Jepperson, Ronald L., Alexander Wendt, &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ed. by Peter J. Katzenstein. N.Y.: Columbia Univ. Press, 1996.
-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30, No.2 (1978)
- _____ .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Regimes*, ed. by Stephen D. Krasner. Ithaca: Cornell Univ. Univ. Press, 1983.

- _____. "From Balance to Concert: A Study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Cooperation under Anarchy*, ed. by Kenneth A. Oy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6.
- _____. "Realism, Game Theory, and Cooperation," *World Politics*. Vol.40 (1988)
- _____. "Realism, Neoliberalism,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1 (1999)
- Johnson, James. "Is Talk Really Cheap? Prompting Conversation Between Critical Theory and Ration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7 (1993)
- Kahl, Colin H. "Constructing a Separate Peace: Constructivism, Collective Liberal Identity, and Democratic Peace," *Security Studies*. Vol.8, Nos.2/3 (1998/1999)
- Katzenstein, Peter J., R. O. Keohane & S. D. Krasn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2, No.4 (1998)
- Keohane, Robert O. "Realism, Neorealism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 by R. O. Keohane. N.Y.: Columbia Univ. Press, 1983.
- _____. "Theory of World Politics: Structural Realism and Beyond,"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 by R. O. Keohane. N.Y.: Columbia Univ. Press, 1983.
- _____. "International liberalism reconsidered," *The Economic Limits to Modern Politics*, ed. by John Dun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0.
- _____.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gimes:

- towards a European-American Research Programme," *Regim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d. by V. Rittberger. Oxford: Clarendon Press, 1993.
- _____. "Hobbes' Dilemma and Institutional Change in World Politics: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Society," *Whose World Order? Uneven Globaliza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eds. by Hans-Henrik Holm & Georg Sorense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 Keohane, Robert O. & J. S. Nye. "Transnational Relations and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5 (1971)
- Kier, Elizabeth. "Culture and French Military Doctrine Before World War II,"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ed. by Peter J. Katzenstein. N.Y.: Columbia Univ. Press, 1996.
- Kohler-Koch, Beate. "Regime in den internationalen Beziehungen," *Regime in den internationalen Beziehungen*, ed. by B. Kohler-Koch.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89.
- Koppe, Karlheinz. "Der unerreichbare Friede: Überlegungen zur Begrifflichkeit des Friedens und ihre forschungspolitischen Konsequenzen," *PeaCon - Peace and Conflict Studies*, (1995), <http://www.ubi-muenster.de/PeaCon/arcdoce/texts/koppe3.html>
- Krasner, Stephen D. "Regimes and the Limits of Realism: Regimes as Autonomous Variables," *International Regimes*, ed. by Stephen D. Krasner. Ithaca: Cornell Univ. Univ. Press, 1983.

- Kratochwil, Friedrich & John G. Ruggi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state of the art on art of the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0, No.4 (1986)
- Kratochwil, Friedrich. "Constructing a New Orthodoxy? Wendt's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Constructivist Challenge,"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9, No.1 (2000)
- Krysmanski, H. J. *Soziologie und Frieden: Grundsätzliche Einführung in ein aktuelles Thema*.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3. <http://www.uni-muenster.de/PeaCon/arcdoce/texts/ww052.html>
- Kubalkova, Vendulka. "The 'Twenty Years' Catharsis: E.H. Carr and 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eds. by Vendulka Kubalkova, et als, Armonk, N.Y.: M.E. Sharpe, 1998.
- Lakatos, Imre.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eds. by I. Lakatos & Alan Musgrave.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70.
- Lake, David A. & R. Powell. "International Relations: A Strategic-Choice Approach,"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9.
- Lapid, Yosef. "The Third Debate: On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3 (1989)

- Legro, Jeffrey W. "Culture and Preferences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wo-Ste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0, No.1 (1996)
- Legro, Jeffrey W. & Andrew Moravcsik, "Is Anybody Still a Realist?"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2 (1999)
- Lipson, Charl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ed. by D. A. Baldwin. N.Y.: Columbia Univ. Press, 1993.
- Lynn-Jones, Sean M. & Steven E. Miller, "Preface," *The Perils of Anarchy*, eds. by Michael E. Brown, et al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5.
- Mansfield, Edward D. & Jack Snyder, "Democratization and the Danger of War,"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eds. by M. E. Brown, S. M. Lynn-Jones, & S. E. Miller.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6.
- March, James G. & Johan P. Olsen.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2, No.4 (1998)
- Mearsheimer, John J.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15, No.1 (1990)
- _____.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The Atlantic*. Vol.266, No.2 (1990)
- _____.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3 (1994/5)
- Moravcsik, Andrew. "Federalism and Peace: A Structural Liberal

- Perspective,"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Beziehungen*. 3. Jg., Nr.1 (1996)
- _____.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1, No.4 (1997)
- Morrow, James D. "Modeling the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istribution versus Inform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8, No.3 (1994)
- _____. "The Strategic Setting of Choices: Signaling, Commitment, and Negoti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ds. by David A. Lake & R. Powell.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9.
- Müller, Harald. "Internationale Beziehungen als kommunikatives Handeln: Zur Kritik der utilitaristischen Handlungstheorien,"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Beziehungen*. 1. Jg., Heft 1 (1994)
- Nye, Joseph S.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World Politics*. Vol.40 (1988)
- Nye, Joseph S. & Sean M. Lynn-Jones.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 Report of a Conference on the State of the Field," *International Security*. Vol.12, No.4 (1988)
- Onuf, Nicholas. "Constructivism: A User's Manual,"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eds. by Vedulka Kubalkova, et als. Armonk, N.Y.: M.E. Sharpe, 1998.
- Owen, John M. "How Liberalism Produces Democratic Peace,"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eds. by M. E. Brown, S.

- M. Lynn-Jones, & S. E. Miller.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6.
- Oye, Kenneth A. "Explain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Hypotheses and Strategies," *Cooperation under Anarchy*, ed. by K. A. Oy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6.
- Powell, Robert. "Absolute and Relative Gai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ed. by Baldwin, David A. N.Y.: Columbia Univ. Press, 1993.
- _____. "An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neorealist-neoliberal deb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8, no.2 (1994)
- Price, Richard & Christian Reus-Smit. "Dangerous Liaisons? Critical International Theory and Constructivism,"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 No.3 (1998),
- Reus-Smit, Christian.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Nature of Fundament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1, No.4 (1997)
- Ringmar, Erik. "Alexander Wendt: science v. history,"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eds. by Iver B. Neumann, et als. London: Routledge, 1997.
- Risse-Kappen, Thomas. "Reden ist nicht billig; Zur Debatte um Kommunikation und Rationalität,"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Beziehungen*. 2.Jg., Heft 1 (1995)
- _____. "Collective Identity in a Democratic Community: The Case of NATO," *The Culture of National*

- Security*, ed. by Peter J. Katzenstein. N.Y.: Columbia Univ. Press, 1996.
- _____. "Konfliktprävention durch Theorie?" *Internationale Politik*. Bd.51, Nr.8 (1996)
- _____. "Let's Argue!: Communicative Action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4, No.1 (2000)
- Rogers, Paul. "The Evolution of An Interdisciplinary Peace Studies Centre: The Bradford Experience," *Peace and Conflict Studies*. Vol.2, No.1 (1995)
- Ross, Robert 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23, No.4 (1999)
- Ruggie, John G. "International Responses to Technology: Concepts and Tre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9, No.3 (1975)
- _____. "What Makes the World Hang Together? Neo-Utilitarianism and the Social Constructivist Challe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2, No.4 (1998)
- Russett, Bruce. "Why Democratic Peace?"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eds. by Michael E. Brown et al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6.
- Schimmelfennig, Frank. "NATO Enlargement: A Constructivist Explanation," *Security Studies*. Vol.8, Nos.2/3 (1998/1999)
-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1994)

- Schweller, Randall L. & David Priess. "A Tale of Two Realisms: Expanding the Institutions Debate,"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1 (1997)
- Senghaas, Dieter. "Frieden als Zivilisierungsprojekt," *Den Frieden denken*, hrsg. von. D. Senghaas. Frankfurt a.M.: Suhrkamp, 1995.
- Shultz, Richard.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Security," *Security Studies for the 1990s*, eds. by R. Shultz, R. Godson & T. Greenwood. Washington: Brassey's, 1993.
- Singer, J. David. "The Level-of-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nternational System: Theoretical Essays*, eds. by K. Knorr & S. Verba.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1.
- Smith, Steve. "The Self-Images of a Discipline: A Genea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eds. by Ken Booth and Steve Smith. Oxford: Polity Press, 1995.
- _____. "New Approaches to International Theory,"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eds. by John Baylis & S. Smith. Oxford: Oxford Univ. Press, 1997.
- Snidal, Duncan. "Coordination versus Prisoner's Dilemma: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9 (1985)
- Stein, Arthur.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Regimes in an

- Anarchic World," *International Regimes*, ed. by Stephen D. Krasner. Ithaca: Cornell Univ. Univ. Press, 1983.
- Vasquez, John A. "The Realist Paradigm and Degenerative versus Progressive Research Programs: An Appraisal of Neotraditional Research on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1, No.4 (1997)
- Verein für Friedenspädagogik, "20 Jahre Friedensforschung - 20 Jahre Friedenserziehung," http://www.friedenspaedagogik.de/frieden/f_erzieh/gespl.htm
- Waever, Ole. "Figures of international thought: introducing persons instead of paradigm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s in the Making*, eds. by Iver B. Neumann and Ole Waever. London: Routledge, 1997.
- Walt, Stephen M. "Alliances in Theory and Practise: What Lies Ahead?"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43, No.1 (1989)
- _____.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The Perils of Anarchy*, eds. by Michael E. Brown, et al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5.
- Waltz, Kenneth N. "Reflections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 by R. O. Keohane. N.Y.: Columbia Univ. Press, 1983.
- _____.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18, No.2 (1993)
- _____.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1 (2000)

- Weber, Max "Die Wirtschaftsethik der Weltreligionen,"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I, 4. Auflage. Tübingen: Mohr, 1947.
- Wendt, Alexander.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No.3 (1987)
- _____.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2 (1992)
- _____. "Levels of Analysis vs. Agents and Structures: Part III,"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8 (1992)
- _____.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8, No.2 (1994)
- _____.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20, No.1 (1995)
- Wendt, Alexander & Daniel Friedheim. "Hierarchy under Anarchy: Informal empire and the East German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4 (1995)
- Wind, Marlene. "Nicholas G. Onuf: the rules of anarchy,"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eds. by Iver B. Neumann, et als. London: Routledge, 1997.
- Wohlforth, William C.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1 (1999)
- Zacher, Mark W. & R. A. Matthew, "Liberal International Theory: Common Threads, Divergent Strands," *Controvers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and the Neoliberal Challenge, ed. by Charles W. Kegley, Jr. N.Y.: St. Martin's Press, 1995.